

문화  
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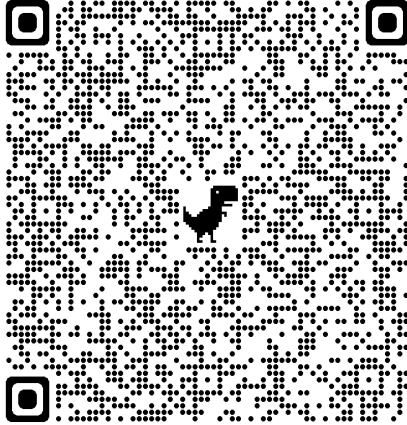
이영지  
지음

# 우리 시조문학의 마방진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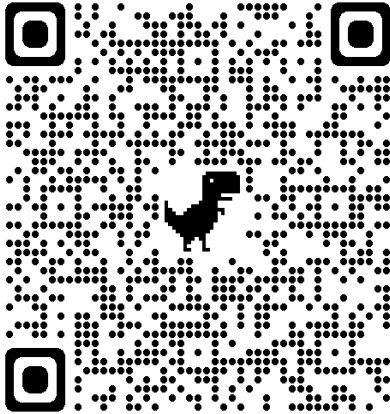


한국문학방송.COM

아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핸드폰 QR코드 스캔 어플 사용)



작가의 교보문고 판매 중 저서



이영지 작가의 전자책 책장

● 이영지 유튜브 문학관

<https://www.youtube.com/c/한국문학방송/search?query=이영지>



경북 영주 출생

△문화예술인

△명지대, 명지대학교 대학원 국문과(문학박사)

서울기독대학원(철학박사)

△《시조문학》 시조, 《창조문학》 시 등단

△《창조문학》 편집국장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한국창조문학대상, 추강시조문학상 수상

△시집 『장미와 앵두』 『행복의 순위』 외 다수

△이론서 『한국시조 문예미학연구』 『이상시학연구』

『한국시조시학 연구』 『홍문표 에덴시학연구』

『말의 신학과 물의 시학연구』 외 다수

상세 프로필은 책의 끝부분 참고



## » 머리말 «

우리나라는 보물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보물 중 하나를 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조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조작품의 음수율인데 이 음수율은 정형 율을 가집니다. 초장 3 · 4 · 3 · 4의 14자와 중장 3 · 4 · 3 · 4의 14자와 종장 장 3 · 5 · 4 · 3의 15자를 합한 43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조 한편이 되게 하는 응집성 43이 되는 오묘한 숨쉬기 일평생 리듬은 3 · 4로 시작하여 4 · 3으로 끝나는 총 수리 43마방진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조자수율 정의가 시조 한 편이 45자 내외라는 학설을 뒤집게 합니다. 시조문학이 가지는 리듬은 3으로 시작 3 · 4 · 3 · 4 · 3 · 4 · 3 · 4 · 3 · 5 · 4 · 3의 끝 3 숫자로 끝나는 법칙입니다. 다시 더 정의하면 시작 3 · 4로 시작 그 끝이 4 · 3으로 끝납니다. 이 4 · 3의 예고는 이 리듬이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고 예약된 리듬입니다. 줄 친 부분이 보여주는 3 → 4 → 3 → 4 → 3 → 4 → 3 → 4 → 3 → 5 → 4 → 3입니다. 이음 조건입니다.

시조한편은 총 43자입니다. 세상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이 리듬이 지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이 끝나는 지수입니다. 시조한편 자수 43를 떠 올리게 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 은유가 시조작품에 녹아 있는 예입니다. 시조작품 진가는 한 작품 안에 한 사람의 생애 리듬 43으로 한다는 아름다운 의미유추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마방진 리듬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아름답

답게 끝나는 의미리듬입니다.

생애는 숨 쉬는 생활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학작품을 하는 일은 숨 쉬는 생활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일 상에서 가장 힘을 주는 일은 숨 쉬며 일어서는 일입니다. 이 은유가 시조작품 12음절입니다. 시인<sup>1)</sup>의 생애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 한 사람의 생애가 가진 경험 기록 시조 작품<sup>2)</sup> 가치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절대자가 허락한 이 세상에서의 삶은 12마디를 가집니다. 12음절 의미입니다.

시조작품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시조작품의 12음절 중 끝 음절 3자가 숨어지면서 11음절만 읊어지거나 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한 생애는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살아있는 절망하는 일을 당해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시적 은유 몸 시학 두 발로 일어서! 힘 내 일어서라!! 천부경의 숨은 메시지 1의 11반복리듬이 전하는 메시지 일어나라! 두 발로 굳게 직립하라!

천부경이 전하는 숫자기록이 있습니다. 천부경은 1에서 10까지 언급됩니다. 그 중 1이 천부경 내에서 11회 반복합니다. 기호메시지로서의 일어서라!입니다. 이 숨은 천부경의 시적 메시지 1의 11회 반복 메시지는 위로 · 격려 · 희망 언어기호 일어서라 두 발로 일어서라!

시조문학작품의 위로 · 격려 · 희망 언어기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조작품은 3장 6구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끝 한 음절 마지막 3자는 창하거나 낭송할 때 이 3자를 생략합니다. 12음절 중 마지막 한 절을 하노라 류를 생략하면서 12음절이 11

1) 이영지, 『이상시학 연구』 (서울: 창조문학, 2017), 302~324.

2) Wall · R 지음: 이영현 옮김 『수리언어학』 (서울: 한신문화사 · 1987) · 40.

절이 됩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실제 시조작품 3장 6구 12음절은 12음절이 되면서 두 발로 딛고 일어서라! 입니다.

우리민족은 겸손합니다. 임금 밑 어른을 모시는 아름다운 예절이 있습니다. 시조작품 12음절 중 마지막 한 음절 3자가 곧 종장 마지막 끝 절 ‘하여라’ 등의 대화체 생략입니다. 그 이유 그것은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삶! 임금님 앞이나 어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하여라’류 대화체가 창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음절은 허사리듬입니다. 창<sup>ㅁ</sup>되지 않습니다.

~ 2022. 5. 5 이영지



# 레

## 머리말

### 제 1장 시조 텍스트다움 리듬 : 10

- 의 시조를 중심으로

#### 1. 시조의 문예미학 : 10

- (1). 제기 1 : 10
- (2). 문제의 제기 2 : 11

#### 2. 시조 와 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의 흥 : 12

##### 1). 시조<sup>時調</sup>의 매력 : 12

- (1). 시조<sup>時調</sup>의 흥 : 12
- (2). 시조문학의 특성 ‘우리’ 리듬의 매력 : 20

##### 2). 아름다운 시조의 텍스트다움 리듬 : 24

- (1). 숨 쉬기 리듬 : 24
- (2). 12의 숨쉬기 리듬 : 25
- (3). 일어서라! : 27
- (4). 6의 리듬 : 29

##### 3). 3음절로 숨쉬기 시작하고 3음절로 끝내는 아름다운 리듬 : 30

- (1). 슬프도록 아름다운 인생일생 : 30
- (2). 시조작품의 끝 묘미 : 31
- (3). 코리아와 코리안 그 보석의 사람과 보석의 나라 : 32

#### 3. 꿈의 합일 푸른 의미리듬 : 42

##### 1). 합일 : 42

- (1). 12° 차이의 그 푸르름 : 42

- (2). → 약<sup>弱</sup> → 강<sup>強</sup> → 약<sup>弱</sup> : 44
  - (3). 세 번째 리듬에서의 강박 리듬과 주제 의미리듬 : 45
  - (4). 박자와 주제와의 관련성 : 47
  - (5). 보라색 몸부림이 있는 시조 텍스트다움 리듬 : 48
- 2). 밝음 지향 리듬 : 53

## 제 2장 시조의 심리리듬 : 61

- 1. 문제의 제기 : 61
- 2. 장시조의 심리리듬 : 62
- 3. 시조심리리듬 집 : 65
  - 1). 다단계 저축리듬 : 69
  - 2). 다단계 심리리듬 : 71
  - 3). 해독 전략에 의한 발견 리듬 : 73
- 4. 오감도의 전통성유추 : 84
  - 1). 대립적 율격과 조화의 리듬 : 84
  - 2). 고시가들 : 85
    - (1). 처용가 : 85
    - (2). 「쌍화점」 : 85
    - (3). 「청산별곡」 : 85
    - (4). 「용비어천가」 : 85
  - 3). 오감도 시제 호의 삼分 리듬 : 88
  - 4). 전통 리듬의 의미 중량 : 91
- 5. 회복 : 97

## 제 3장. 시조와 리머틱의 문예미학 : 107

- 1. 시조와 리머틱 : 107
  - (1). 문제의 제기 : 107



- (2). 특징 : 108
- 2. 리처드 러트와 리머릭 : 109
  - 1). 한국문학과 리머릭 속요 : 109
    - (1). 코리아 타임즈의 리머릭 : 109
    - (2). 말놀이의 노래 형식 : 114
  - 2). 시조와 리머릭의 대화체 : 116
    - (1). 시조의 대화체 : 116
    - (2). 리머릭의 대화체 : 118
- 3. 시조와 리머릭의 주제 : 121
  - 1). 이웃과 나라 주제 : 121
    - (1). 시조작품의 주제 : 121
    - (2). 리머릭의 주제 : 123
  - 2). 해학문학성 : 125
    - (1). 시조작품의 해학문학성 : 125
    - (2). 리머릭의 해학문학성 : 127
- 4. 시조와 리머릭의 형태 변형 : 128
  - 1). 형태변형 : 128
    - (1). 시조작품의 형태변형 : 128
    - (2). 리머릭 138의 형태변형 : 132
  - 2). 운율문제 : 133
    - (1). 시조작품의 운율문제 : 133
    - (2). 리머릭의 운율문제 : 135
- 참고문헌 : 138

# 1장

## 시조 텍스트다움 리듬

- 의 시조를 중심으로

### 1. 시조율과 리듬

#### (1). 제기 1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문학 장르 중 시조문학의 작품이 자생성이라는 인식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 본 논문의 문제제기 1은 널리 회자되는 시조 한편 작품 길이가 45자 내외의 초장 중장 종장을 이와는 다른 43자의 정형률을 지닌다는 인식 논리의 시조 텍스트다움 리듬으로 문제제기한다.

실제 작품 길이 인식은 다음과 같다.

3 · 4 · 3 · 4

중장 3 · 4 · 3 · 4

종장 3 · 5 · 4 · 3

놀랍게도 이 리듬에서 드러난 수리의 합은 43자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한국시조 문학작품 1편이 45자 내외라는 인식과 실제 수리는 43자가 되는 시조 텍스트다움을 문제 제기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시조문예미학의 정형률에 대한 마방진 수리논리를 문제로 제기한다.

## (2). 제기 2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우리의식이다. 이 우리 인식은 한국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공감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나라는 모든 생활의식이 이 우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이 공감대 형성의 키워드 ‘우리’라는 개념은 생활방식이나 행사나 그리고 언어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다름 아닌 음식문화를 비롯하여 모든 것들이 이 ‘우리’라는 개념과 부합하고 있다.

때문에 이 ‘우리’의식은 가장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야 문학작품 특히 시조작품이 시대를 넘어서서 지속되는 이유가 ‘우리’의식이다. 쉽게 예를 들자면 그것은 시조리듬이 한국의 자연 기후특수성에 따르는 자생성의 의미리듬이 산재하고 또 그 의미의 공감대 언어가 다름 아닌 ‘우리’라는 개념이 작용하여서이다. 음식문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형태의 놀이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남편을 ‘우리 남편’이라고 부르는 등 ‘우리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등등 그렇다면 우리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작품 내에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우리의 오랜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시조 작품을 통해 얻는 위로와 격려로서의 작품 ‘우리’인식의 재확인을 문제로 제기한다.

## 2. 시조<sup>時調</sup>와 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의 흥

### 1). 시조<sup>時調</sup>의 매력

#### (1). 의 흥

문학으로서의 시조<sup>時調</sup>는 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이다. 한국 기후에 따르는 사시사철 계절을 노래한 시조<sup>時調</sup>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sup>江湖四時歌</sup> 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시조<sup>時調</sup>가 있다.

다음은 시조 맹사성의 강호사시가<sup>江湖四時歌</sup>이다.

에 봄이 드니 미친 흥<sup>興</sup>이 절로 난다  
 탁류계변<sup>濁漉溪邊</sup>에 금린어<sup>錦鱗魚</sup> |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sup>閑暇</sup>히움도 역군은<sup>赤君恩</sup>이샀다  
 - 맹사성<sup>孟思誠</sup>춘사<sup>春詞</sup>-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9

강호<sup>江湖</sup>에 녀름이 드니 초당<sup>草堂</sup>에 일이 없다  
 유신<sup>有信</sup>흔 강파<sup>江波</sup>는 보내느니 브람이다  
 이 몸이 서늘히움도 역군은<sup>赤君恩</sup>이샀다  
 - 맹사성<sup>孟思誠</sup>하사<sup>夏詞</sup>-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0

강호<sup>江湖</sup>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술져 있다  
 소정<sup>小艇</sup>에 그를 시러 흘리 띄여 더더 두고  
 이 몸이 소일<sup>消日</sup>히움도 역군은<sup>赤君恩</sup>이샀다  
 - 맹사성<sup>孟思誠</sup>추사<sup>秋詞</sup>-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1

강호<sup>江湖</sup>에 겨월이 드니 눈기뢰자하남다  
 샷갓 빗기 썩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칙지 아니히움도 역군은<sup>赤君恩</sup>이샀다  
 - 맹사성<sup>孟思誠</sup>동사<sup>冬詞</sup>-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2

시절가조 강호사시가<sup>江湖四時歌</sup>는 우리나라 사계절의 차이를 시조<sup>時調</sup>로 창작하였다.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사계절을 읊었다.

맹사성 시인의 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 시조<sup>時調</sup>의 사계절 흐름은 ‘미친 흥 → 강파<sup>江波</sup> → 고기마다 슬져 있다 → 눈기뻐자히남다’의 순서를 지닌다. 이 순서는 우리나라 기후의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순서이다. 시인은 춘사<sup>春詞</sup> → 하사<sup>夏詞</sup> → 추사<sup>秋詞</sup> 동사<sup>冬詞</sup>라 이름 하여 작품 근거를 밝힌다. 계절인식에 대한 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 강호사시가<sup>江湖四時歌</sup>이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사계절에 대한 공식 인식이다.

사계절에 대한 이미지 연계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하 <sup>季夏</sup>
방향	동 <sup>木</sup>	남 <sup>火</sup>	서 <sup>金</sup>	북 <sup>水</sup>	중앙 <sup>土</sup>
오행 <sup>陰</sup>	목 <sup>木</sup>	화 <sup>火</sup>	금 <sup>金</sup>	수 <sup>水</sup>	토 <sup>土</sup>
신체 <sup>陰</sup>	간장	심장	폐장	신장	비장
신체 <sup>陽</sup>	쓸개	소장	대장	방광	위
얼굴	눈	혀	코	귀	입
음계	각 <sup>角</sup>	치 <sup>徵</sup>	상 <sup>商</sup>	우 <sup>羽</sup>	궁 <sup>宮</sup>
색깔	청 <sup>靑</sup>	적 <sup>赤</sup>	백 <sup>白</sup>	흑 <sup>黑</sup>	황 <sup>黃</sup>
한글	ㄱ ㅋ	ㄴ ㄷ ㄹ	ㅅ ㅆ ㅈ	ㅇ ㅂ ㅅ	ㅇ ㅎ
소리	아 <sup>牙</sup>	설 <sup>舌</sup>	치 <sup>齒</sup>	후 <sup>喉</sup>	순 <sup>唇</sup>

우리나라 기후에 사계절이 있는 현실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인식 근거원형이 되는 도표이다.

맹사성의 시절가조 강호사시가<sup>江湖四時歌</sup>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순서가 지닌 시인의 춘사<sup>春詞</sup> → 하사<sup>夏詞</sup> → 추사<sup>秋詞</sup> 동사<sup>冬詞</sup>에 음의 흥을 몸 시학<sup>흥문표학설용어</sup>으로 한 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 = 시조<sup>時調</sup>다.

## . 맹사성시인의 봄

맹사성의 사계절 중 봄은 ‘미친 흥’이 나는 계절이다. 시인의 작품 춘사는 ‘목木’의 환경이다. 땅에서 싹들이 흥이나 올라오는 현상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시인이 눈으로 보며 느끼는 봄 나무의 흥이 있다. 시인은 ‘싹’이 나고 나무의 파릇한 기운에 흥이나 금린어<sup>錦鱗魚</sup> | 쏘가리를 강호<sup>江湖</sup>에서 길어 올린다.

아<sup>牙</sup>음 어금닛소리의 겨울을 깨는 봄의 청성<sup>淸聲</sup> 밝은 소리 ㄱ의 금린어<sup>錦鱗魚</sup>로 안주를 삼는다. 탁성<sup>濁聲</sup> ‘흥이 절로난’ 봄의 흥이다. 삼라만상의 용솨음하는 봄 푸르름 때문에 시인은 흥이 절로 난다. 시인의 몸 시학<sup>흥문표학설용어</sup>은 몸이 절로 느끼는 미친 흥<sup>興</sup>이 있다. 시인은 사계절 중 춘사<sup>春詞</sup>라 하였다. 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 시조<sup>時調</sup>이다. 봄과 그의 몸이 하나가 되는 춘사<sup>春詞</sup>이다. 시인과 같이 자연도 흥이나 꽃이 핀다. 몸에서 나는 어금니 아<sup>牙</sup> 소리는 몸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맹사성 시인의 강호사시가 흥이다.

살아난 계절 봄<sup>春음</sup>은 각<sup>角</sup>계절이고 나무<sup>木</sup> 소리이다. 긴 겨울을 지난, 봄의 부르짖음 ㄱ,ㅋ 감탄소리 흥이 나는 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 시조<sup>時調</sup>이다. 맹사성은 사계절중 봄에 탁료계변<sup>濁醪溪邊</sup>에 금린어<sup>錦鱗魚</sup> 안주를 삼으며 흥을 돋군다.

시인이 간 곳은 강호<sup>江湖</sup>이다. 그곳에 봄이 왔기 때문이다. 시인은 ‘봄이 드니’라고 하였다. 봄이 드니 미친 흥<sup>興</sup>이 절로 나 쏘가리를 잡아 안주를 삼은 날의 기록이다. 강호에 봄이 드는 이유로 맹사성은 ‘탁료계변<sup>濁醪溪邊</sup>에 금린어<sup>錦鱗魚</sup>’ 낚아 맛있게 먹는다. 온통 봄 흥의 계절이다. 맹 시인의 멋스러움은 맹사성 시인 봄의 흥을 임금의 은혜 ‘역군은<sup>亦君恩</sup>이샷다’로 한다.

## . 맹사성시인의 여름

맹 시인의 춘사 → 하사<sup>夏詞</sup> → 추사<sup>秋詞</sup> 동사<sup>冬詞</sup>라 이름 한 시절  
 가조<sup>時節歌調</sup> 시조<sup>時調</sup> 중 여름은 ‘강파<sup>江波</sup>’ 바람이 있다. ‘강파<sup>江波</sup>’  
 바람은 여름에만 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바람을 유별난 더위를  
 이기는 시인의증의 맞바람으로 한다. 시어 ‘너름’의 궁<sup>宮가운랫소리-</sup>  
 가족소리<sup>상</sup>商서쪽소리-쇠소리<sup>각</sup>角동쪽소리-대나무소리<sup>치</sup>微남쪽소리-실소리<sup>우</sup>羽북쪽소리-깃소  
 리의<sup>치</sup>微남쪽소리-실소리<sup>로</sup>로 ‘유신<sup>有信</sup> 훈’의 나음과 ‘강파<sup>江波</sup> 늘’의 나음  
 과 ‘이 몸이 서늘희움’의 나음을 함께한 다중 은유 혀가 입천장  
 에 붙는 흥이다. 시인은 양치<sup>陽微-가야금</sup>와 음치<sup>陰微-거문고</sup>에 집중시키  
 면서 여름의 흥을 맞본다. ‘강호<sup>江湖</sup>에 너름’을 시인의 혀<sup>舌</sup>로 날  
 렷하게 움직여 맞바람을 일으킨다. 여름 더움만큼이나 강하게  
 드러나는 시인의 火 열로 치며 더운 여름이지만 오히려 그의 흥  
 을 알아차리는 가야금과 거문고로 그의 몸은 ‘이 몸이 서늘희움’  
 지경까지 간다. 맹사성 시인의 몸 시학<sup>흥문표학설용어</sup>이다.

가야금과 거문고도 흥이나 맹사성 시인의 여름은 물의 양이  
 많은 여름강파<sup>江波</sup>로 여름 더움의 느낌을 오히려 ‘이 몸이 서늘희  
 움’으로 바꾼다. ‘몸’의 은유이다. 이열치열의 맹사성시인 시학은  
 불기운이 가장 강한 한창 더운 여름 하<sup>夏</sup>를 소리 음<sup>音</sup> 치<sup>微</sup>로 날  
 리는 멋진 시인이다. 맹 시인의 멋스러움은 맹사성 여름의 흥을  
 임금의 은혜 ‘역군은<sup>赤君恩</sup> 이샷다’로 한다.

## ③. 맹사성시인의 가을

맹사성 시인은 우리나라 자연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순서  
 를 그의 것으로 하는 춘사<sup>春詞</sup> → 하사<sup>夏詞</sup> → 추사<sup>秋詞</sup> 동사<sup>冬詞</sup> 순서  
 중에서 가을을 ‘고기마다 슬져 잇다’로 한다. 맹사성도 살져 있  
 고 고기도 살져 있는 가을이다. 흥이 날 수 밖에 없다.

가을을 감사 마음 넘침으로 한 시인의 가을은 금의 계절이다. 쇠가 으스러지도록 단련되어 나온 맹시인의 가을은 가을 추 의 음<sup>音</sup>이 상<sup>商</sup>계절이다. 열매가 있어 흥이 나는 계절이다. 고기마다 살져 있는 열매계절이다. 더욱 태평성대이다. 마음의 풍요를 누리는 흥의 계절이다. 임금은혜로 한다.

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술져 잇다  
소정<sup>小艇</sup>에 그물 시러 흘리 띄여 더더 두고  
이 몸이 소일<sup>消日</sup>히움도 역군은<sup>亦君恩</sup>이샷다

금<sup>金</sup> 가을 계절에 맹사성 시인은 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 시조<sup>時調</sup> 시어 ‘술져 잇다’와 ‘소정<sup>小艇</sup>’과 ‘그물 시러’와 ‘소일<sup>消日</sup>’의 ㅅ, ㅈ의 이음<sup>爾音</sup>으로 흥을 일으킨다. 가을 작은 호수 ‘소정<sup>小艇</sup>에 그물 시러 흘리 띄여 더더 두고/ 이 몸이 소일<sup>消日</sup>히움’이다. 계절과 시인의 일치 흥이다. 절로 얻은 마음의 흥이 있는 맹사성시조의 추사<sup>秋詞</sup>이다. 맹 시인의 멋스러움은 맹사성 시인 가을의 흥을 임금의 은혜 ‘역군은<sup>亦君恩</sup>이샷다’로 한다.

#### ④. 맹사성시인의 겨울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이 시인에 의해 춘사<sup>春詞</sup> → 하사<sup>夏詞</sup> → 추사<sup>秋詞</sup> 동사<sup>冬詞</sup> 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중 겨울은 하얀 눈이 많은 ‘눈기피자히남다’의 계절이다.

맹사성 시인의 겨울나기는 겨울을 이기는 흥이 있다.

강호<sup>江湖</sup>에 겨울이 드니 눈기피자히남다  
삿갓 빗기 썩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히움도 역군은<sup>亦君恩</sup>이샷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계절 이김의 의지력이 있다. 추운 겨울 몸에서 넘쳐나는 흥으로서이다. 맹시인의 몸 시학은 가난한 시인의 겨울이다. 오히려 ‘이 몸이 칩지 아니히움’의 계절이다. 그 깊이는 겨울 물 이미지이다. 꿈꿈 얼어붙은 그 얼음 그 밑바닥을 흐르는 청정한 물줄기가 있어 시인을 겨울 나는 힘으로 일어서게 한다. 봄을 기다리는 시인의 흥겨운 물줄기가 있다. 시인의 몸 시학 음가는 〇, ㅎ음가 ‘강호<sup>江湖</sup>에 겨울’에서의 ㅎ, 〇음가가 있다. ‘눈기뵈자히’에서 ㅎ과 ‘누역으로 오슬 삼아’에서 〇음가를 건져 올리는 은유시학의 중심 흥이 있어서이다. 맹 시인의 멋스러움은 맹사성 시인 겨울의 흥을 임금의 은혜 ‘역군은<sup>赤君恩</sup>이샷다’로 한다.

우리나라의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순서는 진정한 봄이 다시 봄이 오는 계절이 있어 춥지 않다. 시인에 의해 춘사<sup>春詞</sup> → 하사<sup>夏詞</sup> → 추사<sup>秋詞</sup> 동사<sup>冬詞</sup>로 춤추며 탄생하는 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 시조<sup>時調</sup>중 겨울에 ‘샷샷 빗기 썩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사는 일상은 추운 겨울과 누더기 가난한 옷의 삶에도 추위를 못 느끼는 ‘이 몸이 칩지 아니히움’의 흥이다. 맹시인의 몸 시학<sup>흥문표학실용어</sup>이다. 오히려 동<sup>冬</sup>의 음<sup>音</sup> 우조<sup>羽調</sup>로 우아한 삶을 산 진실 ‘이 몸이 칩지 아니히움도 역군은<sup>赤君恩</sup>이샷다’이기 때문이다.

‘이 몸이 칩지 아니히움도 역군은<sup>赤君恩</sup>이샷다’ 문구는 맹사성 시인의 ①봄 → ②여름 → ③가을 → ④겨울 시조작품 모두 종장에서 똑 같이 네 번이나 반복된다. ‘칩지 아니히움’의 ‘아니’는 사실 우리 일상에서 늘 쓰는 강한 부정이다.

‘아니’라는 강한 부정은 라틴어 한글사전<sup>1)</sup>에 기록된 부정의미

1) -한글사전 *Dictionarium Latino-Coreanum*, 카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우리 언어에서는 부정의 의미로 단어 앞에 ‘안’을 붙여 접두사로 사용하면서 뒷말을 강하게 부정한다. 히브리어나 헬리어 그리고 영어에서도 강한 부정 의미가 모두 같이 제시된다.

וְאִישׁ לֹא יִשְׁעוּךָ בְּעֵת צָרָתְךָ וְאִישׁ לֹא יִשְׁעוּךָ בְּעֵת צָרָתְךָ  
 and no man shall save thee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 신 28:28

한국어나 라틴어나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도 모두 강한 부정이다. 맹사성 시인의 겨울 동사 ‘이 몸이 칩지 아니희옵도 역군은 亦君恩이샅다’에서의 ‘아니’와 동일하다. 혹독한 겨울추위가 춥게 느껴지지 아니하는 것은 시인의 흥으로 하여서이다.

### ⑤. 맹사성시인의 진짜 마음 소리

강호사시가 江湖四時歌에 4회 반복 ‘역군은 亦君恩이샅다’는 사계절을 견디는 흥이 임금과 백성 특히 그 중에서 맹사성과의 관계이다. 서로 모시는 관계이다. 우리말 ‘모시어’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에서도 ‘모시어’는 모세의 이름이다. 하나님을 잘 모시었다.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서로 모심관계이다. 이는 자식과 부모사이에서 서로 모시어 사는 관계일 때 흥이 나는 삶이다.

맹시인의 봄 ①미친 흥 → 여름 ②강파 江波 → 가을 ③고기마다 슬져 있다 → 겨울 ④눈기뢰자히남다’의 시절가조 時節歌調 시조 時調안에는 천지간 만물을 낳게 하는 근원을 알린 물<sup>水</sup>이 있다. 맹시인은 강과 호수와 개울 근처 이 물 가까이의 삶을 이어갔다. 고맙고 감사하고 즐거운 시인 몸에서 나는 흥의 물이다. 이 몸의 구송요소 물을 마음열정 불<sup>火</sup>로 뜨겁게 태우는 시인 심상이다. 물

입혀진 몸을 불의 마음 목구멍소리로 다스려 시인의 소리 관을 쓰면서 마음 소리가 몸 속 깊이에서 흥으로 건져 올려 목구멍을 지나 혀가 주체가 시조작품으로 읊어진다.

사계절을 중심으로 읊어진 맹시인의 시 이미지는 늦은 여름<sup>季</sup>의 마음 증양 가슴 깊이 우러나는 흥의 소리이다. 몸의 증양을 훑어 내리며 배꼽 아래 기해혈<sup>氣海血</sup>에서 솟아나는 강호사시기<sup>江湖四時歌</sup>이다. 시조가 탄생한 수직선의 그 증양에 임금과 백성간의 서로 모심 관계가 성립된다. 때문에 추운겨울도 춥지 않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한 여름에도 시원함을 느끼며 가을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흥의 소리는 어금니로 씹어 올려 혀와 이로 정리한 다음 입술로 드러내는 입술소리 토<sup>土</sup>의 증양소리 흥이다. 마음소리가 이제 입술소리로 나왔어 읊는 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의 시조<sup>時調</sup>이다. 따라서 맹사성의 시조매력은 가운데소리 곧 증양소리인바 맹사성 시인 계절은 행복한 삶을 사는 흥이다. 마음의 소리이다. 계절로는 늦여름<sup>季夏</sup>이고 음<sup>音</sup>으로는 궁<sup>宮</sup>인 마음 소리 흥을 읊은 시조작품이다.

시인이 사계절 시에서 매 1편씩의 계절별 시조에 임금의 태평성대정책을 은유한다. 그 표시 ‘역군은<sup>亦君恩</sup>이샷다’이다. 이 느끼는 몸 시학은 시조작품 종장에서 봄 → 여름 → 가을 → 겨울 모두를 ‘역군은<sup>亦君恩</sup>이샷다’로 마무리 네 편의 시조작품 전체를 끝마무리로 한다.

‘역군은<sup>亦君恩</sup>이샷다’는 이 생의 삶의 가치를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대상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토록 아름다운 삶의 방식은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모든 은혜를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엔가로 돌리는 이 겸손의 미덕은 한국을 지탱하는 원류가 된다.

## (2). 특성 ‘우리’ 리듬의 매력

우리 문학 시조작품에는 늘 ‘우리’ 의미가 존재한다. 맹시인의 네 편 모두 한 편 한 편 끝마무리를 ‘역군은 이삿다’로 하는 임금의 선정<sup>善政</sup> 노출은 백성과 임금사이가 되는 시조작품의 특징 ‘우리’시학이 있다. 이 시학은 그대로 천부경 예를 들 수 있다. 천부경은 숫자 1을 11회 반복한다. 이 시학 고도의 은유는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시적 은유 두 발로 일어서!가 내재되어 있다. 힘을 내 일어서! 이 권면은 고도의 시 은유기법 숨은 숫자 11 두발로 기호화했다. 우리 가족과 동료와 이웃과 나라와 국가를 향하여 권고하고 함께하는 우리 역사의 오랜 유지 비밀이다. 시에 내재한 돕고 돕는 흥이다.

우리 역군은 <sup>亦君恩</sup> 이삿다			
구분	시절	서정	감사
봄	강호 봄	미친 흥	역군은 <sup>亦君恩</sup> 이삿다
여름	강파 江波	서늘희움	역군은 <sup>亦君恩</sup> 이삿다
가을	고기마다 슬져있다	그물시러 소일 <sup>消日</sup>	역군은 <sup>亦君恩</sup> 이삿다
겨울	눈기뻐자히남다	누역으로 오를 삼아	역군은 <sup>亦君恩</sup> 이삿다

‘우리’ 개념이 존재하는 맹사성 시인의 시절가조<sup>亦君時節歌調</sup> 시조<sup>時調</sup>는 사시사철 시절마다를 시에서 살려내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임금은혜 오로지 “역군은<sup>亦君恩</sup>이삿다”로 한다. 국민 서정시 맹사성의 시조<sup>時調</sup>는 기후의 변화에 따른 봄의 아름다운 꽃들과 여름의 바다와 강과 호수와 가을의 살진 고기잡이와 겨울의 눈이 많이 오는 풍경을 읊으며 우리나라의 기후에 따른 서정 그대로가 임금은혜 오로지 “역군은<sup>亦君恩</sup>이삿다”에 있다 한다. 시인가끼리의 정서 그대로 계절에 맞는 흥이 일어나 즐기는 시조

임금은혜 오로지 “역군은 이샀다”이다.

이 ‘우리’개념이 포함되는 은유 시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때로도 적용되는 ‘우리’ 표현이다.

6 사람이 ①우리를 학대하여 ②우리를 괴롭게 하며 ③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7 ④우리가 ⑤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⑥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⑦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8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⑧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신 26:6-9

- ① 애굽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신 26:6)
- ② 우리를 괴롭게 하며(신 26:6)
- ③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신 26:6)
- ④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신 26:7)
- ⑤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신 26:7)
- ⑥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신 26:7)
- ⑦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신 26:8)

-번역 7회: 신 26:6-9

우리 시어는 무려 7회나 번역되었다. 그러나 실제 원문에서는 이보다 많은 13회 사용이다.

① 6 רעו ② תנו רים ③ רם ④ תנו ⑤ לינו רה פשה  
 7 עק אל-יהוה הי ⑥ תנו מע יהוה ⑦ את- לנו רא  
 ⑧ את- ינו ⑨ את- לנו ⑩ את- צנו  
 ⑪ 8 אנו יהוה רים ד קה ו פ נטוה ו רא ול  
 ו אתות ו תם  
 ⑫ 9 אנו אל-부-קום זה ⑬ תן- לנו את- הארץ הזאת רץ בת  
 לב ו בש

- 13회 반복:신 26:6-9

단어 끝 어미\* ㄴ 라 발음되며 ‘우리’ 의미이다.

- ㄴ CW.VHIMZP Kai *ékakōsan* And=evil entreated ( )학대하며(신 26:6)
- ② ㄴ O.CXP *ήμάς* us 우리를(신 26:6)
- ③ ㄴ불 CW.VPIMZP.CXP *καί ἐταπεινωσά* and afflicted us 우리를 괴롭게 하여  
(신 26:6)
- ④ ㄴ CW.VQIMZP and laid 시킴으로(신 26:6)
- ⑤ ㄴ P.CXP *ήμιν* upon us 우리에게(신 26:6)
- ⑥ ㄴ NMP.CXP *τόν πατερίων ήέμών* our fathers 우리조상의(신 26:7)
- ⑦ ㄴ -ㄴ NMS.CXP *τής ψωνής ήμών* our=voice 우리 음성울(신 26:7)
- ⑧ ㄴ -ㄴ NMS.CXP *τήν ταπεινωσίήν ήμών* on our affliction 우리의 고통(신 26:7)
- ⑨ ㄴ -ㄴ NMS.CXP *τόν μόκθον ήμών* our labour 우리의 신고와(신 26:7)
- ⑩ ㄴ -ㄴ NMS.CXP *τόν θλιμμον ήμών* our oppression (우리에게)압제를(신 26:7)
- ⑪ ㄴ CW.VHIMZS.CXP *καί εξήγαγεν ήμάς* And brought us forth 우리  
를 인도하여 내시고(신 26:8)
- ⑫ ㄴ CW.VHIMZS.CXP *καί εξήγαγεν ήμάς* And he hath brought us (우  
리를) 인도하사(신 26:9) 우리들이 인도함을 받았고
- ⑬ ㄴ-ㄴ CW.VQIMZS-P.CXP *καί έδούκεν- ήμίτ* and hath given(우리로서  
여금 나타나도록 해)주셨나이디(신 26:9)

- ㄴ(우리): 신 26:6~9

단어 끝 어미\* ㄴ ‘우리’ 13회 반복은 ‘우리’ 복수<sup>複數</sup>이다. 백성 우리 단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처하는 애굽에의 학대 ㄴ CW.VHIMZP ( )학대하며 신 26:6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조명된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우리’이다.

다음은 복수표시이다.

- ㄴ -ㄴ NMS.CXP(남성단수명사. 1인칭 복수) 우리 음성울(신 26:7)
- ㄴ -ㄴ NMS.CXP(남성단수명사. 1인칭 복수) 우리의 고통과(신 26:7)
- ㄴ -ㄴ NMS.CXP(남성단수명사. 1인칭 복수) 우리의 신고와(신 26:7)
- ㄴ -ㄴ NMS.CXP(남성단수명사. 1인칭 복수) (우리에게)압제를(신 26:7)

이스라엘 백성 다수<sup>CXP: 우리 문법 표시</sup> ‘우리’를 절대자가 그의 백성으

인지하고 애급에서 구하여 낸 ‘우리’공동체이다.

- 10708 O.CXP(목적어. 1인칭 복수) 우리를(신 26:6)
- 10709 P.CXP 우리에게(신 26:6)
- 10710 CW.VPIMZP.CXP 우리를 괴롭게 하여(신 26:6)
- 10711 NMP.CXP(남성복수명사. 1인칭 복수) 우리조상의(신 26:7)
- 10712 CW.VQIMZP 시키므로(신 26:6)
- 10713 CW.VQIMZS-P.CXP(우리로 나타나도록 해주셨나이다(신 26:9)
- 10714 CW.VHIMZS.CXP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신 26:8)
- 10715 CW.VHIMZS.CXP us (우리를) 인도하사(신 26:9)

공동체 ‘우리’는 Q 큐알 동사 <sup>능동태</sup> · H 히필 동사 <sup>사역형 능동태</sup> · P 피엘 동사 <sup>강의형 능동태</sup>의 구분 문법 근거에 의하여 우리에게 행복이 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문법에서 은유되어 있다.

성경은 신앙인들은 우리 몸의 귀중함을 보호하시는 분의 인도 하심 그 은혜를 받는 무리들 ‘우리 백성’ 복수 CXP: us로 표시 우리 몸을 중요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한다.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은혜라 하고 또 일반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 준 분의 은혜라고 한다. 또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부모님의 은혜라고 한다. 맹사성 시인의 시조 작품 종장 맹사성의 강호사시에서는 ‘역군은 <sup>亦君恩</sup>이샷다’의 임금 은혜가 있다.

## 2). 아름다운 시조의 텍스트다움 리듬

## (1). 쉬기 리듬

시절가조 를 줄여서 된 시조<sup>時調</sup>는 시인의 숨쉬기 리듬이 있다. 그 만큼 자연스럽다.

한국시조 문예미학은 시조 3장 6구 12절<sup>이태극학설</sup>을 가진다.

3장= 초장 · 중장 · 종장

6구= 초장 ① 1구= 3 · 4 ② 2구= 3 · 4

중장 ③ 3구= 3 · 4 ④ 4구= 3 · 4

종장 ⑤ 5구= 3 · 5 ⑥ 6구= 4 · 3

12음절 초장 ① 1음절 ② 2음절 ③ 3음절 ④ 4음절

중장 ⑤ 5음절 ⑥ 6음절 ⑦ 7음절 ⑧ 8음절

종장 ⑨ 9음절 ⑩ 10음절 ⑪ 11음절 ⑫ 12 음절

한국시조 문예미학은 시조 3장 6구 12절을 가지는 것은 전통적인 학설이다. 이 3장에 대한 학설은 가장 기본적인 세계학설의 전통성으로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天地人을 말한다.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한국시조에 있는 초장과 중장과 종장의 기본의미구조를 이루는 전통성이다. 각 장 마다 2개의 구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하여 시조작품은 6구를 만든다. 이 6구의 당위성은 사람의 몸이 6마디로 되어 있음과 같다. 이러한 섭리는 그리고 더 세분화되어 12마디가 된다. 시조문학작품 또한 동일성을 이룬다. 한국의 모든 한 묶음의 단위로 그 안에 형성과정이 12개 혹은 12마디로 이루어졌음과 동일하다.

문예미학은 숨쉬기 리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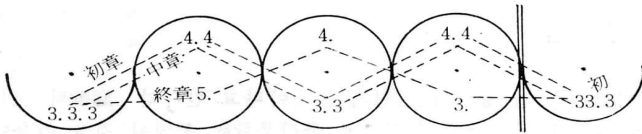
(2). 12 숨쉬기 리듬

일 년 은 12달을 가진다. 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를 줄여서 된 시조<sup>時調</sup>는 3장 6구 12음절을 가진다. 이 12의 숫자마방진은 우리에게 는 오랜 그리고 우리의 12환국 『진서<sup>晉書</sup>』 「사이전<sup>四夷傳</sup>」 에 비리국<sup>卑離國</sup> · 양운국<sup>養雲國</sup> · 완막한국<sup>宛莫汗國</sup> · 구다천국<sup>句茶川國</sup> · 일군국<sup>一群國</sup> · 우루국<sup>虞婁國</sup> · 객현한국<sup>客賢汗國</sup> · 구모맥국<sup>句牟額國</sup> · 육구여국<sup>育句餘國</sup> · 사납아국<sup>斯納阿國</sup> · 선비이국<sup>鮮卑爾國</sup> · 수밀이국<sup>須密爾國</sup> 12환국이 있다. 남북 5 만리 동서 2 만리<sup>1)</sup> 12환국이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의 최초국으로 알려진 슈메르국은 스밀이국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12환국에서 넘어갔음을 알린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루국 또한 증거자료가 된다.

시조작품=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시조<sup>時調</sup>작품은 12리듬을 가진다.

3 · 4 · 3 · 4  
 중장 3 · 4 · 3 · 4  
 종장 3 · 5 · 4 · 3



마방진 12음절은 시조작품=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시조<sup>時調</sup> 텍스트에서 서로 음절 응결성을 지닌다. 자수율 응결성이다. 초장의 3구와 중장의 3구와 종장의 3구의 주변적 공간이 긴밀히 열린 공간을

1) 강상원, 「사라진(沈沒) 무제국- 東夷族에 母國」 (서울: 朝鮮世宗太學院 · 2013), 172.

음수율<sup>1)</sup> 3·4 반복리듬이다. 의미리듬과 일치한다.

시조작품=시절가조 =시조<sup>時調</sup> 우리 시조작품 총괄 리듬 3·4·3·4·3·4·3·4·3·4·3·5·4·3 흐름은 3 리듬으로 시작하여 3리듬으로 끝난다. 처음 시작 리듬 3자와 끝의 리듬 3자가 같다. 숨쉬기 시작하고 끝나는 숨쉬기가 아름다운 리듬 3의 시적 숫자이다. 시조의 텍스트다움 리듬<sup>2)</sup> 정론 응집성의 의미는 리듬의 정형 율은 3·4로 시작하여 4·3으로 끝나는 응집성 시조리듬의 특별한 숨쉬기 규칙이 있다. 이 정의는 총 합수 43자수를 이룬 정형 리듬이다.

시조작품의 정형 율 3·4로 시작하여 4·3으로 끝나며 시조 한편이 되게 하는 응집성 43의 오묘한 숨쉬기 일평생 리듬 은유이다. 43마방진은 초장 3·4·3·4의 14자와 중장 3·4·3·4의 14자와 종장 장 3·5·4·3의 15자를 합한 43자이다. 이 묘한 마방진 리듬의 아름다운 시조문학작품의 숨쉬기 이어감을 3으로 시작 3·4·3·4·3·4·3·4·3·5·4·3의 끝 4·3 이어감이다. 숨쉬기 리듬의 마방진리듬이다.

시조한편의 작품은 총 43자이다. 이 리듬은 애급에서 종살이 한 해가 430년과 의미 확대되어 진다. 종살이 종결 해가 430년 만이다. 종결이미지가 43에 은유되어 있다. 세상의 신비는 언제나 숨겨져 있다. 여기에 더한 시조작품 진가는 한 사람의생애도 그 끝 리듬을 43으로 한다는 아름다운 의미유추가 인생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이치가 숨어 있다. 열심히 실제 일하고 아름답게 끝나는 의미리듬이다.

시조작품에는 작품 끝 구 3자 생략기법이 숨어 있다.

1) 이영지, 「시조의 심리리듬」(서울: 창조문화사, 2022), 창조문화 봄호.

2) 시조의 텍스트다움 리듬은 일반적 문장, 혹은 시문장과는 분리된다.

## (3). !

시조작품이 전하는 숨 쉬며 일어서라는 12음절을 만드는 시조 문예미학 초장·중장·종장 기록은 시인<sup>1)</sup>의 생애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 한 사람의 경험 기록이다. 일생의 유한성의 공간에 자리 잡는 시인의 시조 작품<sup>2)</sup> 가치는 일어서라! 격려 전달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절대자가 허락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크고 위대한 가치를 시조작품 한 편이 12음절중 끝의 한 음절 3을 숨기면서 11음절을 노출한 경우는 12음절 중 마지막 한 음절 3자 곧 종장 마지막 끝 절 ‘하여라’ 등의 대화체를 생략하는 일이다. 한 생애는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살아있는 절망하는 일을 당해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시적 은유 몸 시학 두 발로 일어서! ! 힘을 내 일어서라!!

천부경이 전하는 숫자기록이 있다. 천부경은 1에서 10까지 언급된다. 그 중 1이 11회 반복이다. 숨은 시적 메시지다. 1의 11회 반복 메시지 위로·격려·희망 언어기호 일어서라 두 발로! 시조문학작품의 위로·격려·희망 언어기호 시조 3장 6구 12절 중 마지막 한 절을 하노라 류 생략 12음절이 11음절로 노출된다. 끝 음절을 숨기는 이유 그것은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임금님 앞에서 ‘하여라’류 대화체가 창 되지 않는 예, 시의 고도 은유이다. 마지막 한 음절은 허사리듬이다. 창<sup>ㅁ</sup>되지 않는다. 천부경의 숨은 메시지 1의 11반복리듬이 전하는 메시지 일어나라! 두 발로 굳게 직립하라! 일어서라! 용기위로·격려·희망 언어기호 천부경 1을 11회 반복 리듬 일어서라! 메시지가 시조작품 속에 내재한다.

1) 이영지, 『이상시학 연구』(서울: 창조문학, 2017), 302~324.

2) Wall·R 지음: 이영현 옮김 『수리언어학』(서울: 한신문화사·1987)·40.

일생의 한계성이 주는 어렵고 고달프고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의 일을 시조작품은 4 숫자의미리듬 수리 리듬으로 하면서도 슬프도록 아름다움 이미지 3 숫자의미리듬의 아름다운 서정수치가 더 강하게 하여 서정시 시조텍스트가 되게 한다.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생인지를 시라는 이미지로 알리는 매혹적인 시조 리듬반복이다. 그러나 너무 드러내지 아니하려 자연스레 숨기는 일생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생 유한성을 겸허히 받아드리는 은유 3자로 마감하는 숨김의 멋이다. 시조작품은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이고 이 구체성으로 수리로운유한 시조이론의 매력이다.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도 아름답게 그리고 끝맺음도 아름답게 끝내기 은유이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이 3의 리듬은 일상의 주부들이 가정에서 자연의 요법으로 식혜나 술을 만들 때에도 3시간을 경과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더구나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도 3시간을 그 타임아웃으로 한다. 세계 내에 순서를 정할때에도 3등까지가 그 한계점으로 한다. 한국에는 유일하게 말이 가지는 아름다운 리듬이 이 3자를 기본으로 하여 앞이나 뒤에 하나 덜하거나 더하여 그 아름다운 리듬을 이룬다. 히브리어도 기본자수가 3자로 하며 이에 덧붙이는 작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과거완료시제를 가진다.

사람도 남녀와 그 사이에 자녀를 가지는 3각구도가 이루어진다. 이 세상의 공간 자체도 3각구도로서 최초의 공간설정이 이루어진다. 시조작품은 가장 이 3자로서 그 끝맺음을 아름답게 서정화한다.

## (4). 6 리듬

시조작품이 가지는 숨쉬기 메시지는 시절가조 시조<sup>時調</sup>작품은 숫자의 마방진 3의 리듬이 6회 반복 되면서 찾아진다. 시조작품은 물 은유시학을 가진다. 그것은 사람의 몸이 물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천부경의 가장 중심수가 물 이미지 6이다. 사람의 몸 이미지 시학을 가진다. 사람 몸이 물 70%이상이다. 시조작품 한 편이 6구를 가진다. 이 메시지는 천부경의 글자 수가 81인데 가장 중앙수가 6이다. 6=물 이미지다. 가장 중심 수 6으로 하는 진리는 물의 결정체 6각형을 비롯하여 눈의 형상 6각형 진리에 따라 그대로 수용되고 또 자생된 이미지 6이다. 물은 6각형이다. 삼라만상에 포함되어 있는 물 모두 6각형이다. 사람의 마디도 6으로 나누어진다. 한 시간 60분을 비롯하여 1분 60초 그리고 관의 높이가 6촌, 왕의 수레를 끄는 6말, 나라도  $6 \times 6 = 36$ 부이다. 그리고 원의 각도  $360^\circ$ 는  $6 \times 60^\circ$ 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낸 인간의 신비이다.

시조작품의 음수율 3의 6회 반복 의미구조는 사람의 신체 6등분을 비롯하여 과학의 기초가 되는 하루의 시간 1시간=60분 $\times$ 60초로 규정하거나 태양의 지름=6 $\times$ 144000로 측정하는 일이나 지구의 둘레=6 $\times$ 6 $\times$ 6 $\times$ 100의 로알마일로 하는 일까지 그리고 하나의 원이 되는 6 $\times$ 6의  $360^\circ$  까지 수많은 6의 곱수로 접근되는 보편성이다. 그만큼 시조 한 편의 은유는 보편성을 지닌 한 편의 시조작품=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시조<sup>時調</sup> 하나의 완성체이다. 한 사람의 생애를 시조 한 편에 실는 마방진이다.

## 3). 3음절로 숨쉬기 시작하고 3음절로 끝내는 아름다운 리듬

## (1). 아름다운 인생일생

시조작품의 수리 응결 집합은 3글자로 시작하고 3글자로 끝난다. 이 특이한 한글 즉 우리말 그리고 우리 민족정서 시조텍스트다움은 숨쉬기의 결정적 메가급 서정성이다. 시인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하는 매력수 즐거움은 이 리듬을 이어가는 을 안정된 설명으로 이어가는 4로 하여 3으로 시작하고 4로 이어가는 리듬이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 3 → 4 → 3 → 4 → 3 → 4 → 3 → 4 → 3 → 5 → 4 → 3은 그때그때 느낀 인생 숨쉬기리듬이다. 3으로 시작하여 3으로 끝난다.

한 일생은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게 하는 시조텍스트다움은 초장과 중장이 두 번 같은 리듬을 반복한다. 우리 인생 일상 리듬이다. 시인의 한 생애가 그리고 그의 삶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서정시인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움 3의 서정 시작 3 → 4 → 3 → 4 → 3 → 4 → 3 → 4 → 3 → 5 → 4 → 3의 아름다운 서정 3 글자로 끝나는 리듬! 이토록 아름다운 시조작품의 은유기법에 유한성 곧 인생기간의 흐름이 시조 한 편으로 정서 화 된다. 시인의 위대함이 있게 되는 시조작품에서의 인간의 아름다움은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의 서정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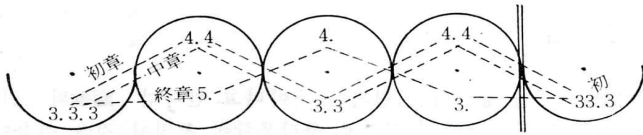
이 아름다운 슬픔은 사람이 완전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칼빈의 성경신학이 보여주는 이론이 된다. 시조작품 3 → 4 → 3 → 4 → 3 → 4 → 3 → 4 → 3 → 5 → 4 → 3리듬에서이다. 3으로 끝나는 기호는 종결메시지로서의 인간 아름다움의 여운이다. 심지어는 여운 내지 생략되는 마지막 공백 허사 리듬의 마지막 3자 리듬이다.

(2).                    끝 묘미

종장의 끝구가 생략되는 예의 마무리 허사 리듬 옛 시조 어법 ‘하노라’류는 이세보 시조 450여수<sup>1)</sup>가 종장의 마지막 3자 생략, 임금님 앞 · 어른님 앞에서 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시인에 의해 탄생하는 한 편의 시조작품은 신의 시가 아니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인간 의미리듬이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인생의 감성의 시조작품=시절가조<sup>時節歌調</sup>=시조<sup>時調</sup> 우리 시조작품 리듬이다. 이 아름다운 인생리듬 가치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을 드러내는 황홀하고 멋진 생애의 행복을 드러내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보여주는 ‘역군은<sup>亦君恩</sup>이샷다’이다. 임금에게 공을 진하는 리듬이다. 이러한 둥글둥글한 아름다움은 무한대로 그 영원성을 향하여 가는 리듬이다. 한 사람의 생애는 유한성이지만 마디를 지으면서 다음대로 이어질 수 있는 리듬이다.

다음은 시조작품의 묘미 리듬이다.



시조 텍스트다음 리듬의 시조 그 때 그 때의 감성을 실어 전한 리듬이다. 우리 고유의 사상 천지인<sup>天地人</sup>의 한국의 3재 문학<sup>三才文學</sup> 대 명제에 부합한다. 언제나 4로 시작하지 않고 3으로 시작하는 이 서정성메시지는 천상의 시인이 많은 나라를 만드는 서정의 국민성을 의미한다.

1) 진동혁 역, 『이세보시조집』 서울: 정음사 · 1984.

## (3). 코리안 그 보석의 사람과 보석의 나라

절대자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10 이미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이미지가 우리나라 이름 코리아와 우리 한국인 코리언 명칭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절대의 의미를 신에게만 가게 하는 우리민족의 신앙심의 원류를 찾을 수 있다. 한국 명칭의 또 다른 이름 한국=코리아! 한국인=코리언! 천손의 의미에서다.

우리 민족을 구이족이라 한다. 10에서 하나 모자라는 구이족이다. 이와 관련 九日 용어에서 찾을 수 있다. 九日=九人<sup>책</sup> 회석, 강상원 학설=구리인 코리언!

구이족<sup>九夷族</sup>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9는 됐어라고 히브리어로 발음한다. 우리말 ‘이만하면 됐어’의 ‘됐어’는 숫자 9의 히브리어 발음이다. 히브리어 ‘테와아’ 우리말 ‘됐어’이다. 이 이유는 우리말은 그 옛날 전 세계의 반을 다스리며 살았던 우리 역사를 가진데서 비롯된 역사기록 증거이다.

\* 9=됐어=테와아=טוּו 1): 우리는 무엇이 거의 되었을 때 ‘다 되었어’ 한다. 수 9=됐어=테와아=טוּו 테와아는 10 곧 완전<sup>2)</sup>에 다다른 데서 ‘됐어’이다. 수 9=아홉은 글자 10에 왔다는 뜻이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다다랐다’이다. 인간이 신은 아니고 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리듬이다. 인간이 신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림을 보는 일이다<sup>2)</sup>. 인간의 자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신력까지는 못 미치지만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는 신에 가까운 사람 우리 코리아 인 표시가 있다.<sup>3)</sup>

성서는 열왕기 하 25장 8절에서 9를 테사아라고 발음한다. 사람은 십자가 사건까지는 못 가지만 신에 가까울 수 있다.

1) טוּו(테사아 · 9=구, 왕하 25:8).

2) 이영지, 『물의 신학과 물의 시학』 (서울: 창조문학회, 2019), 903.

3) Op.cit., 899.



마리아가 십자가 사건 이후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찾고자 할 때의 ‘주’=쿠리온이 있다.

‘ 가로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sup>KURION</sup> 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 20:13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sup>KURION</sup> 쿠리온을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 20:18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sup>KURION</sup> 쿠리온을 보고 기뻐하더라

-요 20:20

예시된 세 곳 모두 주=κυριον=쿠리온 우리나라 사람 코리안의 의미유추가 일어난다. 그것은 강상원 박사는 코리안=고향=꾸리야=꿀이야라 하였다. 가장 좋은 맛 의미이다.

ἡμεῖς 여호와와 코리아와의 관련은 우리나라 이름 코리아는 강상원 박사에게 의하면 이 코리아 이름이 가장 맛있는 꿀이야!에서 왔다는 것이다. 그대로 읽으면 ‘꾸리아’이다. 가장 좋은 먹을 것 꿀이야! 가장 좋은 의미는 주인 혹은 주님 그리고 주 꾸리우 κυριου<sup>마 3:3</sup>에서 찾아진다. 사라진 무제국 책을 펴낸 강상원 박사는 사라진 동이족 언어가 히말리야 가장 동쪽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은 실담문자<sup>悉曇文字</sup> 중천축<sup>中天竺</sup> Siddam language: Kuru~rian= Kuliya= Ariyan race=Korean 구려<sup>句麗</sup> 고려<sup>高麗</sup> 구루=Kuru<sup>句彌</sup> Kuliya<sup>1)</sup>라는 것이다. 성경에 주님 뜻 “쿠리에 쿠리에 λέ γών μοι κύριε κύριε 레곤 모 쿠리에 쿠리에<sup>마 7:21</sup>” 쿠리에 쿠리에 κύριε κύριε 레곤 모 쿠리에 쿠리에<sup>마 7:22</sup>)가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은 지금의 부여이름의 근원이 되는 고려 원시어소 크다 가장 좋다 의미다.

1) 강상원 · 「사라진(沈沒) 무제국~東夷族에 母國」(서울: 朝鮮世宗大學院 · 2013). · 82.

2) 마태 17: 12, 15: λέγων κύριε, 등 등. 727 λόγου(신 28:69)

구약 신명기 28장에서는 여호와와 똑 같은 표현 헬라이어 쿠리에 · 쿠리오스 41회<sup>1)</sup>가 있다.

구이족 이라 한다. 강상원과 채희석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이=九日과 같고 이 구이는=구리=아홉 사람=九人=코리아=한국 사람이다. 구이=九日<sup>구일</sup>의 일=日=태양=인=人=태양 같은 존재<sup>채희석학설</sup>이다. 이 근거는 이 아홉구<sup>九</sup>의 글자의미 히브리어 ‘됐어’에서 찾아진다. 천손민족<sup>天孫民族</sup>은 하나님 자체는 아니다. 천손민족 구이족은 한국 사람이다. 가장 좋은 경지 신의 경지까지 간 사람이다. 코리아는 신의 경지까지 간 사람이 사는 나라 구이족 대한민국이다.

본 연구자가 연구를 거듭할수록 구약성경 매 장 마다 나오는 여호와=יהוה를 쿠리우 · 쿠리우스 · 쿠리라 헬라이어 번역인데 성경은 여호와를 헬라이어로 쿠리에, 쿠리우스, 쿠리우라 번역한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주=쿠리에=쿠리오스로 한다. 이 신구약 동일하게 번역된 구약의 여호와는 영어 Lord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주로 표현한다.

다음 그 예이다.

λέγει οὖν ὁ μαθητὴς ἐκεῖνος ὃν ἠγάπα ὁ Ἰησοῦς τῷ Πέτρῳ, Ὁ κυριός ἐστιν, Σίμων οὖν Πέτρος, ἀκούσας ὅτι ὁ κυριός(Lord) ἐστιν, τὸν ἐπενδύτην διεξώσατο, ἦν γάρ γυνός, καὶ ἔβαλεν αὐτόν εἰς τὴν θάλασσαν(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ὁ κυριός(Lord) N. NMS 쿠리오스)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κυριός

1) יהוה:κύριος(쿠리오스· 신 28:1, 8, 8, 11, 12, 13, 21, 22, 24, 25, 27, 28, 35, , 37, 48, 49, 52, 53, 59, 61, 63, 63, 64, 65, 68, 69), κύριος(쿠리호스· 신 28:20, 36), κυρίου(쿠리우· 신 28:1, 2, 9, 10, 15, 45, 62; 신 29:9), κυρίῳ(쿠리우· 신 28:47) κύριον(쿠리온· 신 28:58),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쿠리오스 호 테오스 수· 신 28:7, 9, 11).

(Lord) N. NMS )라 하는 말을 듣고 걸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 요 21:7

λέγει αὐτούς ὁ Ἰησοῦς, Δεῦτε ἀροτήσατε οὐδεὶς δὲ ἐτόλμα τῶν μαθητῶν ἐξετάσαι αὐτόν, Σὺ τίς εἶ; εἰδότες ὅτι ὁ μαθητῶν ἐξετάσαι αὐτόν, Σὺ τίς εἶ; εἰδότες ὅτι ὁ κυριός(Lord) ἐστίν(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ὁ κυριός(Lord) N. NMS 쿠리오스)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 요 21:12

Ὅτε οὖν ἤρισθησαν λέγει τῷ Σίμωνι Πέτρῳ ὁ Ἰησοῦς, Σίμων Ἰωάννου, ἀγαπᾷς με πλέοντούτων, λέγειαὐτῷ, Ναί, κυριε(Lord), σὺ διδως ...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κύριε N. VMS 쿠리에) 그러하되다 ...

- 요 21:15에서

λέγει αὐτῷ παλιν δεῦτερον Σίμων Ἰωάννου, ἀγαπᾷς με; Ναί, κυριε, οἶδας ... (또 두 번째 가라사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κύριε N. VMS 쿠리에) 그러하되다 ...

- 요 21:16에서

λέγει αὐτῷ τὸ τρίτον, Σίμων Ἰωάννου, φιλεῖς με; ἐλυπήθη Πέτρος ὅτι εἶπεν αὐτῷ τὸ τρίτον, φιλεῖς με;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Κύριε(Lord), πάντα αὐτῷ σὺ οἶδας,...(세 번째 가라사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Κύριε(Lord) N. VMS 쿠리에)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

- 요 21:17에서

Ἐπιστραφεὶς ὁ Πέτρος βλέπει τὸν μαθητὴν ὃν ἠγάπα ὁ Ἰησοῦς ἀκολουθούντα, ὃς καὶ ἀνέπεσεν ἐν τῷ δειπνῶ ἐπὶ τὸ στήθος αὐτοῦ καὶ ε

ἴπεν, Κύριε, τίς ἐστὶν ὁ παραδιδούς σε:( 돌이켜 예수의 사랑 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 하여 주여(Kύριε(Lord) N. VMS 쿠리에)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까 묻 던 자러라

- 요 21:20

τούτον οὖν ἰδὼν ὁ Πέτρος λέγει τῷ Ἰησοῦ, Κύριε(Lord), οὗτος δέ τ ἰ:(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Ἰησοῦ, Κύριε N. VMS 쿠리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이까

- 요 21:21에서

글자 소문자 주여=κύριε <sup>요 21:15<sup>1</sup></sup>=쿠리에와 첫문 자가 대문자로 시작되는 주여=Κύριε <sup>크리스도스 요 21:17, 21<sup>2</sup></sup> 쿠리 에이다. 여전히 영어 Lord로 번역된다. 첫자가 대문자로 시작 X ριστός <sup>크리스도스 요 20:31</sup>이다. 대문자 X로 시작되는 크리스도=Xρισ οτός <sup>크리스도스 요 20:31</sup>다. 절대자는 X로 시작된다.

어마어마하게 큰 분 위대한 아주 큰 분 표시 처음글자 X자로 시작 이 기호는 가야문명권 가림토문자 X <sup>히대동학설용어<sup>3</sup></sup>가 있다. 성경의 크리스톤 Χριστόν <sup>눅 20:41</sup> X자 첫 시작 글자이다. 기호와 글자사이의 관계는 우리민족을 천손민족이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늘로부터 보호받는 천손민족이다.

지금의 한글 문자 형성 과정이 다양한 토기 및 바위 증거자료 에서 찾아 <sup>히대동</sup>진 예 즉 함안 박물관이나 토기부호 가야시대문자 =양산토기문자에서의 발견은 그 자료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기

- 
- 1) 헬라이어 한글 영어 원어사전, 장보웅 편저, 『The NIV LOGOS BIBLE 분해대조 로고스 성경』(서울: 개정판 도서출판 로고스 · 1992), 494
  - 2) 헬라이어 한글 영어 원어사전, 장보웅 편저, 『The NIV LOGOS BIBLE 분해대조 로고스 성경』(서울: 개정판 도서출판 로고스 · 1992), 495
  - 3) 마로니에 방송 ‘한사모’ 고조선 문자 환국대동어문문자부분 히대동 강연, 한뿌리 사랑 세계모임 제 17차 역사포럼 20160525 마로니에 방송.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마크 테극마크의 시초가 되는 동심원의 눈이 4개 곧 눈 네 개 가진 자 X가 나를 사방팔방으로 보호하는 천손민족의 신앙사상이 보관되어 있다. 이에서 ㄱ과 ㄴ과 ㄷ과 ㄹ글자가 생겨나는 근거가 이 X에 있다. 크다는 의미이다.

우리대한민국의 상징 하늘로 승천하는 회오리바람표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표시, 그리고 팔랑개비 표시 이미지 시발점이 가림토 문자라는 것과 고조선 이전에도 있었던 우리 문자가 김해박물관 도자기에서 증명된다. 우리 문자추측 기호 가림토 문자 X는 우리민족을 하늘의 절대자가 보호하는 증거표시다. 지금도 태권도에서 자기 방어표시로 손으로 가슴을 보호하며 막는 표시이다. 가림토 문자는 전국 각 중앙박물관에 토기 글자 X가 있다. 지금 성경에서의 그리스<sup>Χριστός</sup>의 첫 글자 X는 가장 크신 분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표시의 과학증명이다. 이와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X 거리는 지리적 근거로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의 확실한 증거를 언어가 알리고 있다.

이른바 가림토 문자가 전해주는, 가림 해 주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천손민족 그 북두칠성의 동심원 근원 X를 돌리면 회전문자 빛살무늬<sup>강원도 고성군 문암리 선사유적 우실하 교수 학설</sup>가 된다. 우리 조상들의 옥기문명시대 증거 학설이다. 가야지역 바위 반구대와 울산 박물관에서의 우리 문자<sup>현대동언어연구자</sup>에서이다. 우리는 지금도 언어 大자표시: 한강대교=漢江大橋 대한민국=大韓民國 등등 온통 나라 전체가 이 크다 선호도를 가진다. 하늘 하나님을 닮은 존재 천손민족이 쓰는 한글 원형의 첫 글자 X는 절대자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마크이다. 그 증거 자료는 익산 박물관에 남아 있다.

첫 글자를 X자로 표시하는 예수스 그리스투스=Ἰησοῦς Χριστός<sup>1)</sup>가 있다. 고기 두 마리를 앞에 두고 축사하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 이 크리스도 첫 글자 X<sup>눅 20:41</sup> 예수스 크리스토스=Ἰησοῦς Χριστός<sup>2)</sup>는 우리가 그 분으로부터 영생과 관련되어짐을 대문자 X로 보호되어진다는 의미를 크리스토스=Χριστός<sup>눅 20:41</sup>로 알린다. 구약의 장장마다에는 여호와 언어 번역 쿠리오스·쿠리오는 절대 크기 X로 표시하지 않고 소문자 k<sup>3)</sup>로 한다. 연구의 여지를 남겨둔다.

우리나라 이름 코리아 Korea 그리고 고구려=高句麗 고려=高句麗 구려=句麗도 첫 자 시작이 대문자 X자가 아닌 K다. 따라서 예수스 크리스토스=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Χριστός와는 구분된다. 첫 자 X자표시는 크리스토스=Χριστός 일 때 만이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크다는 의미가 두 번 있어서이다.

히브리어 ‘둘=쌍수’ 비밀이 알려 지는 예이다. 크리스토스 이름 안에 십자가 의미최명<sup>4)</sup>이 있음으로써 십자가 의미가 든 크리스도스=Χριστός의 ‘도’가 둘의 헬라이어 듀오δύο에서 우리말 ‘두δύο=둘δύο’임으로 크리스도스 이름 안에는 여호와와 그 아들 예수가 함께 든 이름이다.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이서 만든 십

1) 김명현공학박사, ‘하나님의 이름, 야훼(YHWH) 손을 보라 못을 보라 (153셀터교회 with)

2) 김명현공학박사, ‘하나님의 이름, 야훼(YHWH) 손을 보라 못을 보라 (153셀터교회 with)

3) קַיִרְיֹוֹ(라흐바·여호와를 위하여·κυρίου(쿠리우) 창 3:8, 8, 출 15:3, 16:7, 26, 15:26: 신 28:1, 2, 9, 10, 15, 45, 47, 62, 29:9, 28, 30:10; 마 3:3, קַיִרְיֹוֹ(야훼·여호와, κύριος(쿠리우) 출 15:26: 신 28:1, 2, 9, 10, 15, 45, 62, 29:9 קַיִרְיֹוֹ(야훼·여호와, κύριος(쿠리오스) 레:2:8, 13, 16, 신 28:1, 8, 8, 11, 12, 13, 21, 22, 24, 25, 27, 28, 35, 37, 48, 49, 52, 53, 59, 61, 63, 63, 64, 65, 68, 69, 29:19, 30:1, 3, 3, 4, 5, 6, 7, 9, 16, 20) 신 28:1, 8, 8, 11, 12, 13, 21, 22, 24, 25, 27, 28, 35, , 37, 48, 49, 52, 53, 59, 61, 63, 63, 64, 65, 68, 69, 29:19, 30:1, 3, 3, 4, 5, 6, 7, 9, 16, 20)

4)최명애, 『알기쉬운성경, 히브리어 기초와 그 의미』 (서울: 콤팩출판사, 2005), 92.

자가이어서이다. 둘이 만든 십자가 사건이다.

성령의 근거가 있다. 여호와=יהוה에서이다. ה=ח 숨 쉽 + י=ב, 못 + 호=ח 숨 쉽 + 예 י=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호와=יהוה 글자에 있는 י=베 글자는 못<sup>1)</sup>의 의미다. 이 י=베와 י=요드 관계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알린다. יהוה=여호와 안에 예수십자가 사건이 들어 있다.

예수가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시며 얻은 이름표가 있다. ‘예수아 하나사렉 베멜레크 하예후딤=ישוּעַ בְּנֵי יְהוּדָא בְּרֵשִׁית מַלְכֵּנוּ יְהוֹשֻׁעַ בְּנֵי יְהוּדָא יְהוֹשֻׁעַ בְּנֵי יְהוּדָא יְהוֹשֻׁעַ בְּנֵי יְהוּדָא’이다. 이 때 성서문의 단어의 앞 글자만 모으면 여호와=יהוה다. 여호와와 예수의 관계이다.

흔적 יהוה=여호와 글자에 있는 못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힌 분의 손! 그리고 유대 왕 나사렛 예수 곧 ‘예수아 하나사렉 베멜레크 하예후딤=ישוּעַ בְּנֵי יְהוּדָא בְּרֵשִׁית מַלְכֵּנוּ יְהוֹשֻׁעַ בְּנֵי יְהוּדָא יְהוֹשֻׁעַ בְּנֵי יְהוּדָא יְהוֹשֻׁעַ בְּנֵי יְהוּדָ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의 이름표가 알려주는 이름표에서 앞 글자만 모아진 여호와=יהוה! 글자가 되는 현상은 못 박힌 예수님의 손으로 하여 여호와와 예수의 관계를 극명하게 밝힌다.<sup>2)</sup>

한국인의 코리아라는 이름은 절대 의미는 아니다. 우리 민족의 나라 코리아는 신이 허락한 자리 아홉 민족의 원조를 가진 나라이다. 다만 가장 좋은 나라 신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다. 그 증거는 히브리어 그만하면 ‘됐어=구 =구이’에서 찾아진다. 9빛깔을 가진 민족 구이족! 저 바이칼 호수 그 찬란한 바이칼=빛깔<sup>3)</sup>호수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물 깊이에 천연보석이 많이 있는 곳에 사는 천손민족! 천연보석의 존재 한국인은 신이 허락한 고귀한 인생 빛깔의 숨은 보석 시조 작품을 쓴다.

1) 최병애, 『알기 쉬운 성서 히브리어 기초와 그 의미』 (서울: 쿤란출판사, 2006).

2) 이영지, 『성서문예향기시학』 (서울: 창조문학사, 2022), 43. 근간

3) 우리들은 지금도 빛깔이라는 말을 쓴다. cf.[S] vi -kala: 빛 쌀, the sun setting, 자료: 강상원 · 『사라진(沈沒) 무제국 東夷族에 母國』 (서울: 朝鮮世宗大學院 · 2013) · 194.

좋아하는 자수리듬자리가 있다. 14대 14대 14대 합하여 된 42대의 크리스도 자리<sup>1:1~17</sup>이다. 이 14대 숫자 마방진은 놀랍게도 시조 초장 3 · 4 · 3 · 4 합한 수 14와 같다. 그리고 중장 3 · 4 · 3 · 4 합한 14이다. 성경 신학 족보는 14대 14대 14대로 이어 크리스도 총 42대 자리<sup>마태복음 1:1~17</sup>이다. 예수님 자리는 41대로 이어지는 자리에 있다. 예수님 자리는 크리스도자리보다 한 자리 작다. 그만큼 예수의 자리는 크리스도 앞 자리이다.

시조한편의 작품은 총 43자이다. 그렇다면 크리스도 자리보다 하나 많은 자리이다. 그러나 여기에 시조작품의 진가가 숨어 있다. 작품 끝 구 생략기법이 숨어 있다. 어른 및 하나님 앞 혹은 임금님 앞에서 ‘하노라’라고 할 수 없기에 라는 시조창 작법이 들어 있다. 한국말의 겸손 기법이다. 겸손 혹은 예의 기법으로 시조한편 자수 총 43에서 마지막 3자 ‘하노라’류 낭송 내지 창하지 않는다. 그러면 43자에서 3자를 빼 40자수가 된다. 예수님 족보 자리 41자리와 비교하면 1이 모자란다.

이렇듯 시조작품의 진가는 겸손이다. 이 엄청난 진리는 인간의 수는 신의 수보다 한 수 작은데 있다. 절대 신 수 10에서 1이 모자라는 구이=九日 족의 자리 또한 그렇거지나 총 시조한편이 43자가 되는 기법에서 참으로 숨겨진 3자가 들어 겸손기법으로 이 3자를 빼면 40자가 되어 참으로 겸손하기에 아름다운 시조작품이 있다.

신이 허락한 경지 9의 경지까지는 갈 수 있는 구이족 천손민족의 행복이 있다. 성경 진리 메시지는 이 9 글자를 우리 ‘됐어 = 9 = 됐다 = 테쇠아 = ㄷᄇ<sup>테쇠아<sub>1</sub></sup>)로 한다. 신이 허락된 천손민족

---

1) ㄷᄇ(테쇠아 · 9=구, 왕하 25:8).



맹사성 시가 보여주는 ‘역군은 이샷다’에 감사하는 마음 백성의 자리가 있다. 삶의 고마움을 전하는 방법은 임금님 자리 넘보기가 아니다. 보다는 임금님이 보호하는 은혜에 있는 맹사성 시조작품이 알리는 윗어른 나아가서는 임금에게 그리고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를 낭송이나 창에서 창하거나 낭송하지 않는 겸손이 시조작품 끝구의 생략기법이다. 천손민족다운 표현 표시는 이세보 시조 450수<sup>1)</sup>에서 밝혔다. 이세보시조 450수가 전해지는데 모두 이 시조작품 끝구 3자를 생략한다.

시조작품의 가치가 알려지는 가장 짧은 시구가 알릴 수 있는 인생최대의 진가 그것은 남을 섬기고 나를 낮추는 이 한국의 멋이 있어서이다. 그러면서도 알릴 수 있는 작가의 멧세지는 다 전해지는 시조작품의 진가는 이 시조 작품 한 편 속에 시인의 멋이 들어나는 서정성이 주가 되면서 그 의미리듬을 3자로 하는데 있다.

그러면서도 작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4자로 하는 시조작품의 묘미는 결코 균형을 잃지 않는 이 리듬 3·4리듬이 계속 되다가 절대 절명의 3·4리듬을 통해 반전의 3·5·4·3리듬을 만드는데 있다.

---

1) 진동혁 역, 『이세보시조집』 서울: 정음사 · 1984.

### 3. 꿈의 합일 푸른 의미리듬

#### 1). 합일

##### (1). 12°            그 푸르름

시조작품의 초장과 중장과 종장이 있는 이유는 푸른 합일을 이루는 의의 연쇄 망 음절 응결성의 3합이 있어서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푸르름 메시지 시조이다.

낙지 오늘이여 즐거운자 今日이야  
즐거운 오늘이 행여 험허아니 저물세라  
每日에 오늘굿트면 무슴시름 이시라

-남창    청구영언<sup>南丘永言</sup> 9

시조시인이 보여주는 오늘은 365일 1년이 살아생전 계속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 곧 한국에서의 4계절 12달의 연속이 이 푸르름을 희망하여서이다.

사람에게는 감각이 있다. 그 감각 어제와 다른 그 느낌의 차이가 오는 온도가 12°이다. 이 차이는 바로 봄 온도보다 12° 차이일 때 여름, 여름온도보다 12°차이일 때 가을, 이 가을온도보다 12°차이일 때 봄이 되는 이 마력은 신이 내려주는 은혜의 조화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봄 → 여름 → 가을 → 겨울 계절이 한국에 있다. 북 받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시조 때의 넘어가는 찰나 길이 12°<sup>1)</sup>가 있다. 계절 넘어가기 시간 12°이다. 봄에서 → 여름 → 여름에서 가을 → 가을에서 → 겨울 온도 12° 차이로 달라

1) 서우석, 『시와 리듬』 (문학과 지성: 1985), 11.

봄을 느끼고 여름을 느끼고 가을을 느끼고 겨울을 느끼는 신비로운 인간의 감각 마방진은 성경에서 12제자 · 12민족 · 12아들이 있다. 세계 공통 인식의 법으로는 1년의 12달이 있다. 한국에서는 여인의 12폭 치마 · 12구비 · 물건 한 다발의 개수 12개 등이다. 이 경이로움은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12°도 차이 →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12° 차이 →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12° →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12°차이의 그 신의 한수 12°가 신의 계약이다.

신이 허락한 구이족이 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시조작품이 있는 나라이다. 이 시조작품은 초장과 중장과 종장을 가지는데 그의 미가 겸손이 주어진데서 오는 신의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을 시조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처음부터 결론을 강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미미하게 혹은 보일 듯 말 듯 매력을 남기는데 있다. 이 여운의 아름다움은 우리 속담에 3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으로 셋이 모이면 강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남긴다. 한 사람은 약하지만, 나무 한 가지는 약하지만, 셋이 모이면 강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풀들도 가까이 가 보면 아주 미미한 푸른 색채를 띠지만 합하여서 아름다운 들판을 만드는 것과 같다. 같은 예라도 하나하나 띄어 놓으면 별 의미가 없지만 같은 예가 계속 반복될 경우 뚜렷한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다. 하나하나 같은 예를 모아 아름다운 생각을 모아 볼 수 있다.

(2). → 약<sup>弱</sup> → 강<sup>強</sup> → 약<sup>弱</sup>

시조작품 읽기 낭독은 우리말의 흐름 그대로다. 약<sup>弱</sup> → 약<sup>弱</sup> → 강<sup>強</sup> → 약<sup>弱</sup>이다. 우리말의 흐름은 셋째 리듬에서 강<sup>強</sup>을 이룬다. 속담이 있다. ‘셋째 딸은 묻지도 않고 신부로 데려 간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 문화와 긴밀하다. 우리말의 자생성이 지니는 약<sup>弱</sup> → 약<sup>弱</sup> → 강<sup>強</sup> → 약<sup>弱</sup> 리듬이다. 우리말 말버릇이다. 시조리듬흐름 약<sup>弱</sup> → 약<sup>弱</sup> → 강<sup>強</sup> → 약<sup>弱</sup>이다. 우리말 응결성의 푸른 요인이다. 우리 노래 가락 흐름 약<sup>弱</sup> → 약<sup>弱</sup> → 강<sup>強</sup> → 약<sup>弱</sup> 흐름이다. 셋째 번의 어휘에 강박이 있고 이어 약으로 끝나는 리듬이다. 시조작품의 푸른 요인 판정기준 자생성 시조 텍스트다움 리듬이다.

사람의 일생도 아주 어린 아기가 아주 약하지만 차츰 자라면서 청년의 강한 몸만들기를 할 수 있다. 하늘나라를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음도 하나하나 기쁜 마음을 모아 내 마음의 기쁜 마음의 일상을 보내기로 일생이 행복해 질 수 있다. 평생 배우기를 계속하면 훌륭한 지적 보유자가 되는 것이다. 좋은 행동을 하기 시작 할 때는 약한 질량이 되지만 모아 지자 선인이 되고 성인이 된다.

별 의미 없던 우연한 만남이나 매일 만났던 사람이 어느 날 부터 나의 첫사랑으로 그리고 첫 은인으로 자리 잡는다. 좋은 작품 쓰기도 마찬가지이다. 수수하기에 이를 데 없는 하찮은 물건이나 일에서 자신의 좋은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유별난 사건이 아닌 일상에서 작품을 건져 올리는 귀한 작업은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약<sup>弱</sup> → 약<sup>弱</sup> → 강<sup>強</sup> → 약<sup>弱</sup> 시조다움 리듬이다.

(3). 번째 리듬에서의 강박 리듬과 주제 의미리듬

이 불갓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쇼칠 아히는 여태야니 니러느냐  
재너머 스래깃밧츨 언제 갈려 흐느냐

- 남구만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203

쁜늑물 데운물이 고기도곤 마시이세  
초옥<sup>草屋</sup> 조븐줄이 괴더옥 내 分이라  
다만당 님그린타스로 시름계워 흐노라

-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59

내막음 버혀내어 더들 밍글고져  
구만리장천<sup>九萬里長天</sup>에 번드시 걸려이서  
고온님 계신고되 가 비최여나 보리라

-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69

반중 조홍감이 고투도 보이느다  
유자 아니라도 품업즉 흐다마는  
품어가 반기리어슬식 글로 설워 흐느이다

- 박인로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96

장검<sup>長劍</sup>을 싸혀들고 백두산<sup>白頭山</sup>에 올라보니  
대명<sup>大明</sup> 천지<sup>天地</sup>에 초옥<sup>草屋</sup>이 잠겨세라  
언제나 남북풍진<sup>南北風塵</sup>을 헤쳐볼고 흐노라

- 남이<sup>南怡</sup> 청구영언 106

청초<sup>靑草</sup>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엇는다  
홍안<sup>紅顔</sup>을 어디두고 백골<sup>白骨</sup>만 누엇나이  
잔<sup>讎</sup>자바 권<sup>讒</sup>허리업스니 그를 슬허흐노라

- 백호<sup>白湖</sup> 청구영언 107

어저 내일이야 그릴줄을 모로드나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구티야  
보내고 그리는 정<sup>情</sup>은 나도 몰라 흐노라

청산리<sup>靑山裏</sup> 벽계수<sup>碧溪水</sup>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sup>一到</sup> 창해<sup>蒼海</sup> 흐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명월<sup>明月</sup>이 만공산<sup>滿空山</sup> 흐니 수여간들 엇더리

- 황진이<sup>黃眞伊</sup> 청구영언 286

동지<sup>冬至</sup>入달 지나긴 밤을 한허리를 버혀내여  
 춘풍<sup>春風</sup>짓 니불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날밤이여든 구뵤구뵤 퍼리라

- 황진이<sup>黃眞伊</sup>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287

무작위 위 시조들은 세 번째 리듬에 강 박이 있다. 초장 셋째 자리 ‘노고지리’<sup>103-이하 ‘청구영언’ 생략</sup> ‘고기도곤’(59) ‘더들’(69) ‘고와도’(96) ‘백두산’(106) ‘자는다’(107) ‘그털줄을’(6) ‘수이감을’(286) ‘한허리를’(287)에 강세가 오면서 초장 끝 음절에 ‘약<sup>弱</sup>’이 있다.

중장에서 ‘여태아니’(203) ‘ (59) ‘번드시’(69) ‘품업 즉’(96) ‘초옥<sup>草屋</sup>이’(106) ‘백골<sup>白骨</sup>만’(107) ‘가라마는’(6) ‘도라오기’(286) ‘서리서리’(287)에 강세가 오면서 중장 끝 음절에 ‘약<sup>弱</sup>’이 있다.

중장에서 셋째박 ‘언제 갈려’(203) ‘시름계워’(59) ‘비취여나’(69) ‘글로 설워’(96) ‘헤쳐볼고’(106) ‘그를 슬허’(107) ‘나도 몰라’(6) ‘수여간들’(286) ‘구뵤구뵤’(287)에서 강세가 온다. 시조작품의 가장 중요한 3자가 시조종장 첫구인데도 종장 3구에서 그 리듬의 강<sup>強</sup>이 오면서 종장 끝 음절에는 ‘약<sup>弱</sup>’이 있다.

4계절의 우리 기후에서 드러나는 가을열매 거두어들이의 중요성을 알리는 가을의 의미리듬이 각 장의 셋째 박에 강<sup>強</sup>이 오는 약<sup>弱</sup> → 약<sup>弱</sup> → 강<sup>強</sup> → 약<sup>弱</sup>의 우리말 흐름리듬과 같다.

## (4). 주제와의 관련성

에 월백<sup>月伯</sup> 호고 은한<sup>銀漢</sup>이 삼경인제  
 일지<sup>一枝</sup> 춘심<sup>春心</sup>을 자규<sup>子規</sup>야 아라미는  
 다정<sup>多情</sup>도 병<sup>病</sup>이낭 호여 즈 못 드러 호노라

- 이조년<sup>李兆年</sup>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

위 시조의 텍스트다움 리듬은 일지 와 춘심<sup>春心</sup>을 각기의 또 한 박으로 읽는 방법이다. 또 한 방법은 일지춘심<sup>一枝春心</sup>을 한 박으로 하고 쉼 다음 세 번째 박에서 ‘자규야<sup>子規야</sup>’ 읽는 방법이다. 역시 3박에서 강박이 존재한다. 짧은 음절수로 인한 단조로움을 피하는 낭독의 새로운 일탈리듬이되 역시 3박에서 그 묘미가 살아난다. 첫째의 ‘자규야<sup>子規야</sup>’를 두드러지게 하는 아름다움 하얀 밤을 세우는 ‘자규야<sup>子規야</sup>’가 알고 있는 시조의 주제이다.

시조작품들은 초장 중장 종장이 각기 네 박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셋째 박에 소리의 강박이 있음과 동시에 주제 의미리듬도 이 셋째 박에서 강조된다. 우리나라에서 셋째 딸은 물어 보지도 말고 데려 간다는 속담과 일치한 그만큼 문학작품 시조장르에서도 각 초장 중장 종장 중의 각기 셋째의 자리가 그 비중무게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사계절 중에서도 결과물이 나타나는 가을결실의 강한 의미다. 그리고 시조한편에서도 시조의 서열관계의 구조에서 초장과 중장이 일반일상을 나열하고 종장에서 더욱더 그 의미가 고조됨과 같다. 시조작품은 서열관계의 의의 연쇄 망 결속구조 리듬이다. 약<sup>弱</sup> → 약<sup>弱</sup> → 강<sup>強</sup> → 약<sup>弱</sup>의 형태적 동일성의 리듬은 영국 에이레지방 속요 리머릭=Limeric에서도 발견된다. 특이하게 에이레 지방 속요 리머릭이 약<sup>弱</sup> → 약<sup>弱</sup> → 강<sup>強</sup> → 약<sup>弱</sup> 혹은 단<sup>短</sup>단 → 단<sup>短</sup> → 장<sup>長</sup> → 단<sup>短</sup> 리듬1)이다.

## (5). 몸부림이 있는 시조 텍스트다움 리듬

우리나라 시조 특히 운문 분야의 특징은 정형시가 지나는 구성원리인 4대법 대우 1)리듬은 언대<sup>言對</sup>리듬 곧 추상적인 언어를 대<sup>對</sup>로 한 리듬과 사대<sup>事對</sup>리듬이 있다.

① 언대<sup>言對</sup>리듬

에 배웁고 암혈<sup>巖穴</sup>에 눈 비 맞아  
구름 낀 벗 뉘를 쥘 적이 업건마는  
서산에 히지다흐니 눈물겨워 흐노라

- 조식<sup>曹植</sup>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912)

‘三冬에 배웁고’는 표층구조가 추운겨울 삼동에 배움을 입고도 견뎌야 하는 한 백성의 모습이다. 암혈에 눈비 맞을 지라도 그리고 벗 뉘를 쥘 적도 없지만은 곧 임금 은혜를 받은 일이 없지만 임금의 돌아가심을 섭섭해 하는 백성의 모습이다. 이 구체적인 당시일기형식의 백성의 삶은 보라색 리듬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에 버금가는 이순신의 시조가 있다.

한산섬 들뜰근 밤의 수루에 혼자안자  
큰 칼 녀페 츄고 기픈 시름 흐는적의  
어디서 일성호가는 늬의 애틀 굿느니

- 이순신<sup>李舜臣</sup>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11

이순신의 “한산섬...” 시조는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는 암시성 예시로서 초장의 한산섬의 양성모음과 중장의 큰 칼 음성모음을

1) 줄고, ‘시조와 리머틱의 비교’ 『새국어교육』 33(1981), 242참조.

1) 유협, 최신희 옮김, 『문심주용』 (현암사, 1975), 134~147.

2) 金應鼎 또는 조식(金永鎬 편저, 『靑丘永言』 解義(三綱문화사)1994 참조), 진동혁 교수는 김응정의 작품으로 봄).



언대 로 한다. 초장의 ‘들뜰근 밤의’의 보름달과 중장의 ‘녀媿 츄고’의 이순신 장군 몸에 찬 칼의 의미심장한 응결성을 언대<sup>言對</sup>리듬으로 한다. 초장의 ‘수루에’와 중장의 ‘시름 흐는적의’와 ‘기쁜 시름’을 가진 언대<sup>言對</sup>리듬으로 한다. 초장 4구의 ‘혼자 안자’의 자신과 중장의 ‘과 ‘들뜰근 밤의’의 ‘수루’와 ‘들뜰근 밤의’ ‘달 흐는적의와 ‘혼자안자’와 ‘흐는적의’의 물리적 육체와 마음의 시름 두 개를 가진 언대<sup>言對</sup>리듬으로 하여 의의 연쇄 망에서 시조의 가치기준을 높인다.

## ② 사대<sup>事對</sup> 리듬

사대<sup>事對</sup>리듬은 사람의 사적 병렬 리듬이다.

엇더터니 둥그더나 모지더나  
길더나 저리더나 발일너나 자힐너나  
사랑이 긴 줄은 모로되 꺾간되를 몰라라

- 이명한 병가 191

수박갓치 두렷한 님아 참외가튼 말씀마소  
가지가지 갓치 하시는 말이 말마다 윈말이로다  
구시월 씨동아갓치 속속인 말 마르시소  
(subak-kotch duryot-han nima chamwi-gotun malsum maso  
gajigaji hasinyun-mari malmada youin-mari-roda  
kusiwoi psidonga kotchi soksokgggin mal maru siso)

- Anomous

사랑의 일상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면서 초장과 중장에서 사랑이 어떠하냐고 묻는 리듬이다. 중장에서 사랑에 취한 대답이 전개된다. 사랑이 긴 줄은 모르되 끝 간 데를 모른다고 하는 대화 리듬이다. 이 리듬은 중장을 초장과 동등하게 하여 압운을 이루는 양성모음이 그 진가를 드러낸다. 이러한 병렬리듬의 무한대

밝은 양성모음의 사랑 달콤함 사대 리듬이다.

동음이되 의미가 따라오는 아름다운 우리 주위의 가치와 수박과 참외가 등장하면서 이 의미가 지나는 의미전달을 한다. 이러한 아름다운 리듬은 우리말이 지닌 특색 반복의 묘미를 살려서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정서를 대변한다. 반복리듬묘미는 초장이 중장에서 반복되고 다시 종장에서 이를 정리한 대화체이다. 단순한 수박과 참외와 가치가 지닌 각기의 이미지를 잘 살린 지은이 미상이지만 일반성의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 공감대는 시조 전편이 a 음의 맑은 모음리듬이 모이면서 밝은 마음의 정서이다. 중장에서 i와 a 가 서로 어울려 번갈아 반복된다. 비음이 겹하여 반복되면서 달콤한 사랑의 대상에게 조근조근 속삭이는 이 시조는 사랑이 어떠한가로 묻고 있는 중장에서 사랑에 대한 대답으로 사랑이 긴 줄은 모르되 끝 간 데를 모른다고 하는 대화리듬이다. 비교구인 초장과 중장을 동등하게 하여 비음과 a소리의 압운이 되는 음절군으로 놓고 직유로 압운이 되게 하는 대화체이다. 이 병렬대화리듬에 대한 상징은 유로서 bak han cham ma의 맑은 음가는 양성모음만이 모이면서 이 시조를 더욱 맑은 미래지향성 사랑리듬으로 한다. 중장에서도 i와 a의 서로 교체되는 관계를 은유리듬으로 하면서 1구와 3구에서 다시 반복리듬이 된다. 이러한 리듬의 유음화는 4구에서 비음과 순음의 유포니를 구체화한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재미의 쾌락 효용성이 되어 이야기의 순응리듬을 도운다.

이 리듬반복은 애교와 사랑을 전제로 한 리듬으로 어우러지며 사랑의 특성을 드러낸다. 수박, 오이, 참외 등을 등장시켜 님이 수박같이 두렷한 사대리듬이 된다. 시의 외연으로 하는 님이 나의 속을 태우는 존재이지만 님이 수박 같아서 겉은 시퍼렇게 속

태우는 님이지만 속은 나를 사랑하는 빨간 속을 내포한다. 수박이 둥근 것처럼 그 내포로 나의 님은 수박같이 둥글고 뚜렷한 절대 다음가는 존재이다. 더구나 존경어 말씀과 하시는 등의 경어를 사용하여 한국어가 가지는 존칭리듬이다.

대화리듬은 시조의 텍스트다음 리듬이다.

맵다 울고 쓰르라미 쓰다 우니  
산채를 맵다가 박주를 쓰다는가  
우리는 산야에 무쳐스니 맵고 쓴 줄 몰르라

- 무명씨

이 시조에서도 [m] 과 [a]음이 어울려 음절조화를 이룸같이 의미리듬에서도 이 세상 부귀영화에 연연하지 않으며 산수에 적응하는 삶의 대화리듬이다.

삶의 대화리듬은 시조창에서 초장이 지닌 상풍효월 로 높이 오름으로 시작되면서 이를 종장에서 장강유수<sup>長江流水</sup> 리듬으로 망망대해를 낮고 조용히 지나가며 읊어 진다. 이러함은 드디어 종장 곧 셋째 번에서 완여반석<sup>完如盤石</sup>과 같이 안전한 반석에 안착하는 리듬으로 하여 그 의미가 종장에 도달 높은 공간과 낮은 공간 그리고 드디어는 안전함에 다다른 마음을 드러내 시조창이 지니는 마음의 평화로움 리듬이 종장리듬에 있다.

### ③. 정대<sup>正對</sup>리듬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은 님 여회옳고  
내 마음을 들 뉘 엮서 냇가에 안자이다  
저물도 내안갯도다 우리밤길 네늦다

- 왕방연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7

단종을 영월 오지에 두고 돌아서는 신하의 마음은 실제 거리

떨어지면 질수록 왕에 대한 사랑이 정대 리듬이 된다.

초장 1구 ‘천만리’와 중장의 1구의 ‘므음을’ 정대<sup>正對</sup>리듬 거리에 두는 왕방연은 초장의 2구에서 같은 ‘머나먼 길에’와 있지만 떠나온 마음을 중장의 2구를 통해 ‘들 데 업서’의 안타까움으로 한다. 초장에서 3구에서 단종을 ‘고은님’이라 하면서 중장의 3구에 왕방연이 ‘넷가에’ 앉아 생각한 리듬이다. 초장 4구 ‘여회읍고’의 거리와 중장 4구의 ‘안자이다’와 종장의 ‘저 물도’가 ‘내안갓도다’라고 하는 의의 연쇄 망 리듬이다. 따라서 3구에서 물의 주제를 단종과 왕방연과 같이 ‘우리 밤길’을 ‘네놏다’의 ‘우리 밤길’은 시조 종장 끝구와 관련 시조의 텍스트다움 정대 리듬이다.

세상은 돌고 돌아 잘못된 역사도 그리고 깊숙이 숨겨진 비밀도 드러나는 세상이다. 이 진리는 더구나 왕방연시조작품으로 하여 그 당시의 참담한 일화가 알려진다.

하나님과 예수의 아주 크고 거대한 두 분에 대한 진리가 전해진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진리를 전한다.

감추인 것이 들어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sup>눅 12: 2</sup>

아무리 오래된 그리고 깊은 산속 숨겨진 비밀이라 할지라도 그 진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정대의 리듬은 사실과 하늘과 땅이 반대일지라도 진리를 알리기 위한 작업일 수 있다. 가장 귀한 것이 드러나기 위한 전초작업이기도 하다. 그 진가는 밝음이 드러나는 일이다.

2). 밝음 지향 리듬

가지는 기본 요소 특히 시조작품이 가지는 아름다운 리듬은 우리국민 정서가 밝음을 지향하는 것을 드러내 준다.

비온 후 에 석류<sup>石榴</sup>꽃이 다 피었다  
 부용당반<sup>芙蓉塘畔</sup>에 수정렴<sup>水晶簾</sup>을 거더두고  
 늘 향<sup>向</sup>한 기쁜 시름을 못내 프러 흐느뇨  
 - 신흘<sup>申歙</sup>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33

ㄱ ㅅ ㅈ ㅊ ㅋ ㆁ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ㅌ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ㅌ ㅂ ㅅ ㅈ ㅊ ㅋ ㆁ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모음군의 응결성이 지닌 어젯밤에 비 온 뒤로 석류꽃이 피었다. 현재의 가치 모음 리듬군 종장의 초구인 ‘늘 향한’의 ‘ㅌㅂㅅ’ 음가 밝은 모음과 종장 끝구 ‘흐느뇨’의 ‘ㅌㅂㅅ’가 표층구조 리듬이 깊은 시름을 해결한다. 이 상황은 시조의 종장의 ‘늘 향한 기쁜시름을 못내 프러 흐느뇨’의 주제 곧 깊은 시름의 해결 방법이다. 비온 뒤에 일어나는 일의 동일시이다. 이처럼 형식과 내용이 같이 의미되어지는 시름의 절규 ‘깊은 시름을’ 이 ‘ㅣㅡㅣㅡ’을 해결한다. 그리고 초장과 끝구의 ‘...다’의 ‘ㅌ’나 중장 끝 구의 ‘...고’의 ‘ㄱ’와 그리고 종장의 ‘...뇨’의 ‘...ㅂ’ 모두 양성 모음 군이 만드는 결과이다. 이 시조는 밝은 미래를 알리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 역사가 지탱하는 힘의 리듬이다.

노래사민 사름 시름도 하도할샤  
 닐러 다 못닐러 불러 너 푸듯든가  
 진실로 풀릴 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44

ㄱ ㅅ ㅈ ㅊ ㅋ ㆁ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ㅏ ㅏㅣㅏ ㅏㅏ ㅏㅏㅏ  
 ㅣㅣㅏ ㅏㅣㅏㅣㅏㅡ ㅏㅏ ㅏㅣ ㅏㅣㅏ

시조는 모음의 결속성에서 초장의 경우 사람이 시름이 많음 주체이다. 그런데 이 ‘사름’이 ‘ㅏㅏ’모음과 운율에 기대 ‘아아’의 한탄 등가성의미자질을 그 핵으로 한다. 그러나 열린 텍스트 밝은 모음으로 중장에서 리듬의 연쇄망의 ‘닐러 다 못 닐러 불러 너 푸듯든가’가 ‘ㅣㅏ ㅏ ㅏㅣㅏ ㅏㅏ ㅏㅏㅏ’의 진행형 밝은 모임으로 전환한다. 처음은 ‘ㅣㅏ’의 절규리듬이다. 그러나 그 흐름이 초장 중장 종장의 첫 음절인 모음 ‘ㅏ’ ‘ㅣ’ ‘ㅣ’가 다시 종장 첫구 ‘진실로’ ‘ㅣㅣㅏ’의 밀접성 응결로 종장 첫구와 종장 끝구와 그 반대의 모음음절이 주는 긍정적 자질로 변화하면서 이 의미구조를 긍정으로 이끌고 가는 시조 텍스트다움이다.

공명 도 니젓노라 부귀<sup>富貴</sup>도 니젓노라  
 세상<sup>世上</sup>번우한 일 다 주어 지젓노라  
 내 마자 니즈니 늬이 아니 니즈랴

-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47

ㅏㅏㅏ ㅣㅏㅏㅏ ㅏㅣㅏ ㅣㅏㅏ  
 ㅏㅏ ㅏㅏ ㅣ ㅏ ㅏㅣ ㅣㅏㅏ  
 ㅏ ㅏㅏ ㅣㅡ ㅣ ㅏㅣ ㅏㅣ ㅣㅡ

세상 욕심을 다 ‘니젓노라’의 시인 마음은 평안이다. 이 의미 자질은 자음 ‘ㄴㅇㅏ ㄴㅏㄴ ㄴㅇㅇㄴ ㄴㅏㄴ’의 ㄴㅇ의 부드러운 반복 음률이다. ‘ㄴㅏㄴ’이 ‘ㄴㅏㄴ’의 어순을 동일리듬으로 하면서 반복리듬이 주는 친숙성을 되풀이 한다. 모음의 운율은 초장 ‘ㅏㅏㅏ’와 ‘ㅏㅣㅏ’가 등가성으로 ‘ㅣㅏㅏ’ ‘ㅣㅏㅏ’ 반복리듬이 된다. 이 반복은 중장 끝구에서 다시 반복리듬을 가지며 이 시조의 의의 연쇄망은 종장 2구 ‘ㅣㅡ’가 끝구 ‘ㅣㅡ’

그 연쇄망을 ‘ㅈ’로 바꾼다. 따라서 밝은 쾌칭음으로 변이된다. 이 결속성은 모든 것을 버리면서 은혜의 리듬, 밝음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예견해 준다. 각 장 끝 음절의 ‘ㅈ’ ‘ㅈ’ ‘ㅈ’로 이 모음군의 밝고 경쾌한 리듬전이의 초 중 종장 간의 쾌칭 활력소이다.

불갓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쇼칠 아히는 여태아니니러느냐  
재너머 스래 긴 바를 언제 갈려 흐느니  
- 남구만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203  
나 | ㅈㅈㅈ ㅈㅈ | | ㅈ | ㅈ  
ㅈ | ㅈ | ㅈ ㅈㅈㅈ | | ㅈ ㅈ  
ㅈㅈ | ㅈ | ㅈ - ㅈㅈ ㅈ ㅈ ㅈ |

초장에서 ‘불갓느냐’가 ‘ㅈㅈㅈ’의 양성모음 결속성으로 밝음 미래지향 감탄리듬이다. 더욱이 ‘노고지리’가 ‘ㅈㅈ | |’의 결속성 모음 군이다. 그러기에 ‘우지진다’다움이다. 중장에서도 ‘쇼칠’ ‘ㅈ |’와 ‘아히는’에서 ‘ㅈ |’와 ‘여태아니’의 ‘...ㅈ |’운율구성을 이룬다. 이 리듬은 종장 끝구 ‘흐느니’의 ‘ㅈㅈ’의 밝은 의미 전달 종결설의법으로 마무리한다.

시조 텍스트 종장다움 리듬이다.

청석령<sup>靑石嶺</sup> 지나거나 초하구<sup>草何口</sup> - 어디미오  
호풍<sup>胡風</sup>도 춤도출샤 구즌비는 무스일고  
아무나 행색<sup>行色</sup>그러내어 계식는데 드리고자  
- 효종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217  
ㅈㅈ | ㅈㅈ ㅈㅈㅈ ㅈ | ㅈ  
ㅈㅈ | ㅈㅈㅈ ㅈ | ㅈ ㅈ | ㅈ  
ㅈㅈ | ㅈㅈ - ㅈㅈ ㅈ | ㅈ - | ㅈ

이 시조는 함몰의미의 텍스트다움 리듬을 갖지 않는다. 그것

각 장의 4구에서이다. 양성모음이 ‘…오’의 ‘…ㄱ’와 중장에서  
의 ‘…고’의 ‘…ㄱ’와 중장의 ‘드리고자’의 존경어중결어미 ‘…ㄱㅏ’  
로 의미 의미자질 동일리듬이다. 따라서 효종왕이 전하는 절절  
한 모습을 전하는 ‘행색 그려내여’의 ‘ㅈㅈ-ㄱㅈㅈ’의 겹친모음  
등가성 ‘ㅈㅈ’ 효심이 하늘에 오르는 주제리듬이 된다.

늑린 끝에 오곡<sup>五穀</sup>을 7초심거 먹고  
먹고 못나마도 굶지나 아니하면  
그 밧기 너나문 부귀<sup>富貴</sup>야 보랄줄이 이시라

-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259

ㅏㅏㅏㅏ ㄱㅈ ㄱㅏㅏ ㅏㅏㅏㅏ  
ㅏㅏ ㅏㅏㅏㅏ ㅏㅏㅏ ㅏㅏㅏㅏ  
ㅏㅏㅏ ㅏㅏㅏ ㅏㅏㅏㅏㅏㅏㅏㅏ ㅏㅏㅏ

재물에 대한 청렴결백 지혜의지는 일상의 어려움 없기가 최대  
목표가 이뤄지는 결과이다. 이 일용할 양식은 마치 광야에서 메  
뚜기와 석청과 만나로서 살았던 사람처럼 그날그날의 양식으로  
서의 필요량을 알았던 조상들의 실상을 그린 시조이다. 시조텍  
스트다움 리듬은 중장 1, 2구에서 ‘먹고 못나마도’ ‘ㅏㅏ ㅏㅏ ㅏ  
ㅏ’에서 연속모음 ‘…ㄱ~…ㄱ’를 드러낸다. 이 리듬은 양성모음결  
집으로 인한 운율로 아름답게 무너지진다. 이 연속모음 응결군은  
‘…ㅏ~…ㅏ’의 연쇄 망을 더 만들면서 중장 3·4구에서 그 결  
정 재 반복이 된다. 이 합일리듬이미지 기호 ‘…ㅏ’를 하나 더 하  
여 ‘…ㅏㅏㅏ’의 겹모음이 결집되고 양성모음으로 끝난다. 이 겹  
모음 ‘…ㅏ’ 3회 리듬이 ‘ㅏ’우ㅏ 기쁨 소리이미지로 바뀐다.

추강<sup>秋江</sup>에 봄이드니 물결이 초노미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아니 무노미라  
무심<sup>無心</sup>흐 들빛만 싯고 빈빅 저어 오노라

-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308



ㅏㅣㅡㅣ ㅏㅣㅣ ㅏㅏㅣ  
 ㅏㅣ ㅡㅣㅣ ㅣㅏㅣ ㅏㅏㅣ  
 ㅏㅣㅏ ㅏㅣㅏ ㅣㅏㅣㅣㅣㅣ ㅏㅏㅣ

‘봄이드니’의 ‘ㅏㅣㅡㅣ’와 중장 ‘낙시’의 ‘ㅏㅣ’와 중장에서 이들의 합인 ‘들빚만 잇고’의 ‘ㅏㅣㅏ ㅣㅏ’의 건너뛴 등가성 ‘ㅏㅣㅏㅣ…’ 결속성 연결 모음 리듬군이다. ‘ㅏㅣ’와 그리고 ‘ㅏㅣ…’의 시적 아름다움이 되는 리듬 반복 ‘아이’ 음가는 초장의 ‘…미라’ 중장의 ‘…미라’와 종장의 ‘…오노라’의 ‘…ㅣㅏ ~…ㅣㅏ ~…ㅏㅏㅏ’의 물결리듬 연결고리임을 알린다.

초당 에 일이 업서 거문고를 베고누어  
 태평성대<sup>太平聖代</sup>를 쏘에나 보려트니  
 문전에 수성어축<sup>數聲魚畜</sup>이 즐든느를 썬으라

-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402

ㅏㅏㅣ ㅣㅣㅣㅣ ㅏㅏㅏㅏ ㅏㅏㅏㅏ  
 ㅏㅣ ㅏㅏㅏ ㅏㅣㅏ ㅏㅣㅏㅣ  
 ㅏㅏㅣ ㅏㅏㅏㅏㅣ ㅏㅏㅏ ㅏㅏㅏ

중장의 ‘문전에 수성어축 이’는 중장 초구와 2구 사이의 관계로 시작한다. 초구는 시조텍스트다움 리듬이 되는 중장의 태평성대<sup>太平聖代</sup>가 그 관건이다. 곧 콩이 남아 있어 먹을 걱정 없이 사는 세대를 태평성대<sup>太平聖代</sup>라 한다. 대 홍수이후 땅이 척박해지더라도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이 콩을 심어 먹고 살아남은 우리 조상 역사가 담겼다. 우리민족은 홍수 이후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콩 문화를 발전시켜 와서 지금도 우리 식단의 거의 전부가 이 콩으로 만들어진다. 우리민족은 콩으로 귀한 신체를 건강하게 하며 주식으로 하였다. ‘두만강<sup>豆滿江</sup>’, ‘태백산맥<sup>太白山脈</sup>’, 더 나아가 부역을 나타내는 부역 주<sup>廚</sup> 곧 주방<sup>廚房</sup>자가 그러

. 태초 영고<sup>迎鼓</sup> 예<sup>禮</sup> 북 고<sup>鼓</sup> 태종<sup>太宗</sup> 태조<sup>太祖</sup> 태묘<sup>太廟</sup> 콩과 밀접한 우리 역사이다. 세계의 중심지 증거가 역사의 홍수 이후 살아남은 여수 지역이 있음을 알린다. 바로 천손민족임을 알리는 하늘나라 민족의 산 증거 역사지이다.

태극<sup>太極</sup>마크 등 콩 노래 모두 우리의 지금의 콩을 절대치로 먹고 사는 민족 곧 태초부터 콩을 주식으로 한 민족의 산 증거이다. 대 홍수 이전부터 찬란한 문화를 건설했음이 조계에 새겨진 수메라 문명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홍수가 훑어 간 후 그 척박한 땅에서 오로지 자랄 수 있는 콩 작물을 먹고 살아간 우리민족 역사 증거<sup>채희석</sup>는 이 증명자료로 증명된다.

종장 초구 ‘문전에’의 ‘ㄱㄱㄱ’가 2구에서 꿈속의 태평성대를 현실성으로 바꿔주는 역설리듬이다. ‘수성어축<sup>數聲魚畜</sup> ㄱㄱㄱㄱ’의 밝은 리듬 ‘ㄱ-ㄱ-ㄱ ㄱㄱㄱ’로 그 끝을 맺어 현실태평성대의 의연쇄망의 등가성리듬이다.

셋는춧불 놀가 이별<sup>ᄃᆞᆫ</sup>ᄃᆞᆫ  
 눈물 흘리며 속 <sup>ᄃᆞᆫ</sup>ᄃᆞᆫ ᄃᆞᆫ  
 우리도 저 <sup>ᄃᆞᆫ</sup>춧불 ᄃᆞᆫ<sup>ᄃᆞᆫ</sup> 속<sup>ᄃᆞᆫ</sup>ᄃᆞᆫ ᄃᆞᆫ

- 왕방연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4441)

ㄱㄱㄱ ㄱㄱㄱㄱ ㄱㄱ ㄱㄱㄱㄱㄱ  
 ㄱㄱ ㄱㄱ ㄱㄱㄱ ㄱ ㄱㄱㄱㄱ  
 ㄱㄱ ㄱㄱㄱ ㄱㄱㄱ ㄱㄱㄱㄱ ㄱㄱㄱ

시조텍스트는 눈물로 얼룩진 내 사랑하는 임금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된 처절함을 ‘창밖기’의 ‘ㄱㄱ기’로 하는 울음 절규 리듬이다. ‘눈물 흘리며’에서 ‘ㄱㄱ ㄱㄱ’ 그대로 울음리듬색채이다. ‘ㄱㄱ’의 울음 절규리듬 운율은 ‘ㄱㄱㄱ ㄱㄱㄱㄱ ㄱㄱㄱ’의

1) 천만리머나먼길에고은넘여의옴고내막음들테업서넛ᄃᆞᆫ에안자이다저물도내안ᄃᆞᆫ도  
 다우리밤길네눅다- 왕방연 청구영언 17.

‘눈물’ ‘ㄷㄷ’로 한다.

이 시조의 주제음가원소리들은 ‘ㄹ’인데 ‘촛불’의 ‘...ㄹ’ ‘놀과’의 ‘...ㄹ’ ‘이별’의 ‘...ㄹ’ ‘...줄’의 ‘...ㄹ’ ‘촛불’의 ‘...ㄹ’ ‘모르논고’의 ‘...ㄹ’ ‘속트눈줄 몰래라의 ‘...ㄹ...ㄹ...ㄹ...ㄹ’의 반복리듬이 합쳐져서 눈물의 음조에 보조를 맞추는 음향리듬이다. 시조의 텍스트다음 음을 배울 종장의 시조 의의 망 절규리듬이다.

당시의 역사성을 지닌 시조 텍스트다음 리듬은 마치 시조창에서 속청으로 높게 떨면서 시작되는 첫 구 처럼 긴장고조리듬이다. 그리고 끝구가 여운의 리듬으로 낮게 발음하거나 소리 내지 않는 의미리듬이다. 호소력의 호풍리듬<sup>1)</sup>이다. 이러한 호소력은 시조한편 속에 마음이 나타난 예는 감히 말 할 수 없는 처절함으로 음성을 나타내지 않기조차 하는 종장 끝구 리듬의미이다. 그러나 종장이 의미하는 양성모음으로 끝을 맺으면서 언젠가 진리가 전해지는 한 편의 시조작품의 위대함이다. 그토록 오랫동안 시조작품이 유지되는 이유이고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시조한편으로 다 알아내게 한다.

인간의 음성은 저절로 음률을 가지고 있다. 혈액순환이 그 근원이다. 종장초구의 확 트이며 숨을 내쉬는 음성이 나오는 것은 다시 숨을 들어 마시며 숨을 죽이는 종장 끝구의 시조의 텍스트다음 리듬과 짝을 이룬다. 말하자면 들숨 날 숨 호흡을 입술로 드러낸 텍스트다음 리듬이다. 시조작품문장의 가락은 시인 마음 속에 피어나는 소리이다. 마음 호흡은 조화이다. 시조창에서 올려 빼기 앞에서 얇은 소리가 나 올라감은 내려감과 조화를 이룬다.

위의 고시조 몇 편의 예를 들어 본 시조텍스트다음 리듬은 그

1) 유협, 『문심조룡』(최신희 역(현암사, 1975)., 121.

신비로움과 더불어 초장 중장을 거치면서 마침내 종장의 3합이 이루어지는 신비로움을 각 글자마다의 신비로움으로 끝낸다. 이 양성 모음군은 동시에 의미리듬도 동일성으로 하는 기적을 만든다. 시조작품이 얼마나 멋지고 슬기로운 지혜를 드러내는 것을 알린다.

우리민족의 심리리듬은 단순한 것이 아닌 셋째 리듬에서 강을 이루는 신비한 리듬이 있다. 서열관계가 항상 셋째 3에서 강조를 들어내는 시조의 텍스트다음 리듬이 그 예다. 일반문법논리문장이 가지는 리듬<sup>1)</sup>과는 다르다. 우리말이 지니는 약<sup>弱</sup> → 약<sup>弱</sup> → 강<sup>強</sup> → 약<sup>弱</sup> 리듬은 우리말버릇이다. 우리말 응결성의 푸른 요인의 문장연쇄는 우리 노래 가락 흐름에서의 약<sup>弱</sup> → 약<sup>弱</sup> → 강<sup>強</sup> → 약<sup>弱</sup>의 흐름을 가진다.

시조의 텍스트다음은 숨쉬기 작업이다.

---

1) 고영근, '텍스트 형성과 응집성의 문제' 『청범 진태하 교수 계절송수기념어문학논총』(논총간행위원회, 1887), 349.

## 2장 시조의 심리리듬

### I. 문제의 제기

논문은 시조의 심리리듬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시조의 심리리듬이란 시조의 체제화 organization의 개념에 접근함에 있다.

문제의 제기는 흔히들 정형 시조가 일상의 정서를 담기에는 제한성이 있다거나 시대적 산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오히려 정형 시조 외에서 시조의 정형리듬에 근접하려는 정형시조의 심리리듬을 탐색함으로써 시조리듬의 체제화를 알게 된다는 문제제기이다. 장르 특징을 초월하는 의미의 확대에 본질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이 일환의 일고 는 중형시조 및 장형시조나 다른 자유시형에서 발견되어지는 리듬이 사실은 시조의 정형 리듬으로 가려는 시조의 심리리듬이라는 데에 주안점을 두기로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형 시조리듬이 정형시조 장르 아닌 시들에게서 내재하고 있음을 탐색한다. 이 뜻에 대한 이해는 말하자면 여태까지는 정형시조의 결정적인 리듬과 비교함보다는 정형시조 외의 운문 장르에서 발견되어지는 공통 핵이 정형시조의 리듬으로 가려는 심리리듬이다. 이것을 명명하여 시조의 심리리듬이라 하고 우선 명제의 제한성을 두기 위하여 우선 그 독특한 심리리듬을 지향하는 과정에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 가하는 자수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

## 2. 장시조의 심리리듬

알려진 대로 노산 이은상이 말한 바 있는 시조의 定型而非定型 非定型而定型 리듬 의미의 폭이 다른 운문장르에서도 유사성으로 발견되어질 경우 이것은 심리리듬이 되는 것이며 곧 시조심리리듬 지수가 된다. 동시에 본 논문에서는 이 지수적인 심리리듬을 찾는 것도 포함된다. 이것은 시조를 바라보는 시각적 인식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기도 하다.

정형시조와 가장 근접해 있는 장시조 리듬은 단시조의 감각 기억 정보에 의한 심리적 보완리듬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시조심리리듬은 정형시조에서부터 찾아진다.

장시조의 이중 구성은 시조의 정형적 규칙에서 어느 두 구 이상이 각각 가 자수가 10자 이상으로 벗어난다는 명제적 표상을 갖는다. 이 시조리듬은 정형시조 리듬에 비하여 대개 중장의 1, 2구로 정의된다.<sup>1)</sup> 이 리듬이 정형성 지향 심리리듬에 더욱더 근접해 있음을 보게 된다.

자리를 뜰 때마다	3/ 3/ 1/ 3 초장
무엇에 빼앗기는 것만 같더니	3/ 4/ 2/ 3
물 끼 있는 하늘 속에 뛰어난 꽃망울,	4/ 4/ 3/ 3 중장
그 꽃망울의 사운뎀을 네 가슴에	5/ 4/ 4
옮겨 놓고 보고 싶더니	4/ (2/ 3)
아직은 값지지 못할 칠보로 덮힌 산봉우리	3/ 5/ 5/ 4 중장
그 오색 봉우리를 너는 또 네 몸에	3/ 4/ 6(3/ 3)/ 6
지니고 다닌다	(3/ 3)
흩어진 노래개의 부수러기로 원형	3/ 4/ 5/ 2 초장

1) 이태극, 『시조개론』 (서울: 새글사, 1974).

이빠진 자옥을 맞추더니	3/ 3/ 3/ 4
문득 부스러기로 만든 포도알	2/ 6/ 2/ 3 중장
그 인조 포도알을 가지고도 감쪽같이	3/ 12(4/ 4/ 4)

마침내	3 중장
너는 또 내 몸에 풍기던	3/ 3/ 3
그 살내음을 휘저어, 다시	1/ 4/ 3/ 2
노을에 실명한 이의 눈도 띄운다	3/ 5/ 2/ 3
	-김상옥 「관계」에서

김상옥 시조의 심리 장시조리듬에서 정형시조의 심리 리듬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없이/ 자리를/ 뜰/ 때마다’를 초장으로 구분하면서 둘째 연의 ‘무엇에/ 빼앗기는/ 것만/ 같더니’는 생략되어도 좋을 리듬이다. 그 이유에서 김 시인 심리리듬이 3/ 4/ 1/ 4로 한정되면서 이 심리리듬과 의미리듬을 강조하기 위한 부차적인 리듬 3/ 4/ 2/ 3이 덧붙여진다. 따라서 장형리듬의 가치는 반복된 효과의미가 있는 강조리듬이다.

중장 리듬의 경우에도 ‘물 끼 있는/ 하늘 속에/ 뛰어든/ 꽃망울’의 심리리듬은 정형시조심리듬의 근접인데 ‘그 꽃망울의/ 사운뎀을/ 네 가슴에 와/ 옮겨놓고/ 보고/ 싶더니’로 강조 반복리듬이 있다.

중장의 리듬은 4/ 4/ 3/ 3의 리듬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5/ 4/ 4/ 4/ 5(2/ 3)의 중층 심리묘사 리듬이 중복 리듬이다. ‘꽃망울’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은유의 ‘가슴’을 설명하고 있다.

중장에서도 ‘아직은/ 값지지 못할/ 칠보로 덮힌/ 산봉우리’에서 연이어진 다음의 ‘그 오색/ 봉우리를 너는/ 또 네 몸에도/ 산봉우리/ 지니고/ 다닌다’라는 리듬이다.

이 시조 심리리듬은 자수를 많이 배열하여 놓은 것과는 관계

초장 3/ 3/ 1/ 3 리듬과 중장 4/ 4/ 3/ 3의 리듬 그리고 중장의 3/ 5/ 5/ 4라고 하는 시조작품 한편에 대한 시조의 정형리듬 찾기가 탐색된다. 이 심리리듬은 기존의 정형리듬을 내재함으로써 다만 부차적인 보완심리리듬을 보유한다.

김상옥의 시조작품 심리리듬은 그의 장형시조에서 장형적 시조리듬 안에서 자극심리리듬을 덧붙인다. 그것은 초장 첫 행 보다는 초장의 둘째 리듬에서 기본 정형시조리듬이 찾아진다. 이러한 시조의 정형리듬에 대한 부담리듬은 원형이 되는 병렬리듬의 첫 행의 심리리듬으로 나타나는 바 3/ 4/ 5/ 2를 지배한다. 이 리듬활용은 중장의 현실의미를 ‘문득/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도알’을 배치하여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거부한다. 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중장으로 바뀌면서 포도 알의 신선을 강조한다. 바로 인조라는 것에 거부의미를 놓아 장시조의 매력을 드러내면서 구차하리만큼 많은 자수리듬 3/ 12/ 7/ 4/ 4로 장시조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그 랑그는 4/ 4/ 4/ 4 심리리듬을 만든다. 그러기에 가짜의 포도 알을 가지고도 싱그러운 과즙을 짜는 회복의 시인 괴력으로 심리리듬을 만든다.

통영출신 김상옥 시조시인(1920~2004)은 일탈 롤로 시조작품을 쓴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정형시조 심리리듬이 그대로 존재한다. 오히려 시조의 리듬을 잘 드러내며 그 리듬의 가치를 리듬으로 알린다.



### 3. 시조심리리듬 집

정의는 심리리듬들의 대량 집합의 의미로 한정한다. 3/ 4/ 3/ 4/ / 3/ 4/ 3/ 4/ / 3/ 5/ 4/ 3은 시조의 사전적 리듬이 존재하면서도 定型而非定型 非定型而定型이 되는 리듬집을 구성하는 이유는 시조작품의 신축성을 중요시한다. 정형시조가 아닌 장형시조나 중형시조가 현대인의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형을 요구한다는 명목 하에 기형적이고 과격적인 문학형식이 생겼다가 보다는 그 내재적 심리리듬이 여전히 반복 리듬의 묘미로 시조정형 심리리듬들이 대량으로 몰려 있게 된다. 이것은 시조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장형시조가 갖는 특징이다. 해체시라든지 자유시라는 이름이 아닌 장형시조의 특징이다.

추양(淮陽)금성(金城) 오리남기 되고 나는 三四月 칠덩굴이 되어  
 그 남게 그 출이 낙겸의 자취감듯 이리로 촌촌져로 촌촌 외오 풀치 울  
 호 감아 밋부터 곳가지 조금도 빈 틈이 업시 촌촌 구뵤 나게 휘휘감기  
 주야장창(晝夜長常) 뒤트러져 감기엿다가 동짓달 바람 비 서리를 아모리  
 마즌들 풀일 줄이 잇스랴

이 장형시조 리듬은 초장으로 3/ 4/ 4/ 3/ 2/ / 3/ 4/ 4/ 3/ 2 리듬을 가진다. 그런데 이미 처음부터 3/ 4/ 4/ 3리듬으로 시작되면서 기본리듬이 반복되는 리듬 2/ 3/ 4/ 2가 덧붙여진 강조 리듬이다. 중장은 3/ 3/ 3/ 4/ / 5/ 5/ 4/ 4/ / / 3/ 3/ 3/ 5/ 인 데 역시 3/ 3/ 3/ 4의 심리리듬이 우선으로 놓이면서 5/ 5/ 4/ 4나 3/ 3/ 5/ 5 모두 근접리듬 강조이다. 반복의 율박으로 놓이며 덧붙여진다. 이 심리리듬은 설명의 사설리듬으로 휘휘 감기는 아름다운 의미리듬이 그 다음에 놓이는 역할을 한다. 더구나 중

3/ 13(3/ 4/ 3/ 3)은 초구의 3리듬 다음에 13의 리듬을 놓지만 그 내면의 리듬으로 3/ 4/ 3/ 3의 심리리듬이 내재한다.

장시조 리듬은 장형시조의 기본리듬과 그 주위에 무한한 가능성의 리듬이 아름답게 반복된다. 이러한 음수율은 단시조, 중형시조, 장형시조의 문학작품 가치의 창작리듬 기능을 열어둔다.

따라서 사설시조가 정형시조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기는 하지만 그 내면에 정형적 심리리듬이 주된 의미리듬이 있다. 바람직하게 다른 리듬은 설명해주는 리듬이다. 시조가 갖는 자유스러운 듯하면서 자유스럽지 않고 자유스럽지 않은 듯하면서도 자유로운 시조의 리듬 묘미이다.

리듬의 움직임에서 얼핏 보면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질서정연한 리듬의 규칙을 지닌다. 리듬이 반복되면서 규칙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임으로써 장시조의 특징을 예시한다.

김상옥의 「관계」 시조가 보여주는 ‘마침내’ ‘다닌다’ ‘떠운다’와 같은 3음절 반복리듬은 시적이 되는 일차적 관련이다. 그러면서도 안정되고 따뜻하게 데워주는 4의 리듬과 어울려 일정하게 3/4라는 심리리듬이 이어짐으로써 저축된 심리리듬이 드러나는 예이다.

용기장수 순 임금도 지나가고	2/ 4/ 4/ 4	초장
명경알 닦던 스피노자도 지나가던 길목	5/ 5/ 4/ 2	중장
길목에 한 불우의 소년이 앉아	3/ 9(4/ 5)	종장
도장을 새긴다	/ 3/ 3	
정황석을 새기다 전황석의 고우 널 눈에 재우고	4/ 3/ 4/ 5	초장
상아를 새기다 상아의 여문 질을 손테 태운다	3/ 3/ 7(3/ 4)	중장
	/ 5(2/ 3)	
향목도 해양목도 마저 새겨	3/ 4/ 2/ 2	초장

도장, 온갖 도장을 다 새긴다	5/ 5/ 1/ 3	중장
하고많은 글자 중에 사람들의 이름자	4/ 4/ 4/ 3	초장
꽃 이름, 새 이름도 아닌 사람들의 이름자	3/ 6/ 4/ 3	중장
꽃모양 새 모양으로 전자체를 새긴다		

-김상옥 「도장」에서

초 · 중 · 종장의 어느 두 장이 그 길이를 벗어나는데 있다. 이 리듬은 거의 현대시적 리듬에 있으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장형시조의 리듬 안에 정형시리듬을 가진다. ‘길목에/ 한 불우의 소년이 앉아’에서 ‘소년이 앉아’라는 결정적 값을 매김 할 때 필요한 충분조건이 되는 ‘길목에’를 다시 설명하는 ‘불우의’ 설명적 자리 매김에도 아랑곳없이 그 값을 발휘한다.

끝부분의 초장 · 중장 · 종장을 놓아 ‘4/ 4/ 4/ 3 / 3/ 6/ 5/ 3 / 3/ 5/ 4/ 3’인 정형시조리듬이다. 장형시조 안에 정형 심리리듬이 근접한다.

두들겨라	4	초장
지계장단	4	
어서 노를 휘저아라	4/ 4	
그 무슨 첫대를 붙어	3/ 5	
이 아픔을 하고하라	4/ 4	중장
환장할 경지를 지고		
떼거지를 그렇게	4/ 3	종장
조지고 비비 틀고 작신작신 할킨 세월	3/ 4/ 4/ 4	초장
더러는 혼을 챙겨 공출나간 이수라장	3/ 4/ 4/ 4	
도술 진 차양을 드린 그 마음 야로 속에	3/ 5/ 4/ 3	중장
모가지 열레 감긴 참혹한 생애던가	3/ 5/ 4/ 3	중장
어이어 어여하어이 어이어이 어여하	3/ 5/ 4/ 3	중장
풀고	2	초장

	5	
가슴조이는 사슬	5/ 2	중장
끝끝내 무르팍에	3/ 4	
찬바람 절로인다	3/ 4	
비비종	3	중장
우니는 새야	5	
형극의 강 비껴날고	4/ 4	
이승을 달아 건 보릿대 쓰디 쓴 연기	3/ 3/ 3/ 5	초장
굴레 먹은 연대의 글러먹은 식리였네	4/ 3/ 4/ 4	
등줄기 휘인 채로 요역 공신 죄구령의	3/ 4/ 4/ 4	중장
거만의 농장에 간혀 불지짐 료수할 때	3/ 5/ 3/ 4	
거꾸로 매달린 목숨 오리무중 달은 지네	3/ 5/ 4/ 4	중장
으سس 멀미난다	3/ 4	초장
어서 새끼 누역이 탄다	4/ 5	
피의 소금 굵어내듯	4/ 4	중장
조공 받던 손갈퀴를 앓아간 태평성대	4/ 4/ 3/ 4	
찰진 내 사랑은 차마	3/ 5	중장
손톱마저 진물러	4/ 3	

- 윤금초의 「어초문답」에서

정황석을 새기다 전황석의 고우 널 눈에 채우고	4/ 3/ 4/ 5	초장
상아를 새기다 상아의 여문 질을 손테 태운다	3/ 3/ 7(3/ 4)	중장
	/ 5(2/ 3)	
향목도 회양목도 마저 새겨	3/ 4/ 2/ 2	초장
등글한 도장, 온갖 도장을 다 새긴다	5/ 5/ 1/ 3	중장
하고많은 글자중에 사람들의 이름자	4/ 4/ 4/ 3	초장
꽃이름, 새이름도 아닌 사람들의 이름자	3/ 6/ 4/ 3	중장
꽃모양 새 모양으로 전자체를 새긴다		

-김상옥 「도장」에서

「어초문답」이 장형시조의 특징이면서도 여전히 정형 심리리듬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대시조에서 시조의 정형리듬은 중형, 장형과 연계되면서 정형시조 리듬 규칙의 심리리듬이다.

## 1). 다단계 저축리듬

갖는 리듬은 심리리듬의 경우 그것은 곧 마음의 감각기억 저장에 의하여 구성된다. 지속형상은 지속기간이 우리의 역사만큼이나 길기 때문에 거의 각 분야의 장르 속에 내포되어 지속된다. 흔히 들 시조의 지속 시간을 중요시하려하여 설왕설래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소멸되거나 특정한 형식으로 어느 시기에 매어 있는 것이거나, 고려 중엽의 어느 특정인들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관점과는 다른 시조리듬의 중요한 면모를 살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사람의 기억장치가 하루아침에 조작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님이 업서  
양사실로 그네 했네

    그 그네를 뛰자하니  
    꿰어질까 염려로다

    꿰어짐은 걱정말고  
    양팔심귀 굴러주게<sup>1)</sup>

민요인데 우선 유의하여지는 점은 3구분의 구분이다. 따라서 익숙하게 눈에 들어오는 리듬이다. 그러나 너무 심리 언어적 리듬을 강하게 내세우면 그것은 심리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또한 마음에 부수되는 리듬만을 강조하면 촘스키 *chomsky*가 내세운 마음에 표상된 언어는 부수현상이라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더 이상 실증적으로 개념화할 수 없는 리듬만을 본 논문에서 강조할 수는 없

1) 김소운, 『조선구존 민요집』 (서울: 제일서방, 1933), 노래번호 119.837

.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운문적인 문학작품을 통한 통시적 해독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사실 시조리듬이 고대에는 줄곧이었고 띄어쓰기가 아니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호흡을 따라 읽고 해독하는 가운데 차츰 그것은 3개의 의미단락에 있으며, 슬기로운 우리의 리듬이 3/4의 리듬임을 찾아낸다. 일차적으로 이 3개의 의미단락은 그 행을 구별하면서 뚜렷하여져서 시조가 갖는 규칙이 된다. 이것은 심리리듬이 된다.

강변에 돌도 많다  
 쾌칭아 칭치 나네

청천하늘에 별도 많다  
 쾌칭아 칭치 나네  
 창락 들에 보리도 많다  
 쾌징아 칭치 나네<sup>1)</sup>

고립적 자질을 멀리하는 시조심리리듬은 기억집합에서 긍정반응을 보이는 평균 반응 3단락의 리듬에 머무른다. 이 통제된 리듬의 시조적 특징은<sup>2)</sup> 다단계 즉 향가-속요-시조-가사-자유시라는 다단계 저축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제한 용량이 없는 망각되지 않은 인지 리듬이 되고 있어서 시조의 심리적 리듬영역의 확대성을 가늠하게 된다.

1) 김무현, op.cit., 63.

2) 최 철, 『한국민요론』(서울: 집문당, 1986), 270-275.

## 2). 다단계 심리리듬

독특한 언어 혹은 시조시어로 구성되어 있거나 철저한 고정관념에 의한 리듬으로 규정지어졌을 것이라는 철조망을 두어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조는 한 시인의 내재적 질서에 의하여 시적인 랑그로서 표출되기에 시어의 랑그는 선입관념적인 시조리듬이라는 독특한 한전성으로서만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운문적 질서 안에 산발적으로 자율적이 되는 내재성이 있으며 그 내재성은 시조의 특이한 리듬의 의미가 되는 관여성을 동시에 갖는다.<sup>1)</sup> 따라서 이 법칙은 시조의 장르 아닌 다른 운율성을 가진 시가에서도 그 시조의 특징적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게 한다.

『대악후보』나 『금합자보』의 만대엽만 하더라도 악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5분절성이라 하더라도 중엽과 대엽 등을 떼버리고 나면 전강, 중강, 후강으로 된다. 따라서 어떤 위치에 관계없이 엮은 덧붙여진 것으로 보아<sup>2)</sup> 온 것처럼 엮의 부분들을 제하고 시조와의 유사성을 발견해 낼 수 있다.<sup>3)</sup> 이뿐만 아니라 전강, 중강, 후강 형식 「정읍사」 「동동」을 찾게 된다. 기본적인 3분의 심리리듬은 용비어천가에서도 1장에서부터 124장까지 초장과 중장의 대립적 리듬이 되면서 125장이 시조의 초·중·종장의 리듬과 유사성에 있다. 특히 125장 리듬에서 종장의 초구의 특징인 감탄사가 발견되는 것 등은 시조의 리듬<sup>4)</sup>과 같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 한다면 우리 한국인들의 심리리듬

1) 홍문표, 『시어론』 '시문장의 랑그'(서울: 양문각, 1995), 279

2) 이혜구, 『한국사』 권6 '고려시대의 음악' 국사편찬위원회, 439.

3) 김대행, 『시조유형론』(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6) 참조.

4) 줄지, 『이상시 연구』(서울: 양문각, 1989), 232. 참조.

어느 장르이던지 늘 발견되는 정형시조심리리듬이다.

너는 혼자 외로와 외로와	3/ 4/ 3/ 3	초장
그 귀 익은 창가를 소리 높혀 부르고	4/ 3/ 4/ 3	중장
날마다 날마다 고와지는 좋은 백골이 되라	3/ 7/ 5/ 2	중장

-유치환 「육년 후」에서

조국이며 영광이여 굽이굽이 애정이어	4/ 4/ 4/ 4	초장
오늘의 묘묘한 광명이 열싸안아	3/ 3/ 3/ 4	중장
내 새은 갈아입고서 다시 보려 하오니	3/ 5/ 4/ 3	중장

-유치환 「찬가」에서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3/ 6/ 5/ 4	초장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고깔에 감추오고	4/ 4/ 5/ 4	중장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3/ 6/ 4/ 4	중장

-김상옥 「도장」에서

떠도는 맑은 공기 암암한 옛 양자라	3/ 4/ 3/ 4	초장
아리따운 사람이 다시 오는 듯	4/ 3/ 2/ 3	중장
보냐고 그리는 정은 싫지않다 하여라	3/ 5/ 4/ 3	중장

-조지훈 「매화사」에서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2/ 4/ 4/ 3	초장
보리밭에 달이 뜨면 얘기 하나 먹고	4/ 4/ 4/ 2	중장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3/ 5/ 2/ 3	중장

-김상옥 「문둥이」에서

위 시들은 시조시인이라 별칭 되지 않음으로 오히려 시조의 정형 심리리듬이 발견되는 예이다. 그러나 시조리듬이 지니는 특이한 운율조형으로 한 자유로운 리듬이 아닌 정형리듬에 접근한다.



## 3). 해독 전략에 의한 발견 리듬

지니는 심리리듬 논리는 배병창도 심리리듬 견해<sup>1)</sup>를 밝힌 바 있다. 평시조 · 옛시조 · 사설시조가 지닌 리듬을 여섯 토막을 특징으로 하는 리듬을 비단 시조작품 아닌 곳에서 늘 나타난다. 사설시조의 경우 평시조의 형식에서 두 줄 이상이 여섯의 토막으로, 어느 한 줄이 여덟 토막으로 늘어난<sup>2)</sup>다. 사설이란 촘촘히 박아놓는다는 뜻이 있어서 평시조가 사설시조로 바뀌어도 곡의 장단과 호흡이 시조작품의 정형리듬에 근거한다.

운문 장르에서 시조의 심리리듬 해독전략 *parsing strategies*은 모든 운문 장르에서 보이는 전체성으로 돌출 된다는 가설을 세워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 이유는 초장 · 중장 · 종장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곧 한국 운문들의 보편성의 의미리듬으로의 생성성이라는 논의의 가능성에서이다. 이 자생성의 이론은 이러한 운문의 통사처리에 의한 시조의 심리리듬의 논의의 확실성이 되는 동일성이다. 시조작품으로 불리어지지 않는 여러 시들에서 정형시조심리리듬으로 내포한다. 이 삼재문학 을 알아내기 작업의 이론 결실을 보기 위하여 편의상 1)의 리듬 · 2)의 리듬 · 3)의 리듬이라 명명 가칭하고 심리리듬을 더 탐색할 수 있다.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 1)의 리듬

1) 배병창, '현대시조의 미학' 『시조문학 3집(서울: 학문사, 1975)., 75.

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91-295.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 - 2)의 리듬

아이야 하얀 은쟁반에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 - 3)의 리듬  
- 이육사 「청포도」에서

꽃 피었다 뉘 피었다 앞산 뒤들의  
..... - 1)의 리듬

열매 맺고 씨 품어서 직분 다하라  
..... - 2)의 리듬

아아 우리 소년들아 가서 친하라  
..... - 3)의 리듬  
- 최남선 「들 구경」 1)에서

이육사시와 같은 연계선상에 있다고 보아지는 것은 3연의 첫 마디에 감탄사가 발견되는 점이다. 이러한 감탄사는 이상시에서도 시제 9호에서 ‘참 나는’이라고 하는 감탄사가 발견된다.

매일같이 열풍이 불드니 드디어 내 허리에 큼직한 손이 와 닿는다. 황홀한 지문  
굴작이로 내 땀내 가슴 여드자마자 쏘아라. 쏘오리로다. 나는 내 소화기관관에  
목직한 총신을 눅기고 내 담뽀론 입에 맥근 맥근 총구를 눅긴다. 그러드니 나는  
총쏘듯 키눈을 감이며 한 방 총탄 대신에 참나의 입으로 무엇을 내어 빼앗혔느냐  
- 이상시 「오감도」 시 제 9호

시조의 정형리듬 닮음 풀은 이승훈도 이상시의 시제1호에서

1) 『소년』 제 3년 3권 1910. 5. 15., 1. 35.

시 리듬을 내재리듬으로 한다.<sup>1)</sup> 그것은 오감도 시제 1호에서 23행이 전반부인 1행에서부터 15행까지가 시조의 리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를 전통성 때문이라 하였다. 한국문학의 특성은 이러한 연구는 누가 일시에 창작해 낸 리듬보다는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의 특성으로 하여 광의의 정형시조리듬이 「정읍사」나 「만전춘」이나 민요 그리고

현대시가 아닌 『용비어천가』에서도 시조작품 내재율을 가진다. 현대시<sup>2)</sup> 이육사의 「청포도」 시는 의미리듬으로 3구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미래의 시간이 1)의 리듬으로 자리 잡고 이와는 다른 2)의 리듬으로 대칭되다가 3)의 리듬에서 아이를 불러온 쟁반에 하이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둘 것을 지시한다. 이러한 이육사의 심리리듬은 율박의 관점에서 시조율을 가진다.<sup>3)</sup> 이처럼 자수율이나 율박의 리듬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sup>4)</sup> 시조의 심리리듬이다.

소월시가 연구에 회자할 수 있었던 것은 심리 어휘집이 이루는 마디의 3장적 정형시조심리리듬에서이다. 소월시의 심리 심리리듬은 작품 전체에서 주는 불안정, 혹은 음상을 외연으로 하는 호소력에서 이를 안정시키는 양장시조의 안정리듬을 가지는 데 있다. 2분형식의 3단 구조에서이다. 고려가요의 3보격이 동량 3보격이라면 소월 시나 시조의 리듬이 가지는 3음보이되 양장시조리듬형식은 시조작품이 가지는 심성어휘집으로 구성될 때 문이다. 겹으로는 3음보 · 3행 · 3연 등의 불안정성에서 이를 내

1) 이승훈 『이상시연구』 (서울: 고려원, 1987), 300.

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서울: 지식산업사, 1992), 181.

3) 신웅순, '육사시에 있어서의 시조 一考', 『명지어문학』 제 23호 pp. 243-260 참조.

4) 조창환, '소월시의 구조' 『국어국문학』 100호 228 p. 228.

안정시키는 완전성 지향리듬이다.

이것은 시조의 심상어휘집인 동시에 시조심리리듬이다. 시인에서 발견되어지는 시조심리리듬 집은 한용운의 경우 1920년 경에 쓴 작품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도 한다. 시조의 작품에서 ‘님’이 ‘조국’<sup>1)</sup>이다.

사공삼고 을지문덕 마부삼아  
피사검 높이 들고 남선북마(南船北馬) 하여볼까  
아마도 님찾는 길은 그뿐인가 하노라<sup>2)</sup>

이 시조를 포함한 시조 13수는 한용운 시의 주제가 되고 있는 님에 대한 의미전달이다. 외형률이 시조 리듬에 근거한다.

비밀입니까 비밀이라니요 나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1) 리듬  
나는 당신에게 대하여 비밀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비밀은 아속히도  
지켜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비밀은 눈물을 거쳐서 당신의 시각으로 들어갔습니다 2)의 리듬  
나의 비밀은 한숨을 거쳐서 당신의 청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비밀은 가슴을 거쳐서 당신의 촉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밖의 비밀은 한 조각 붉은 마음이 되어서 당신의 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은 하나 있습니다 3)의 리듬  
그러나 그 비밀은 소리 없는 메아리와 같아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 한용운 「비밀」

한용운의 리듬은 사설시조형식이다. 의미의 구분이 되는데<sup>3)</sup>

---

1) 남기택, ‘항일민족시의 전통성 고찰’ 『한국현대문학과 전통』 (서울: 신원문화사, 1993), 439.  
2) 『한용운전집』 (서울: 신구문화사, 1979), 176.  
3) 조명환, 『언어 심리학』 1988년

1)과 2)의 리듬은 시조장르에서 보여주는 반복리듬이 의미에서 전개된다. 겹치던지 혹은 그 이상이든지 같은 리듬으로 반복 1)과 2)의 리듬이 되는 일은 시조작품의 초장과 중장의 심리리듬<sup>1)</sup>이다. 이러한 은밀한 심리리듬은 처음에는 님의 눈물 속에 시각으로 들어가 떨리는 촉각으로 흐르는 애뜻한 비밀 현실성이다. 이에 마지막의 3)의 리듬에서는 그 메아리가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신의 비밀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결국은 님이 요구하는 비밀에 도달하는 경지이다. 이러한 우회적인 역설은 한용운의 『님의 沈黙』 전체에서 수용되는 것이기에 이별과 헤어짐의 공간이 결국 자신에게로 향하는 해탈경지다. 이러한 시조의 심리리듬 근접은 우리시가가 지닌 정서로 이별이 허용되지 않는 지경까지 오는 힘이다. 이별과 헤어짐의 공간과 만남이라는 3리듬<sup>2)</sup>의 치유시조심리리듬이다.

박목월 시의 경우 『폐원』 시에서는 1)의 리듬에서 2/ 3/ / 3/ 4/ 4이고 2)의 리듬은 3/ 2/ 5/ 5/ / 3/ 2/ 5/ 3/ 4이다. 실제 1)의 리듬에서는 ‘눈이 와/ 눈 속에/ 돌충계가/ 잠드는데’로 초장의 의미리듬이 있다.

오는데

눈 속에 돌충계가 잠드는데

1)의 리듬

눈이 오는데

눈 속에

가난한 장미가지가 속삭이는데

1) 이영지, 『한국시조문예미학』 (서울: 창조문학사, 2019), 참조.

2) 채수영, ‘만해시와 원’ 『한실 이상보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621.

하고  
 내가 웃는데  
 하얀 길 위에 내가 웃는데  
 옛날에...  
 하고  
 그가 웃는데  
 서늘한 눈매가 이우는데

2)의 리듬

눈 위에  
 발자국이 곱게 남는다  
 망각의  
 지평선이 멀리 저문다

3)의 리듬

- 「폐원」에서

심리리듬은 1)의 후자를 반복의 허사의 리듬으로 놓아 생략되어도 좋을 리듬으로 놓고 있다. 2)의 리듬에서도 ‘웃는데.../ 서늘한/ 눈매가/ 이우는데’라고 하는 심리리듬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옛날에/ 하고/ 내가/ 웃는데/ 이우는데’라고 하는 심리리듬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3)의 리듬에서도 본질적인 3의 리듬을 앞세우면서 6/ 3이 반복리듬으로 놓인다. 이 의미리듬은 종장 특징으로 ‘눈 위에 발자국이 곱게 만든다’를 종장 1, 2구로 보거나 혹은 ‘눈 위에 발자국이 곱게 남는다’를 종장 1, 2, 3, 4구로 보거나 모두 반복리듬이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리듬은 다른 「3월」 「청노루」 「불국사」 시에서 각 장이 4음보인 시조심층리듬에 근접한다. 「산」은 초·중·종장의 심리리듬에 근접한다. 목월시의 이러한 전통적 요소는 자연을 자연 그대로 문학작품에 반영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인간화된 것이다. 그만큼 자연이 인간화 된 인간위주의 사상으로 이어

1)다. 그 근저리듬은 민요적 율격요소리듬이다.

이 산재하는 시조 심리리듬은 음양과 그 결합을 전제로 조직된 심리리듬이다. 이 구조의 리듬은 자연의 대응리듬과 그 순환이 되는 심리리듬이거나 역순환의 리듬으로 엮어진다. 이와 같은 연계성의 탐색은 문학의 특성이 정서와 감성이라는 심리요인을 만족시켜주는 구원의 문학으로서의 그 가치를 가진다. 정형시조심리리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듯한데 오히려 이에 더 접근하는 심리리듬으로 보상한다.

오는데  
눈 속에 들층계가 잠드는데

눈이 오는데  
눈 속에  
가난한 장미가지가 속삭이는데

1)의 리듬

옛날에  
하고  
내가 웃는데  
하얀 길 위에 내가 웃는데  
옛날에...  
하고  
그가 웃는데  
서늘한 눈매가 이우는데

2)의 리듬

눈 위에  
발자국이 곱게 남는다  
망각의  
지평선이 멀리 저문다

3)의 리듬

1) 채수영, '박목월 시에 나타난 전통적 요소' , 561.

## 5. 소월 시와 이상 시와 황진이시조의 리듬도

지니는, 애매 모호성은 소월의 「산유화」가 산에 꽃이 있음을 주제로 한 것이라면 저만치 홀로 피었네는 꽃 한 송이만 달랑 피는 산이 아니라 산에 꽃이 많은 뜻이 있음으로써 시의 은유적 긴장의 애매 모호성을 만든다. 시적 긴장이 있을수록 극과 극의 대응관계는 극적인 유기성을 이루게 되는데 꽃의 존재 즉 산에 있는 많은 꽃들의 삶의 존재는 언제나 홀로 피는 존재이다. 하나의 존재에 하나의 삶만이 있는 것은 하나의 존재가 두 개의 삶이나 남의 삶을 가질 수 없다. ‘산’에 저만치 홀로 핀 존재 모두가 홀로 저만치 영광스럽게, 홀로 저만치 자랑스럽게 피는 존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을 봄 녀름 업시 피네”에 있다. 자연의 순환성에 비추어 본 이 시의 기간은 2년이다. 겨울을 지난 가을과 봄과의 관계는 일 년이면 피었다가 스러지는 꽃도 아니고 겨울에도 필 꽃이다. 이러한 꽃의 저만치 홀로 피어있는 꽃의 존재에게는 산에 사는 작은 새가 그 꽃이 좋아 산에 있게 된다. 이 시의 새는 큰 새가 아니며 보통 새도 아닌 ‘작은 새’이다. 이러한 꽃의 저만치 홀로 피어있는 꽃의 존재에게는 산에 사는 작은 새가 그 꽃이 좋아 산에 있게 된다. 이 시의 새는 큰 새가 아니며 보통 새가 아닌 작은 새이다. 작은 새는 저만치 가을 봄 여름 없이 피는 큰 존재이다. 꽃을 좋아하며 산에 산다. 진달래 꽃 시의 ‘그 꽃’처럼 시에서 ‘꽃이 좋아’의 가을과 겨울과 봄 그리고 여름에 영원토록 같이 산다. 산에 사는 작은 새는 이 꽃이 좋아 산에 삶으로서 산은 삶의 동산이 된다.



## 꽃지네

꽃치지네  
 갈 봄 녀름업시  
 꽃치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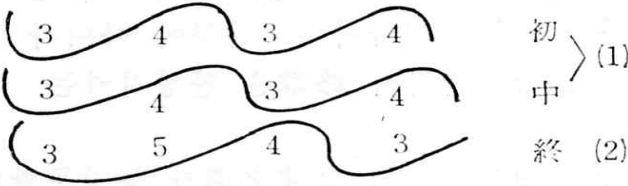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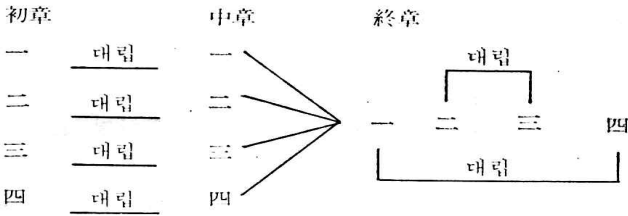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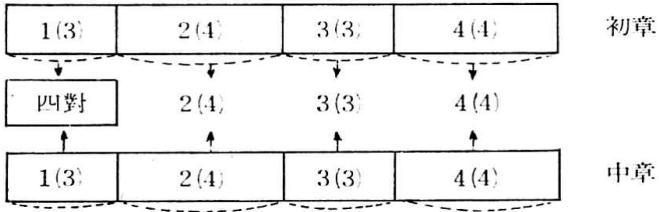
산에는 꽃피네  
 꽃치피네  
 갈 봄 녀름업시  
 꽃치피네

매력은 전통시가 가지는데 있다. 시조의 경우 종장 4구에 해당하는 ‘하노라’류의 생략형 어미와 연계된다. 「진달래꽃」 시 4연은 시조처럼 허사 리듬을 가진다. 이것은 「산유화 有花」의 시제목이 「산무화 山無花」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에 사는 작은 새가 꽃이 좋아 산에 살듯이 산에 사는 작은 새는 꽃이 없는 것이 싫어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연은 없어도 좋을 허사 리듬이지만 시의 아름다움을 위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시조의 리듬과 시의 전통성이 결합한다. 실제 김소월은 시조형태의 시를 발표한바 있다. 시조나 김소월시나 그리고 이상 시가 보여주는 종장형의 3음절 고정 탄구는 대립된 리듬의 관계를 합치는 흥겹고 우렁찬 절대의 소리로서의 정격음조 및 정격 율 및 정격 음수이다. 이것은 우리들 자신이 본래부터 지니고 살아온 무의식의 심층탐구에 깊이 들어있는 의식구조로서 음향의 화합으로 보던 혹은 이퇴계가 말하는 이와정의 대극적인 합일이던지 모두 반대 혹은 상응의 원리가 지니는 우주적 음위율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에 의해 이상 시와 시조의 율격의 같음을 도해한 것

. 이상 시와 전통시를 같이 논할 수 있는 이상 시의 전통성을 찾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 우리의 율격, 우리의 전통 소리는 하늘에 닿아 있고 그 뜻도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의 그 고유한 호랑이 많던 시절을 일제가 다 호랑이를 죽였으나 한국이 아직 살아 있듯이 잠재된 대한민국 그 심층 밑바닥에 그리고 한국고유의 음식이 있듯이 우리는 살아 있다. 한국의 삼한 사온이 가지고 있는 기후

오묘한 진리를 시조도 가지고 있고 이상 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시도 가지고 있다. 천치만물을 보고 하나님 뜻 헤아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우리 시이다. 그리고 이상 시의 전통성이다.

대립의 합이 존재한다. 한국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상응의 원리가 시조 3장 종장 첫 분절의 우렁찬 소리이고 이와 대립 혹은 상응되는 끝구는 허사 리듬을 가진다.

전통성의 리듬 근거는 시조의 원리와 이상 시에서 발견된 동일 리듬과 그 율격들이다. 오감도의 시제 호 들에 대한 대립적 리듬과 조화의 리듬은 이상 시의 율격에서 논한바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전통성과 연계시킨다고 할 때 전장에서 보아온 황진이시조와 동일음위율에 있다. 이상 시의 이러한 리듬체계는 물론 오감도가 전통 시와는 다르지만 오감도에서 전통성은 발견된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3개의 구분과 함께 오감도는 시조의 초·중·종장에 관한 관계와 같다<sup>1)</sup>고 할 수 있는 논증과 일치한다. 그리고 특히 시제9호에서 감탄의 경지인 감탄사의 예들과 같은 전통 시의 특징<sup>2)</sup> 들은 비단 시조 종장의 ‘아이야’ ‘어즈버’ 같은 음위 율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시가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

1) 이영지, 「시조의 초·중·종장에 관한 연구」 『시조문학』, 1985. 여름호.

2) 이영지, 「이상의 시 오감도의 구조」 『국어국문학 93』 국어국문학회, 1985., 329~ 365 참조.

## 4. 오감도의 전통성유추

## 1). 대립적 율격과 조화의 리듬

둘째의 의미단락들이 대립되거나 상응되는 우리의 시가들은 그 유사성이 발견된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이들을 합하거나 어느 한 쪽을 택하는 조화의 리듬이 되는 이것은 한국시의 기본원형이다.

황진이 시나 이상 시나 소월시 만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단순론을 벗어나기 위해 지면관계상 간단히 우리의 전통시성을 다른 시가에서 찾아본다. 편의상 대립이나 상응리듬을 ① ②로 표기하고 제 3의 조건 화합이나 감탄, 그리고 조화의 리듬을 3이라 해본다.

고시가들에는 「처용가」를 비롯하여 「쌍화점」 「청산별곡」 「용비어천가」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도 우리의 전통의식인 시조작품다운 내재율이 있다. 이들은 처음 행과 다음 행이 서로 나란히 놓이는 병치관계를 가진다. 혹은 처음 행과 다음 행이 치환율을 보이는 예도 있다. 이 치환법칙은 다른 언어로 바꾸어 놓는 경우에 해당된다. 가령 예를 들면 ‘그 여자는 달이다’라던가 ‘하늘이 꽃이다’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특수하게 개인의 정서가 반영된다.

이들의 언어가 합쳐져서 시다운 효과를 드러내어 정서감각을 높이 평가하게 된다. 우리 시가에는 이러한 언어들로 바꾸어 예로부터 정서적인 민족임을 자랑해 왔다. 달 속에 토끼가 산다고 믿는 정서 등이 그 예이다.

2). 고시가들

(1). 처용가

- ① 식불불기드래 밤드리 노니다가
- ② 드러내 자리를 보니 가르리 네히로라
- ③ 아으 들흔 내 해여니와 들은 뉘해어니오

(2). 「쌍화점」

- ① 쌍화점에쌍화사라ᄃ신딘
- ② 회회아비ᄃ손모글주어이다
- ③ 이말숨미이점밧기나명들명

...

다로러디러쪄고맛감삿기광대내마리라호리라  
 디로러기자리에나도자라가리라

(3). 「청산별곡」

- ① 살어리살어리랏다    가던새가던새본다    살어리살어리랏다  
 청산에살어리랏다    물아래가던새본다    바르레실어리랏다  
 멀위랑드래랑먹고    잉무든장글란가지고    느ᄃ자기구조개랑먹고  
 청산에살어리랏다    물아래가던새본다    바르레실어리랏다
- ② 우러라우러라새여    이렇공더렁공하여    가다가가다가드로라에  
 자고니러우러라새여    나즈란디내와손더    정지가다가드로라  
 널라와시름한나도    오리도가리도업슨    사스미짚대에올아서  
 자고니러우니노라    바므란쑤엇디호리라    계금음혀거를드로라
- ③ 어디다더디던돌고    ...    가딴니빅브른도기  
 누리라마치던돌코       설진강수를비조라  
 피리도괴리도업시       조롱곳누로기믹와  
 마저서우니노라       잡스와니내엇디ᄃ리잇고

(4). 「용비어천가」

- ① 해동 6용이 느르샤 일마자 천복이시니 고서이 동부ᄃ서니 1장
- ② 불휘기픈남근 브르매 아니 그츨씩 곳도코 여름하느니

기쁜 무른 그대 아니 그늘씩 대히 이러바라래 그네니2장  
 주국대왕이 유곡에 사라샤 제업을 여르시니  
 우리 시조이경흥에 사라샤 왕업을 여르시니 2장

...

주주정학이 성성에 불그실씩 이단을 배척르시니  
 상계사설이 죄복을저히 읍거든 이 뜨들 닛디 마르쇼서 124장  
 ③ 천세 우회 미리 정호산 한수북에 누인개국호샤 복년이 궁업스시니  
 성신이 니스샤도 경천동민호샤새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라쇼서 욱수에 산행 가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125장

①에서 밤이 늦도록 달고 눈 높은 세계를 이미지로 하고 있고, ②에서는 그와는 정반대인 세계의 현실적 비참함이 드러나고 있으며 짚대에서는 신적 자세로 이를 초극하려 한다.<sup>1)</sup> 쌍화점은 ①에서 쌍화를 사러간다는 순수한 목적론이 대두된다. ②에서는 그 목적과는 다른 율격의 현실적 실상이 보이며 ③에서는 이에 대한 현실 세계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의 조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산별곡도 ‘청산, 새, 바르, 머루, 구조개’의 시어가 주는 이미지와 관련되면서 인간이 현실을 떠나 이상향으로 가고 싶은 욕망과 그 꿈 실현과정까지 표현되고 있다. 그렇지만 ②와 같은 현실 세계에서는 시름, 울음, 오리도 가리도 업슨,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는 삶의 고달픔과 고독이 있다. 인간 실존의 중요함이 되겠고, ‘실진강수를 비조’ 권하는 ‘비브른독’의 여인과 어울리는 삶의 조화이다. 한국시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를 ③에서 완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끼리 어울리는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화리듬을 찾아

1) 일연, 『삼국유사』 (서울: 민중서관, 1957), 58. - 그대의 아내를 부러워한 나머지... 그대는 성념이 없으니...

여중동, 「고려처용노래연구」 『가료여요연구』 (서울: 정음사, 1980), 439: 처용이 스스로 물러섰다.

수 있다. 이것은 이상 시나 시조 같은 음위율에 있다.

용비어천가는 제1장부터 제125장까지 되어 있다. 제 1장은 시조의 초장과 같은 리듬을 지니고 있고 제2장부터 제124장까지는 초장·중장의 리듬을 지닌다. 그리고 제 125장은 초·중·중장의 형태로 되어 있다. 특히 제3장부터 124장은 초장이 중국고사의 내용이고 중장은 이조사의 내용을 적고 있음으로써<sup>1)</sup> 중국과 이조의 대립적 율격관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125장은 초장의 초구 ‘님금하’와 같은 3장의 구체적 리듬구조 때문에, 용비어천가는 ‘님금하’에 관한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용비어천가가 이어져서 한국시의 미적 리듬의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sup>2)</sup> 즉 ① 초장 ② 초·중장 ③ 초·중·중장의 리듬구조에 있다.

제 3장부터 제 124장까지의 의미적 리듬은 처음의 중국사 전개, 가장 바람직한 의미의 리듬으로 조명시켜 놓았고 둘째 행의 경우는 현실적 이조역사의 당연성을 의미의 리듬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 125장에서는 시조의 중장 초구처럼 감탄사 ‘님금하’를 음위율로 놓고 있어서 용비어천가가 전통적 맥락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문학의 특징은 신라시대 있었던 삼대목의 리듬에 준한다.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전통리듬이다. 그것이 시이든 혹은 시조이든 그리고 의미의 분류이든 아니면 내용상의 분류이든 그 흐름은 이 삼대목 흐름에 준한다. 흐름의 내면에 흐르는 리듬의 강물은 여전히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적 리듬으로 이어진다. 묵은 역사만큼 값어치 향기가 짙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존한다.

1) 허용주해, 『용비어천가』(서울: 정음사, 1979), 참조.

2) 장사훈은 전장이 시조형식으로 되었다고 하였음.

### 3). 오감도 시제 호의 삼분 리듬

지며 깊숙이 숨어 있는 듯한 우리의 문화는 어느 순간엔가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일어나 살아난다. 그토록 시골을 떠났던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참다운 우리의 음식문화를 시골 깊숙한 마을에서 찾아낸다. 기정 대표적인 문화의 양상들은 그대로 남아 음식이며 옷이며 생활에서 우리의 건강을 찾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역사 기간이 5천년을 넘기 때문이다. 이어져오는 우리의 멋은 자연이 아름다운 만큼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 유지되어 온 비결이 된다. 그 매력은 3구분의 매력이다. 그 뚜렷한 구분은 천 · 지 · 인의 조화이다. 이상시 오감도는 셋으로 구분된다.

전통시의 리듬이 처음과 둘째 리듬이 대립이나 상호 상응하는 리듬이고 세 번째의 리듬이 조화의 리듬이라면 어디까지 이 리듬이 세분가능한지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오감도의 시한 문장에 따른 대립 혹은 상응요소 그리고 조화의 리듬을 알아 볼 수 있다.

다음은 의미리듬의 3분 리듬의 예이다.

제 호	의미적 리듬
① 13인의아해가도도로질주하오	살려는 본능의식
②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무서움
③ 제13의아해는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	①과 ②의 조화리듬
① 그중에1인의아해가무서운아해라도좋소	무서운아해의 힘
②그중에2인의아해가무서워하는아해라도좋소.	무서워하는아해



아해가 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종소 ①과 ②의 해결

- ① 아버지가나의곁에서조을적에나는나의아버지 아버지가 뉘
  - ②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 현실
  - ③ 나는왜...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 ①과 ②의 결과 조화리듬
  - ① 싸움하는사람은즉싸움하지아니하던사람이 사람의 정의
  - ② 싸움하는사람이싸움하는구경을하고싶거든 현실성
  - ③ 사람이싸움하지아니하는것을구경하든지하였으면그만이다
- ①과 ②의 절대가치가 된 조화리듬

- ①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 환자를 고쳐야 할 순수한 문제
- ②..... 치료과정
- ③ 진단 0.1. 26. 10. 1931 이상 책임의사 이상 완치
- ① 전후좌우를계하는유일의흔적에있어서 존재의 흔적
- ② 익은불서 목대불도 부부의 일상성
- ③ 장부라는것은침수된축사 ①과 ②의 현실적 조화리듬
- ① 이소저는신사이상의부인이나그렇다 사전적 의미의 부부
- ② 저기가저기지 나 나의 이 너와 나 거리감
- ③ 그러나과연그렇른지그것조차그렇른지 믿음
- ① 영원적거의지의1지에피는현화 상대방에 의하여 빛나는
- ② 적거의지를관류하는일봉가진, 헌신
- ③ 천량이올때까지 ①과 ②의 조화리듬, 기다림
- ①평면경에수은을현재와반대측면에도말이전 수술목적의 순수성
- ②시험담임인은피시험인과포함할절대금함 ①의 리듬, 금기사항
- ③ ETC(아직그만큼축할만한결과를수득치못하였음 수술결 좋지않음
- ① 야외의진공을선택함위선마취된상지의첨단 진공세계에서 수술
- ② 연하야수은주를재래면에도말함 ①의 옮겨그 병의 재발.
- ③ ETC 이하미상 ①과 ②의 결과미상
- ① 매일같이열풍이불드니드드녀내허리에 분위기조성
- ② 그러드니나는총쏘오듯키눈을감이며 일상성
- ③ 참나의입으로무엇을내여배앗혔느냐. 감탄
- ① 찢어진벽지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 나비를 봄
- ② 날개축쳐어진나비는입김에어리는 ①의 사는 방법
- ③ 이런말이결코밖으로새어나가지는 ①과 ② 조화, 재생의 비밀

그사기킵은내해골과흡사하다

사물의 님은꼴

- ② 그팔에달린손은그사기킵을번쩍들어 ①의 율격, 사물과의 파괴
- ③ 그러나내팔은여전하고그사기킵을사수한다 ①과 ②의 지속리듬
- ① 때물은빨래조각이한몽텅이공중으로날아 발래조각의 정체
- ② 흰비둘기의떼를때려죽이는불결한전쟁이시작된다. ①의 음위율
- ③ 또한번이손바닥만한하늘저편 ①과 ②의 조화리듬, 평화선전
- ① 내팔이먼도칼을든채로뿔어져떨어졌다. 파괴자의 결과
- ② 무엇에몹시위협당하는 것 ①의 음위율, 죽은자의 무력
- ③ 나는이런얌다란예의를 ①과 ②의 조화리듬, 산자의 우월감
- ① 고성앞풀밭이있고풀밭위에나는네모자를 벗어놓았다. 자유추구
- ② 공중을향하여놓인내모자의깊이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 ③ 싸늘한손자국이낙인되어언제까지지워지지않았다. 역사

- ① 1 4  
2 2
- ② 3 5  
4 8
- ③ 5 2  
6 4

마침표의 특징. 앞의 호들과는 다른 일탈의 리듬  
3분되고 있음

① ② ③은 각기 ①에서 이상이나 꿈 혹은 초월을 상징하는 음위율의 동일성에 있고, ②에서는 현실 혹은 일상성의 일들이 상징되는 음위율의 동일성을 보인다. ③에서는 ①과 ②의 상징들을 결과로 만들거나 합하거나 혹은 선택하는 조화의 리듬에 있다. 그러면서도 ① ② ③은 각기 오감도 시 제 1·2·3·4가 ①이 되고 5·6·7·8호가 ②가 되며 3은 ① ②를 조화의 리듬에 있게 하는 동일 음위율에 있다.

아주 어긋나서 서로 다른 의견의 차이에도 여전히 조화를 갈구하는 한국국민의 심리 리듬은 셋으로 갈라지며 그 특징을 뚜렷이 한다.

## 4). 리듬의 의미 중량

우리에게는 지금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 신비한 삼대목이 있다. 천년의 세월을 지난 신라시대의 역사를 셋으로 구분하였었다. 그리고 시조 3장이 있다. 삼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슬기로운 바로 몇 천 년까지 내려오는 역사가 증명한다.

오감도가 지니는 3분의 신비는 전통시가 지니는 3분의 신비와 같은 동일 음위율이다. 이것은 시조가 필히 3장의 리듬일 때 그 비밀을 논리화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소월의 시적 신비가 시조의 리듬에 있는 것<sup>1)</sup>과 같이 오감도의 시대를 초월한 시적 신비도 전통성의 음위율에 있다.

오감도와 소월시의 특징은 3분의 리듬이되 2분의 리듬으로도 되는데 있다. 즉 처음과 둘째의 구분은 대립리듬이라는 특징에 의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본질적 원리에 있다. 그리고 이의 힘을 이루는 조화의 리듬은 세 번째에서 있기 때문에 2분의 리듬이 되게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동일리듬으로 시조의 초·중장의 동일리듬과 중장의 리듬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말은 처음이 짧고 뒷말이 긴 3:4음절 형태를 지닌다. 주어와 술어의 관계로도 볼 수 있으며, 고려속요의 3음보음절은 시조의 초·중장의 상징적 자수율에 해당한다. 리듬의 조화를 상징하는 정형률은 전통시의 리듬, 초장 3·4·3·4, 중장 3·4·3·4, 종장 3·5·4·3<sup>2)</sup>이 그것이며 이 표시의 음수율 리듬체계는 각별한

1) 조창환, ① 「소월시의 구조」 『국어국문학91』 국어국문학회, 1984, 250, ‘계승과 발전으로서의 전통’ 심상, 1980. 9. 참조.

2) 『국어대사전』 (서울: 현문사, 1976).  
『표준국어사전』 신기철·신용철 편(서울: 1958).  
『김남석, 『현대시론』 (서울: 오성출판사, 1958).

갖는 것<sup>1)</sup>이다.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징적 자수율의 리듬은 다음과 같다.

진본청구영언<sup>2)</sup>

초장·3·4·3·4 중장·3·4·3·4 종장·3·5·4·3

② 가람시조집<sup>3)</sup>

초장·3·4·3·4 중장·3·4·3·4 종장·3·5·4·3

③ 노산시조집<sup>4)</sup>

초장·3·4·3·4 중장·3·4·3·4 종장·3·5·4·3

④ 노산시조선집<sup>5)</sup>

초장·3·4·3·4 중장·3·4·3·4 종장·3·5·4·3

④ 푸른하늘의 뜻은<sup>6)</sup>

초장·3·4·3·4 중장·3·4·3·4 종장·3·5·4·3<sup>7)</sup>

조사 한 바 시조의 자수율은 주어와 술어가 가지는 접미사 따라붙은 자연리듬이다. 우리의 자생 리듬이다. 한국의 자연 자수는·3·4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시조 어느 한 수보다는 무의식의 집단의식의 상징적 리듬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조운과 춘원<sup>8)</sup>과 노산의 3장 12구설도 한국 언어의 리듬인 관계를 이해한

1) 한계전은 한국근대시론형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학위논문, 1983., 30)에서 한국시의 리듬은 자수율 이외에 다른 어떤 리듬의 요소도 기대할 수 없다 하였다.

2) 『진본청구영언』. 정주동, 유창식 교주.

3) 이병기, 『가람시조집』(서울: 백양당, 1974)

4) 이운상, 『노산시조집』(서울: 한성도서회사, 1932).

5) 이운상 『노산시조선집』(서울: 남경문화사, 1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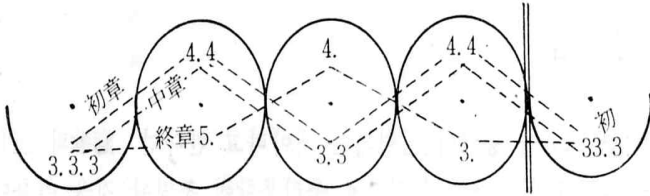
6) 이운상 『푸른하늘의 뜻은』(서울: 금강출판사, 1979).

7) 이영지, 「노산시조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125~139.

8) 이광수, 「시조의 자연율」 동아일보, 1928. 11.2~7.

정형이비정형비정형이정형<sup>1)</sup>론이 되었다. 한국의 오랜 역사  
 성에서 생성된 집단무의식의 음수율은 소중한 리듬관계이다. 정  
 형의 율이 그대로 지켜진 시조가 적다고 하는 문제와는 무관한  
 원형 논리<sup>2)</sup>로 이해되어야 한다. 전통시가 지니는·3·4·3·  
 4/·3·4·3·4의 초장 중장의 배열은 동일 숫자의 반복이지  
 만 대립관계이거나 상호 상응관계이다. 이는 정형시가 지니는 4  
 대법에 해당하고 종장에서 이를 마무리 짓거나 함함을 의미한  
 다.

리듬의 선으로 연결하여 본다.



음위율로 놓아본 숫자의 리듬은 초·중장이 동일계열이 되고  
 종장은 그 반대의 리듬으로 끝난다. 이 리듬은 시조의 3장안에  
 2분이 내재하는 안정성이다. 이 리듬은 시조의 3장안에 2분이  
 내재하는 안정성이다. 오감도의 시제 1~5 시제 2~6 시제 3~  
 7 시제 4~8호가 음위율로서 첫째마디, 둘째마디, 셋째마디, 넷  
 째마디가 되며 시 제9호가 세 번째 첫째마디 10 11 12호가 세

1) 이은상, 「시조단형논의」 동아일보, 1928. 418~25.  
 2) 자수율 3·4에 대한 신비는 애서도 언급되고 있다. 은 3이 남성, 4가 여성이라는  
 것은 만다라 상징이라 하였고, 서아프리카에서는 남자=3 여자=4이며 대서양에  
 서는 단원자로 남자=4, 여자=3, 그리고 북에서는 남자=3, 여자=2로 되어 있다.  
 남자가 달로 되면서 그 수가 3이고 여성은 태양으로 그 수가 4를 상징한다. 고  
 대 언어에서는 여성이 달이고 태양은 남성이다. 그것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설  
 명되는 것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3은 양수이고, 하늘이며 4는 음수이고 땅이다.

둘째마디 13, 14호가 셋째마디, 15호가 첫째마디이다. 시조가 지나는 리듬과 동일음위율이다. 따라서 이것은 시조가 양장 시조가 될 수 있는 리듬과 같다. 이상 시와 소월시 그리고 황진이 시조의 동일음위율이다.

오감도 15편의 기본구조는 반복구조·분리구조 그리고 통일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구조의 특징은 반복·분리·통일성으로 전개되면서 전혀 다른 새로움으로 변이되어 간다.

1·2·3·4호의 반복구조는 시어·시행의 반복에 따라 아해의 탄생·새로운 아버지·싸움 아니하는 사람·거꾸로 된 숫자가 거꾸로 된 숫자와는 관계가 없는 0에 이르는 결과가 되고 있다.

5·6·7·8호의 분리구조는 통합성에서 분리의 결과가 전후좌우 방위는 남·여의 구별로, 2필은 나와 너로·우주내의 독립된 개체들·해부의 분리가 되면서 분리 그 자체가 끝없이 이어지는데 있다.

9·10·11·12·13·14·15의 통일구조는 형식상의 통일성이 되면서 시제로서 현재형이 된다. 과거·현재·미래가 영원한 현재로 되는 관계에 있고 긍정의 변증법적 통합이 되는 3분적 통일성의 전체성에 대한 이해이다. 따라서 오감도의 반복구조와 분리구조와 통일구조의 관계는 통일구조가 반복구조와 분리구조를 다 포괄하는 관계에 있다.

구조의 상관성을 보면 반복구조와 분리구조는 대립 관계에 있고, 통일구조는 결합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결합 관계가 된다. 대립 관계는 1호와 6호가 확대와 수축·2호와 6호가 상승과 하향·3호와 7호가 성과 속·4호와 8호가 피안과 일상의 관계에 있다. 대립 관계는 전연 결합성이 없으나 반대로 9호에서 15까

상반된 비유사성에서 오히려 결합적 논리성과 조화에 귀결 되는 것이다.

오감도의 신화 상징은 초월 상징과 일상의 상징·회복 상징으로 되어 있다. 1·2·3·4호의 초월 상징은 1호에서 아해가 무서움을 완전히 퇴행시키는 아해·영원히 사는 아해·무서운 집단의 힘을 발휘하는 아해·막다른 골목을 뚫린 골목으로 만드는 아해로 상징된다. 2호의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삶의 무한한 자각의식·영원히 살아있는 아버지·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애를 가지는 아버지·신적인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 되고 있다. 3호의 사람은 싸움에서 이긴 사람·인간성숙의 가을 상징자로 되어 있다. 4호의 책임의사는 절대 능력자·삶을 지속시키는 자·온 인류를 고치고 온 사회의 병든을 바로 잡아주는 자·의술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자로 상징된다.

이와 같은 초월 세계의 상징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들의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 오해되는 오감도 1·2·3·4호가 그와는 다른 절대성으로 변하여 절대를 상징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사람이 그의 영역을 열심히 받들어 섬겨서 하늘의 상징적 자리까지 올라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영웅의식이 된다. 이것은 시 제목이 구태여 효조의 상징인 오鳥로 되어야 하는 이유와 같다. 오鳥는 열심히 받는 기본 원리에 있으며 드디어는 감櫛의 위에서 굽어보는 위치까지 이르는 상징인 것이다. 이것은 천혜天惠이며 또한 인간의 꿈이 이룩된 상징성이 된다. 이것은 신적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5·6·7·8호는 일상적 세계를 상징한다. 특히 5호에서는 자아를 상실한 아我·흔적을 위한 인간의 노력·숨을 곳을 찾는 순환성을 거부하는 아我로 되어 있다. 6호에서는 인간이 인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 빗어지는 고립과 거꾸로 추방을 당하는 인간의 억울함 혹은 두 대상의 서로 소원한 관계와 그리고 역전의 가을이 상징된다. 7호에서는 수술의 반복과 불완전한 인간의 특징들이 애정 모랄의 붕괴로 상징되어 역전이 영속적일 수 없음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일상적 세계의 상징은 통합 · 합일 · 대응의 상징인 전후좌우 · 이필 등의 상징적으로 분리되면서 고정되어 서로 대응되지 못한 두 사람의 대립 관계를 비극으로 상징하는 것이 된다. 일상의 상징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한 인간의 좌절과 절망이 되어 있다. 그 이유의 주된 원인은 시의 표현으로 보면 남성 이 여성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상징성이 반영되지 않은데 그 비극이 있다. 이 뜻은 윗사람 혹은 신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비극임을 상징한다.

9호에서부터 15호까지는 회복되는 세계를 상징한다. 9호에서 나는 철저히 인간적인 자아를 회복하고 있다. 존재의 귀함에 참여하여 절대자를 향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봄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장 인간적인 나의 회복 상징은 10 · 11 · 12호에서 인간이 지닌 것을 대상에게 부여해 줌으로써 대상을 절대적으로 소유하며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상징되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회복 상징은 봄 · 여름 · 가을의 세 계절 특징과 부합되는 나비 · 홍수 · 하늘의 시어를 통해 이상이 추구하는 세계는 밝음에 있다.

우리 역사의 밑바탕에는 늘 밝은 마음이 문학을 드러난 예를 보여준다. 그러기에 혁거세도 밝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뜻이 란. 밝음 사상은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온 삶의 철학이다. 오랜 역사를 지켜오는 비결로서 긍정적인 마음의 결과이다.



## 5. 회복

회복 상징은 결실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는다.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곧 자기에 대한 애착이다. 낙엽을 보면서도 다음의 봄을 기다리는 일이 13·14호에서 드러난다. 가을낙엽의 애잔함이 있는 한국의 가을은 한국특유의 사계절을 중에 한 계절이다. 이에 비유되는 사람을 회복의미로 다루고 있는 오감도의 회복 상징은 15호에 있다. 인간은 나약하지만 신의 은혜로 불사조가 될 수 있음을 상징한다. 나약한 한 인간이 지상에서 살아 있는 것은 15호를 통해서 절대자의 뜻이 있어서이다. 이것은 가장 귀중한 인간의 의지가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이나 조화를 전제로 하여 생기는 것임을 상징한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에 따르면 실제 인간이 유한의 존재여서 완전한 회복이나 완성의 존재일수 없으면서 시를 통해 신화적 상징체계를 이룩하는 이상 시연구의 제1부에서 시도하였던 네 관점 자기·혈연·정신적 혈연·천연의 관점에서 입체적 유기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 자기의 측면

#### \* 초월의 세계.

- ① 사람이 그의 어두운 내면을 이기려고 무서움을 퇴행시켜 버리고
- ② 신의 위치까지 상승하며
- ③ 자기완성의 인간으로 변화하여
- ④ 그의 정신과 육체를 치유하고 있다.

#### \* 현실의 세계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의 몸을 보호하려하며

- ⑥ 어울린 그의 대상이 그를 거부하여도 상대자를 믿으려 하고
- ⑦ 서로 다른 이성과도 어울리는 동안 죽음의 지경까지 가며
- ⑧ 그때 얻은 병을 고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 회복 세계

- ⑨ 서로 다른 이성이 어울릴 때의 감탄

\* 순수 세계

- ⑩ 재생이며
- ⑪ 지속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 ⑫ 평화의 지속이라 할 수 있다.

\* 현실 세계

- ⑬ 산자의 기쁨으로
- ⑭ 고통 속에서도 살아 있다는 현실성이 있다.

\* 현실 세계

- ⑮ 꿈을 가진 인간은 끝내 죽음을 면하게 되는 신의 뜻이다.  
따라서 시제1호와 같이 인간은 이 지상에서 존재한다.

#### 나. 혈연 -인간의 지속적 문제- 적 측면

\* 초월을 상징하는 세계

- ① 무서운 아해 13인은 살아남으려 통과의례를 거쳐야 하고
- ② 혈연관계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 역할을 불가피하며
- ③ 이는 성스러운 혈연체이기도 한데
- ④ 구체적으로 늙고 병든을 이긴다.

\* 현실을 상징하는 세계

- ⑤ 인간은 그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인간 창조행위를 하며
- ⑥ 이성이 헤어질 때 혈연의 지속과정은 위협을 받게 된다.
- ⑦ 다른 두 몸이 어울리는 긴 세월은 혈연이 지속되는 조건이며

병을 고치려고 하면서도 어울리는 가운데 혈연은 이어진다.

\* 회복을 상징하는 세계

⑨ 이성의 결합은 혈연지속의 뿌리가 되는바

\* 순수의 세계

⑩ 혈육의 제2탄생을 약속하는 것이며

⑪ 인간의 몸체를 사수하는 것이며

⑫ 혈연의 집단적 공간을 평화적으로 지키자는 것이 된다.

\* 현실의 세계

⑬ 삶의 지속체는

⑭ 그 역사성으로 보아 쉬운 것이 아니다.

\* 회복의 세계

⑮ 사람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신의 뜻이다.

시제 1호에서와 같이 사람은 이 지상에 살아남는다.

다. 정신적 혈연 -꿈의 지속적 문제-의 측면

\* 초월을 상징하는 세계

① 서로 다른 정신적 혈연체가 결속하여 무서운 힘을 발휘하여

② 옳은 길에 대한 정신적 대부 역할을 하며

③ 성 집단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된다.

④ 이것은 병든 사회를 완전히 고쳐가는 정신의 원동력이 된다.

\* 현실을 상징하는 세계

⑤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 인간은 숨어서 해로움을 멀리하고

⑥ 서로 다른 두 개체가 정신적 결합을 가진다는 것은 어렵지만

⑦ 사실은 인간 애정이 삶을 풍부하게 하고

⑧ 어둠을 끊임없이 고쳐가는 노력이 수반된다.

\* 회복을 상징하는 세계

⑨ 정신적으로 혼연 일치하는 기쁨은 인간 회복의 상징이 된다.

\* 세계

- ⑩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재생에 대한 믿음과
- ⑪ 정신적 신님의 중요성은
- ⑫ 평화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이룩하는 승리적 감탄이 있다.

\* 현실의 세계

- ⑬ 삶의 의미란 삶을 지각하는 기쁨이고
- ⑭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이 된다.

\* 회복의 세계

- ⑮ 인간의 꿈은 영원 불사 성질을 지니고 있다. 소멸될 수 없다.

라. 천연적 측면

\* 초월을 상징하는 세계

- ① 어려운 삶의 환경을 무서운 아해는 뚫어 나가고 있으며
- ② 만물의 영장이 되어 있어서
- ③ 그 모습은 우주적 상징인 원의 세계이며
- ④ 천연을 지배하는 인간이 된다.

\* 현실을 상징하는 세계

- ⑤ 어두운 곳에 숨는 것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며
- ⑥ 인위적으로 어울린 인간은 결코 합해 질 수 어 없다.  
천연의 본 모습일 뿐이다.
- ⑦ 서로 어울린 짝은 서로 그의 생을 밝게 비춰주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며
- ⑧ 밤의 일들을 낮은 치우한다. 밤과 낮의 상징성이다.

\* 회복을 상징하는 세계

- ⑨ 천연의 진리는 대립된 두 개의 세계가 화합하는 데 있다.

\* 순수 세계

천연 물질 이슬은 재생의 상징이며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다.

⑪ 천연은 두 개의 대립된 세계를 가진다.

인간은 그 중 하나를 사수한다.

⑫ 하늘은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평화의 상징적 세계이다.

\* 현실의 세계

⑬ 삶과 죽음의 의미는 인간이 그 의미를 부여함에 있으며

⑭ 천연의 질서에서 밤의 이미지도 하나의 역사성이 된다.

\* 회복의 세계

⑮ 천연의 대극적 관계를 다스리는 것은 신의 뜻이 된다.

따라서 시 제 1호에서와 같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네 관점으로 분석하여 보았는데 이상에게 자아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신은 용서해주신다는 시의 이미지다.

처음 혈연관계나 생명지속성의 문제는 인간이 그의 혈연들을 스스로 버림으로써 죄의식이 있게 되고 그래서 자살까지 하려 하지만 신의 뜻에 의해서 영원히 지상에서 살게 되는 상징으로 된다. 정신적 혈연관계는 좌절과 불안의 고통을 겪고서야 불사조적 정신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인간과 대상과의 관계는 삶에서의 어려움 혹은 자연을 부정하는 결과로 얻어지는 어둠 · 낙망 · 부패 · 금지이지만 신은 살려준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볼 때 본 문제제기의 첫째 시제 1호에서 시작하여 15호로 끝난 점은 결코 의미 없는 연작시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하나로 되기 위한 연결인 동시에 부분은 부분대로 존재의 의미가 있다. 둘째 서로 대응되며 시어의 특성은 시제 1호에서 15호까지 그리고 15호에서 1호와 연결되면서 가장 에로틱한 문학적 특징을 통하여 상당한 철학과 영

상징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구성의 차원을 넘어선다.

또한 셋째의 문제제기한 독자들의 반발과 비난으로 중단된 오감도에 대한 구구한 억측은 그것이 완성된 작품이면서도 작가가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작가의 정신에 있게 된다. 넷째 많은 글자 중에서 왜 하필 ‘오’와 ‘감’으로만 제목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은 뜻 글자인 한자 ‘오’가 까마귀의 뜻 이외에도 효조로서 인간과 밀착할 수 있음에 유의하였고, 특히 이에 그치지 않고 ‘감’자와 결부시켜 역시 문학적 표현으로는 남, 여의 관계 위아래라는 이미지로 시작하여 이 세상의 모든 대립이나 대응의 원리에 천착해 있다. 이것은 하나는 모든 것과 통한다는 상징성으로 부각된다.

다섯째 문제제기한 문학관에 대한 아류적 논의를 벗어날 때 작품은 작품으로서 숨은 내용이 밝혀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상 문학에 대한 시사적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된다. 주변적인 역사나 환경 혹은 자아부정의 인간으로만 결정하는 오류는 한국문학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 절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어느 작품이나 마찬가지로 특이 오감도 어느 호 하나만으로 이상 문학이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감도는 가장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인간 이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의 불우했던 사생활과는 관계없이 한 인간의 신화적인 꿈들을 작품화함으로써 문학작품이 일상을 승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 시 연구를 통한 몇 가지의 시학적 조명을 하여 보려고 노력한 결과 첫째 시어의 대치를 들 수 있는데 보편적 언어가 놓이는 산문성을 벗어나서 가장 반대의 시어로 하는 시어의 대치를 들 수 있다. 바로 긴장언어로 바꾸는 일이다. 이 두 개의 상이한 의미개념은 이 세계가 온갖 대립자로 나누어지면서도 하

될 수 있는 상징성을 의미하여서 시어의 긴장체계는 대극의 시어를 통해 이 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시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심리적 참여로 볼 수 있다. 즉 대상의 대극적 관계에 상관없이 심리적 언어로 바뀌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시의 애매성을 들 수 있는데 언어가 시에서 시적으로 대치되는 현상의 굴곡이 심할수록 현대시로서의 특징이 된다. 이것은 이상 시의 난해성이 되기도 하는데 시어의 대치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간혹 쓰이는 진부한 보편적 개념의 시어로 시의 진의를 찾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 시는 이러한 다양한 병치 관계의 시어구조 때문에 입체적 논리를 가능하게 하며 이상 시의 입체적 특징을 이해하게 된다. 이 대립성의 조화는 이사시의 분리 및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구조- 시적 표현-가 하나로 통일-시- 되기 위하여 각기의 위치에 있으면서 만나 시의 비문법성이 된다. 즉 시의 대중적 시어와 시인만의 마음의 시어가 같은 시내에서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결과가 된다. 대중적 언어를 한껏 축소시킨 이상 시는 이 세계에 대한 비극적 실존을 극도로 시화하여 감미롭게 하는데 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로 인한 시의 흥미위주의 에로틱성은 자극의 감미로움이 문학의 본질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상 시만의 창조성은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있는바 이상 시라면 떠오르는 이상 시만의 특이한 문장을 만들고 있다. 또한 시행이나 시어의 반복이 잦거나 띄어쓰기가 무시되는 것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상 시 리듬의 창조성인 사시옷 자음의 선호도가 높음에 있다. 그리고 이상 시는 종결문장의 허사 리듬은 끝 구절이나 끝 문장을 무의미하게 놓아 시가 극단의 압축과 암시로서 시의 본질을 지켜가지만 시 본질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시의 끝에서 다시 한 번 놓이는 아름다움으로

이상 시가 지니는 현대시적 특징은 아이러니에 있다. 이를 이미지의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상승 이미지에서 그리스트가 그의 몸을 희생하는 기독교 순사를 이상화 동격화하고 신=인간의 등식까지 성립시킨다. 하향 이미지는 절름발이의 불균형적 비극성을 지적할 수 있는 데 이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상 특유의 에로틱한 표현이 사실은 거리가 먼 것 곧 단절의 논리를 역설한다. 이것은 상반된 세계를 의미하기 위해 이상이 가장 큰 비극으로 본 현대적 특징이 되는데 이 절망만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제시한다.

유추적 이미지의 순수유추는 님의 뜻이 되는 대치어로 거울, 꽃, 여자 등을 쓰고 있는데 직접적 경험의 세계보다는 만나보기만 하면 되는 황홀한 꿈의 대상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꿈의 세계는 직접적 경험이 될 수 없는 아이러니를 지니면서도 끝까지 탐색하려고 하는 이상의 몸짓이 투영되고 있다. 그 끝없는 노력은 이성유추에서 드러나는데 이상은 왕과 같은 자의 역할을 다 하려는 영웅 심리로 오감도를 통해 상징한다. 이 이미지는 이상 시의 경우 경험으로 얻어진 시의 세계가 아니라 순수 상상에서 얻어진 시이다. 그 증명은 모든 시인들이 그들의 경험유추로 시를 짓는데 반하여 이상은 순수를 통한 시로 접근한다. 즉 일찍이 경험하였던 죽음의식을 어느 지점에 설정하여 놓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 시계시간을 파괴하여 멈추어 버린다. 그리고는 정반대의 아이러니로 접근하면서 회복은 신이 살려주는 것을 상승이미지의 무한한 점표시를 통하여 한다.

이상은 그의 시를 통하여 리듬 배열관계 및 3분의 구분 어느 것 모두 단절의 논리를 접근시키면서 현대적 감각의 시를 쓰지만 역설을 통하여 회복을 꾀하는 아이러니 세계를 보여준다. 음



리듬의 선도 과학적 리듬과 심리적 리듬이 정반의 관계에 놓이면서 현대시, 특히 도시문명의 메카니즘적 이상 시의 표현은 오히려 그 상반된 세계를 심도만큼 추구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조화와 만남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 시의 아이러니는 현실성의 반대되는 세계를 바라는 것을 역설하기 위하여 띄어쓰기 및 거친 시어와 예로틱한 문장으로 일관하면서도 절름발이가 아닌 균형을 위하여 다른 한쪽을 심리적으로 세워하고 있어서 조화 내지는 영원성을 나타내려 하였다.

이상 시의 전통적 율격은 삼분의 리듬으로 분리된다. 한국의 전통시적 시조의 틀과 같다. 황진이 시조의 초장과 중장 그리고 종장장의 의미리듬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의미적 중량에서 감탄의 세계가 발견됨으로써 자유시도 그 신화의 모티브는 한국적 전통성을 내재하고 있게 되는 일면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 시조는 초장과 중장과 그리고 종장의 셋이 모인 하나의 커다란 의미단체가 되었다. 수 천 년 이어온 우리들의 삼대목<sup>1)</sup>이 증명하듯 합하여 된 큰 힘이다.

시조 초장 중장 종장이 가지는 한국 문학의 위대한 힘은 각각 시조시인들이 즐겨 그들의 인생이야기나 삶의 상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계의 거대한 진리를 내포하는 대표가 된다. 그 이유는 시조작품이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뚜렷한 구분을 가지는데서이다. 이 3분 논리는 다른 철학과 연계되면서 그 의미를 보다 폭 넓게 조명하게 된다. 아주 위대하 진리는 시

1) 삼대목[ 三代目 ]; 신라 제51대 진성여왕 때 엮은 향가집. \*저자 ; 위홍(魏弘) · 대구화상(大矩和尚). \*시대 - 통일신라시대(888년). \*\* 《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紀)」에 이 책에 관한 기록만 있고, 지금은 전하지 않는 한국 최초의 가집(歌集). ‘삼대(三代)’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신라의 상대(上代). ·중대(中代). ·하대(下代)의 3대를 가리키고, ‘목(目)’은 집목(集目). 또는 요목(要目). ·절목(節目)의 뜻으로서, ‘삼대의 집(集)’이라는 뜻으로 풀이 추측.

한 편 작품이 인생의 한 장을 대표함에 있다. 작품을 이루는 글자 수에 있어서도 43자로 구성되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함을 상징할 뿐문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데 있어 절망이 아닌 바로 섬의 가치관까지 전한다. 그것은 사실은 시조한편의 작품이 3장 6구 12절이지만 시조작품이 지니는 어른앞에서 그리고 임금앞에서 ‘하노라’라는 시조작품 끝구절을 창하거나 낭송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3장 6구 11절 곧 11이라는 글자수가 상징하는 바로서기를 권면하는 구실을 하는데 있다. 이로하여 우리백성과 민족은 오랜 세월동안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잘 견딘 역사를 가지고 있다.

## 3장

# 시조와 리머릭의 비교

## - 중심으로

### 1. 시조와 리머릭

#### (1). 제기

영국 에이레 지방의 속요 리머릭은 시조형태를 지닌다는 데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 이유의 나변에는 오랜 역사의 한국 역사는 그 옛날 지구의 반을 다스리던 기록에서 얻어진 작품의 유산물이 된다. 각기 나라마다의 국가이익을 위한 호불호 역사기록이 묻히긴 했지만 언어가 남기는 기록은 아무리 오랜 다른 환경을 거쳐 왔어도 남는다.

첫째 조건은 우리 시조작품이 지니는 특징중에 대화체이다. 리머릭은 대화체로 되어 있다. 둘째는 반복비법이다. 시조특징중에 가장 반복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은 시어의 묘미이다. 이 점을 리머릭은 그 대표적 특징을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국 에이레 지방 속요 리머릭이 우리의 시조의 특징과 어떤 점이 유사한지를 살펴보는 기회를 문제로 제기한다.

#### (2). 리머릭의 특징

저자 리처드 러트(Richard Rutt)는 시조번역 지 『*The Bamboo of Grove*』<sup>1)</sup>의 서문에서 시조가 한국어의 특성에서 자생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리처드 러트는 한국에 와서 더 코리아 타임지(*The Korea Time*)지를 통해 Limerick 형태로 한국인의 의식구조 생활 습성, 사회상에 대한 관점을 창작하였다.

리머릭은 에이레 지방의 정형시로 5행을 가진 속요 형태이다.

There was an old man with a *beard*  
Who said "It is just as I *feared*  
Two owls and a hen  
Four larks and a wren  
Hare all built their nests in my *beard*

There was a young fellow named *fisher*  
Who was fishing for fish in a *fissure*  
Then a cod is with a grin  
Pulled the fisherman in  
Now they're fishing the fissure for *fisher*

- Adward Lear<sup>2)</sup>

영국 에이레 지방 리머릭은 행갈이로 1행과 2행과 5행이 나란히 놓이고 3행과 4행이 한 칸 들여 쓰여 진다.

## 2. 리처드 러트와 리머릭

---

1) Richard Rutt, *The Bamboo of Grove*, University of(Alifomia Press Berkely) Losangeles London.

2) Adward Lear(1812-1888), *Poet Laureate of the Limerick* 1846 A book a nonsense 1871 nonsense sonis.

1). 한국문학과 리머릭 속요

(1). 타임즈의 리머릭

한국에 오랫동안 머무른 선교사 리처드 러트는 리머릭으로 코리아 타임즈를 통해 당시 한국의 유명한 춘향이와 황진이의 문학 이야기들을 창작하였다.

Spring fragrance,  
The fride of the Nam *won*  
Rejected all mail hangers-*on*  
Till one day in spring  
With a rich boy: and then it *wason*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1. 11. 6

춘향이는 못 남성 거절하고  
어느 날 봄 속으로 헤엄쳐 노니누나  
넌과 만 어우러지며 사랑 속에 잡겨라

- 이영지 역

After famed kisaeng of *kisaeng*  
Said "Life may be brief: Art is *long*"  
Hwang chini should know  
Though she sleep neath the SNOW  
Her Sijo are still going *strong*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2. 1. 8

황진이 이름에서 빛이 나 반짝반짝  
그녀는 알았어라 진정한 삶의 깊이  
눈 속에 잠잘지라도 그의 시조 빛나네

- 이영지 역

전통적으로 고금을 통하여 사랑받고 있는 문학작품은 춘향이 이야기이다. 춘향가로도 널리 알려진 이 이야기를 리처트 러트는 리머릭 리듬으로 남원=*Nam won*과 *-on*과 *wason* 3의 끝 알파벳 n= 니은= ㄴ시어리듬을 만든다. 리처드러트의 황진이이야기도 있다. 기생= *kisaeng*과 *long*과 *strong*의 끝알파벳 ng= 이응= 리듬으로 한다. =*know*와 눈=*snow*도 리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음률은 김 샷샷 이야기를 시작품으로 한다.

Kim-sak-kat the famed of *spoo*f  
 From his family kept of *aloof*  
 He wondered the Land  
 With rain hat in hand  
 Like gome kat on a hottin roof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0. 9. 19

샷샷 방랑시인 집안을 감추려고  
 머리에 샷샷 쓰고 나라를 두루 돌아  
 뜨거운 양철지붕의 고양이로 살았네

- 이영지 역

김 샷샷 이야기를 양철지붕위의 고양이로 표현하면서 1행에 *spoo*f 2행에 *aloof* 3행에 *roof* 음위울 공식을 가진다. 3행에 *Land*와 4행에 *hand*를 꺾겨 들여 넣는다. 이러한 리머릭 음율 리듬은 이번에는 부산의 젊음을 상대로 하는데 1행에 부산=*Busan* 2행에 *fan*, 5행에 *man*이며 이어 3행 *fear*와 4행 *queer*로 한다.

A Stylish young chap from *Busan*  
 Took a stroll with umbrella and *fan*  
 New yorkers, I fear

Would think he was queer  
But Koreans would, call him a *man*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0. 10. 29

우산가진 부산의 멋쟁이가  
이 나를 유혹할까 겁나고 무서웠지  
상냥히 벋으로 대해 나를 반겨 주었네

- 이영지 역

러트는 한국의 유명한 김치에 대하여도 리머릭으로 시  
창작 하였다.

Here's to Kimchi the korean's *delight*  
Hurrah for each deppery *bite*  
They eat it for lunch  
For breakfast and brunch  
And there's a hot time in town every *night*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2. 2. 22

얼얼한 한국김치 톡 쏘는 그 맛이라  
점심에 아침에도 아침에 점심겸도  
저녁도 매운 김치로 매일 먹고 사누나

- 이영지 역

1행의 *delight* 2행의 *bite*와 5행의 *night*음위율과 별도의 3행  
*lunch*와 4행의 *brunch*의 늘 점심때도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음률 화 하였다.

한국의 고려청자는 외국인방에도 놓여 있다.

That beautiful Koryo celadon  
Is ages old pottery mellowed on  
The dank floors of tombs

Now in stylish foreign rooms  
Cake is served in what skeletons yellowed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0. 12. 5

막 고려청자 무덤을 나와서는  
유난히 좋아하는 외국인 방 안에서  
고 문 갑 잘도 어울린 보물단지 제1호

- 이영지 역

한국여인의 정조 관념에 대하여도 대구여성을 대상으로 한 리머릭 형태의 시조스타일이다.

There was a sweet girl of *Taegu*  
Who ought to have lived in a *zoo*  
If any young buck  
Should call her a buck  
She'd answer by making a *mouse*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1. 11. 20

대구의 아가씨가 보기에 아주 예뻐  
한 젊은 숫 사슴이 그녀를 불러 봐도  
찌푸린 얼굴을 보며 대꾸하려 안 하네

- 이영지 역

1행의 대구=*Taegu*와 2행의 *Zoo* 5행의 *mouse* 그리고 3행 4행의 *buck*의 동일 언어로 음률 화 한다. 매운 김치와 고려청자 대구의 아가씨 등 그의 관심사는 그의 작품으로 변모하며 에이레지방 속요 작품형태이되 시조작품다운 형태로 한다.

이러한 리처드 러트의 영어식 시조작품들은 시조의 형태가 1행과 2행과 그리고 5행이 연결 지어지게 놓여 졌다고 유추된다. 리머릭 형태이면서 시조작품 형태를 지닌다. 이 5행의 시는 중간 3행과 4행을 빼도 시조작품의 흐름을 가진다. 첫째 1행은



전개된다. 2행은 시조작품의 중장처럼 전개되는데 초장의 도입단계로 시작하여 2행에서 그 구체성을 드러낸 발달 단계이다. 3행 4행은 사설시조처럼 전개된다. 그리고 5행에서는 합일의 의미전개로 시조작품 순서로 되어 있다.

5행으로 된 이 리머릭의 특징은 3행과 4행이 들어가지 않아도 손색이 없다. 1행과 2행과 5행은 압운 *beard ... feared ... beard*를 이루고 3행과 4행은 *a grin ... in*으로 압운리듬이 이루어진 이러한 특징들이 영국 에이레 지방 리머릭 예이다.

리머릭들은 영어만이 갖는 알파벳 리듬을 활용하면서 아름다운 문학의 서정을 드러내는데 이로 말미암아 모든 시조문학이 가지고 있는 압운의 리듬을 십분 맛있게 한다. 시조작품에서는 보기 드문 리듬을 에이레 지방 속요 리머릭이 가지게 된다. 리머릭이나 시조작품의 특징은 모든 시작품과 같이 리듬을 생명으로 한다. 리머릭에서는 단어의 끝을 음운으로 처리하여 마치 아름다운 방아놀이처럼 쿵쿵 찍으면서 그 리듬을 놓아 읽는이나 듣는이로 하여금 달콤한 듣기를 허락해준다. 시조작품에서도 이러한 예는 한국말에 맞는 부사어구를 늘어놓아 그 리듬감을 살린다. 그리고 말 어미의 특별한 리듬을 통하여 시조작품을 달콤하게 한다.

황진이 작품에서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의 시조작품은 ‘...마라 ...웨라 ...리’의 리운 음이 달콤하게 감긴다.

## (2). 말놀이의 노래 형식

시조작품에는 말놀이 형식의 시조가 있다.

긴긴스랑 기천<sub>기</sub>치 내내스랑  
九萬里 長空에 넌즈러지고 남는 스랑  
아마도 이님의 스랑은 <sub>기</sub>업슨가 흥노라.

-청구영언 457

靑山도 절로 절로 錄水도 절로 절로  
산절로 절로절로 수절로 절로 절로  
산수간 나도 절로절로 즈란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462

노래말의 유연한 우리말 아름다움과 리머릭  
Limerick이 처음 출발이 노래로서 시작되었음 그 유사성이다.

Limerick is the origin of this popular type of nonsense verse is  
unknown

합창단원이 “Will you come up to Limerick?”이란 노래로서  
시작하여 말보다는 노래 형태는 아리스토파네스 Aristophanes의 극 The  
Wasps나 셰익스피어의 Tempest 중 Stephano노래에서 찾을 수 있  
다. 1974년의 코리아 저널 *Korea Journal* 8월호의 Tames Wudes  
가 Beethoven의 작품을 리머릭으로 쓰고 있다.

Sonata abends are *unbending*  
And even can seen quite *unending*  
It sure is a Lotta  
Beethoven sonata  
To hear if you'er not been *intending*

노래말 놀이의 아름다움은 노래말이 지닌 대중과의 긴밀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러기에 이러한 동일성은 한국 고시조의 작품에서 서로 닮은 꼴을 지닌다.

/ 이 몸이 주겨주거 一白番 고쳐주거 8  
 성삼문/ 이 몸이 주겨가서 무어시 될소흐니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6

정몽주/ 白骨이 塵土되어 녀시라도 잇고업고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8  
 성삼문/ 蓬萊山 第一峰에 落落長松 되야이서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6

정몽주/ 님向흔 一片丹心이야 가실줄이 이시라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8  
 성삼문/ 白雪이 滿乾坤홀제 獨也靑靑 흐리라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6

서로 닮기는 그 만큼 널리 퍼지면서 그 유사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시조작품은 대화체이다. 리머릭도 대화체이다. 대화체로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묘미를 더하여 대중과의 친숙성에서 오는 말 놀이 노래로 확인된다. 한자가 많이 쓰이는 무거운 고시조작품도 이 대화체를 통해 입으로 전해지는 친숙성에 몰입된다. 마찬가지로 리머릭도 대화체로서 엮어지며 그 친숙성이 제시된다.

리머릭은 더욱 느림과 같이 Andante와 Tremuloso처럼 어울려 그 즐기는 사람들의 기쁨까지 더하여 그 대중화가 높다. 에이레 합창단원이 *Will you come up to Limerick?*이라는 노래로 에이레 지방에서 불렀고 한국의 시조작품도 특별한 장소가 연상되는 특성이 드러나면서 널리 그 보급 형태가 유지된다.

## 2). 시조와 리머릭의 대화체

(1). 대화체

청구영언에는 대화체 형태의 시조가 전해진다. 그 중 임의의 몇몇 시조작품을 찾기로 한다.

이 높다흐되 ㅎ늘아레 ㅎ히로다  
오르고 ㅅ오르면 ㅎ오를이 없건마는  
사름이 제아니오르고 ㅎ만 높다 ㅎ느니

- 양사언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347

이몸이 주거가서 무어시 될소 ㅎ니  
蓬萊山 第一峰에 樂落長松 되야이셔  
白雪이 滿乾坤홀제 獨也靑靑 ㅎ리라

- 성삼문<sup>成三問</sup>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6

막음이 어린 後니 ㅎ느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에 아늑님 오리마는  
지느님 부느브람에 ㅎ여권가 ㅎ노라

- 서경덕<sup>徐敬德</sup>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23

이몸이 주거가서 무어시 될소 ㅎ니  
蓬萊山 第一峰에 樂落長松 되야이셔  
白雪이 滿乾坤홀제 獨也靑靑 ㅎ리라

- 성삼문<sup>成三問</sup>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6

靑山은 엇제하여 萬古에 푸르르며  
流水는 엇제하여 晝夜에 ㅎ지아니는고  
우리도 그치지마라 萬古常靑 ㅎ리라

- 이황<sup>李滉</sup>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37

어버이 사라신제 ㅎ길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後면 애롭다 엇지하리  
平生에 ㅎ쳐못홀일이잇분인가 ㅎ노라

시조작품에는 몇 예와 같이 대부분 “하더라” “하나니” “흐리라” “흐노라”류의 대화체가 있다.

시조작품의 특징은 대화체에 있다. 그 이유는 구전되면서 가장 쉽게 불리워지며 전달기능이 확실해진다. 이러한 대화체는 놀랍게도 유럽영어권에서도 알려지는 language가 나타내주는 언어의 의미와 그리고 성경에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Logo 로고이다. 우리말이 전해주는 말 ‘...라고’ 전하는 말이다. 그만큼 우리말의 뿌리는 단순한 지금의 한국위치가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문화권의 말이 존재했었다는 방증이 된다.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우리말의 전세계 문화권 가늠의 가능성은 이와 더불어 리머릭과 우리의 오랜 시가 시조작품의 그 공통성이 대화체라는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증거물로 남는다.

흔히 생각하기를 옛날은 문화권이 형성되지 않았을것이라 속단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성경이 말하여 주는 노아 홍수 이전에도 문화는 찬란하게 꽃피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가 발달되면서 그리고 DNA 과학적 증거로 몇천년 역사의 귀중한 장소까지 알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껌껌이 역사가 아니라 열린 공감의 시대를 잇게 해 준다. 더구나 영국 에이레 지방 속요는 리머릭과 우리의 시조작품의 그 기능성의 각도에서 친밀하다.

## (2). 리머릭의 대화체

리머릭은 대화체 형태이다.

There was an old man of St.Bees  
Who was stung in the arm by a wasp  
"When asked "Does it *hurt*?"  
He replied "No it *doesn't*"  
I'm so glad it wasn't a *horn*t

- W. S. Gilbert

There once was a man who said *God*  
Must think it exceedingly *odd*  
If finds that this tree  
Still continues to be  
When there's no one about in the *quad*

- Ronald. knoy

훌륭한 리머릭은 대화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로날드 크노이는 말하고 있다. 이 형태는 코리아 타임즈에 계속 기록되었다.

A missionary did a slow *burn*  
and tried to sham alfie to *learn*  
Said Gelt "If study I study  
A language this muddy  
I'll hall no time left over to *learn*"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2. 6. 8

한국 와서 지금껏 사는 동안  
어려운 한국 언어 만일에 배운다면  
"시간만 뺏길 뿐이야" 걱정하여 말하네

- 이영지 역

Musicologist Alan. c. *Heyman*  
Bobbed up in a kut with a *Shaman*  
When the uproar subside  
Alan frankly confided  
"I'll stay, man, just as a *layman*"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2. 2. 29

음악학자 무당과 춤 추었네  
주위가 조용하자 가만히 말하기를  
“머물러 이곳에 남아 이곳에서 살고파”

- 이영지 역

A bicycle rider called said *Ming*  
Had a fit when his bell wouldn,t *ring*  
“If I don't have a bell  
Then my job,s have a bell  
Bell no ring, Ming can, carry a *thang*”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0. 9. 12

밍씨 탄 자전거의 벨 고장 안달이야  
“이렇게 안 울리면 정말로 끝장이야  
따르르 울리지 않아 끝장이야” 하더라

- 이영지 역

시에 대화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간 위의 예이다.  
더 나열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 tutor who taught on the *flute*  
Tried to teach two young tooters to *toot*  
Said the two to the tutor  
“Is it harder to toot, or  
To tutor two tooters to *toot*”

- Anonymous

There was an old man of st. Bees  
Who was stung in the arm by a arm by a wasp  
When asked “Dose it *hurt*?”  
He replied “No it *doesn't*”  
I'm so glad it wasn't a *hornet*

- W. C. Gilbert

O my name's John Wellington  
I am a dealer in magic and spells  
In blessing and curses  
And ever filled purses  
In prophecies which and Knells

- W. C. Gilbert

There ones was a man who said "Dumn  
It is borne upon that I am  
An engine that moves  
In predestinate grooves  
I'm not even a bus I'm train"

- Maurice E. Hare

There ones was a man who said "*God*  
Must think It exceedingly *odd*  
If he find that this tree  
Still continues to be  
When there's no one about in the *quad*"

- Ronald Knoy

리머릭들은 한 결 같이 'There'라는 '거기...이 있다'의 대화체로서 리머릭 속요의 특징을 동일하게 알린다. 가장 훌륭한 리머릭체는 대화체라고 Maurice E. Hare와 Ronald Knoy는 말하고 있다.

## 2. 시조와 리머릭의 주제

### 1). 이웃과 나라 주제



(1). 주제

시조작품에는 자신에 대한 것 보다 이웃과 나라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있다.

주거가서 무어시 될소 하니  
蓬萊山 第一峰에 樂落長松 되어야서  
白雪이 滿乾坤홀제 獨也青青 흐리라

- 성삼문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6

곳지고 속넙나니 시절도 변흐거다  
풀소게 푸른버레 나뉘되야 느다는다  
뉘라서 造化를 자바 千變萬化 흐는고

- 신흘<sup>申歙</sup>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41

이고 진 저 늘그니 짐을 푸러 날을 주오  
나는 저멋거니 돌히라 무거울가  
늣기도설뉘라커든 짐을 조차지실가

- 정철<sup>鄭澈</sup>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54

뿐느믈 데온물이 고기도곤 마시이세  
草屋조븐 줄이 기더옥내 分독이라  
다만당 님 그린타스로 시름계워 흐노라

- 정철<sup>鄭澈</sup>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59

嚴冬에 벵웃넙고 巖穴에 눈비마자  
구름윈 벗뉘를 쥘적 업건마는  
西山에 히지다 하니 눈물겨워 흐노라

- 정철<sup>鄭澈</sup>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91

盤中 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는다

아니라도 품엄즉 허다마는  
품어가 반기리업슬시 글로설워 허느이다

- 박인로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96

長劍을 싸혀들고 白頭山에 올라보니  
大明天地에 腥塵이 जु겨세라  
언제나 南北風塵을 헤쳐볼고 허노라

- 남이<sup>南怡</sup>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06

閑山섬 들볼근 밤의 戍樓에 혼자안자  
큰 칼 녀페 츄고 기픈 시름 허는적의  
어디서 一聲胡笳는 늬의 애를 굶느니

- 이순신<sup>李舜臣</sup>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111

문학 특히 시조문학의 마방진은 나 자신보다 이웃을 위한 주제가 특징이다. 이러한 애국심은 그리고 애향심의 극치는 우리나라 역사가 오랜 동안의 역사가 유지되는 이유가 된다. 나보다 먼저 국가를 위하는 이러한 애국심 경지의 문학작품은 공동사회에서 따뜻한 이웃을 만들고 굳건한 국가를 만드는 기본 민심이 된다.

우리말에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그리하여 나 한 몸 바쳐서 나라를 구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지극히 당연한 논리로 형성되어 있다.

## (2). 리머릭의 주제

대화체 특성의 리머릭이 있다.

There frolicsome film titled "*Mash*"

In Seoul took a near fatal *slash*  
Preaching peace and free sex  
Did the censorship vex  
The ex hitors must hare lost *cash*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1. 3. 20

‘            ’ 영화제목 서울의 거리에는  
나침판 안절부절 평화의 서울거리  
돈 잃고 기진맥진한 꼴불견의 거리에

– 이영지 역

장면들에 눈을 돌린 날카로운 시선<sup>1)</sup>도 있다.

There was a young lady of *Seoul*  
With humor delightfully *droll*  
She went a *ball*  
In nothing at *all*  
And backed in as a parker house *roll*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1. 11. 27

서울의 아가씨는 하나도 안가진채  
무도회 잘도 들며 즐겁게 굴러굴러  
짖 굶은 익살꾸러기 야구장의 공처럼

– 이영지 역

리처드 러트는 당시의 서울야경을 체험하며 이를 리머릭으로 창작하였다. 그 창작 기법이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대화체 형식은 한국전통시가 지닌 시조의 특징<sup>2)</sup>이다. 리머릭 역시 대화체가 특성이다.

---

1) James Wade, *The Korea Time*, Jan 6. 1972. Taeyunkak Hotel.

2) Hul. Bert, *The Korean Repository* 1896. 8. pp. 203~207.

A commie called Kim made *anerror*  
By trying to so seeds of *terrow*  
The Republic, Kim found  
Is solid and sound  
While his future,s progressively *barer*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1. 3. 20

잘못알고 빨갱이 내려 왔네  
힘으로 우겨대며 가진 것 다하지만  
한국은 반공의 나라 지켜내는 힘 있네

- 이영지 역

러트는 대화체 형식을 빌어 리머릭을 창작하면서 그 내용에서 리처트 눈에 비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투철한 한국인의 애국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한국인의 아주 어려운 6·25 전쟁이 있었지만 한국인이 지닌 내공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민족임을 정확하게 알리려 한다.

한국인의 나라 지키기 정신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한국인의 특별한 애국심이 늘 작품에서 잘 나타난다. 리처트 러트 또한 이 한국인의 나라 지키기의 투철함을 간과하지 않았다. 이러한 나라를 지키는 강한 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정몽주와 성삼문을 비롯하여 다수의 작품 속에서 드러난다.

## 2). 해학문학성

### (1). 시조의 해학문학성

재미가 있는 해학문학성이 시조작품에 있다. 시조작품에서는

무명작가의 해학성이 지닌 아름다운 반복 리듬언어가 있다.

두렘한 님아 참외가튼 말씀마소  
가지가지 하시는 말이 말마다 윈 말이로다  
구시월 씨동아갓치 속속인 말 마르시소

- 무명씨

동음이되 의미가 따라오는 아름다운 리듬이다. 우리 주위의 가지와 수박과 참외가 등장하면서 이 의미가 지니는 의미전달을 겸한다. 이 리듬은 우리말이 지닌 특색 반복의 묘미를 살려서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정서를 유감없이 할 수 있는 우리말의 멋짐이다. 반복리듬묘미는 초장이 중장에서 반복되고 다시 중장에서 이를 정리한다. 수박과 참외와 가지가 지닌 각기의 이미지를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느끼는 국민정서로 살린 지은이 미상이 오리혀 공감대가 형성을 증명한다.

시조작품의 장점은 짧은 절제된 언어속에서 숨겨진 은유가 밝고 맑고 미래희망을 동반한다. a 음의 맑은 모음리듬이 모이면서 밝은 마음의 정서표출이다. 중장에서 i와 a 가 서로 어울려 번갈아 반복된다.

subakgachi dureutan nima chamegatuen malsam marsiso  
kaji-kaji hasinuen mari malmada oen maridoda  
gusiwol ssidonggachi soksogin mal marso

- Anomous

문학작품에서 애교음 비음을 드러내는 것은 사랑의 대상에게 호소하는 정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서는 여성이미지가 겹쳐지

비음 반복으로 하여 사랑스러운 이미지 전달의 효과를 가져 온다. 더구나 비음과 유음의 반복리듬은 초장과 중장에서 양음으로 남성이미지를 부각하고 음의 여성이미지는 불분명한 리듬음가로 하여 “마르시소”와 같은 경어의 대화체까지 등장한다. 따라서 초장중장과 중장에서 대비가 일어나는데 이로써 이름이 알려지지 않음으로 하여 더욱더 작품의 사랑의 묘미를 더 하게 된다.

중장 3구에서 알리는 사랑의 결과는 씨앗이미지를 드러내 더욱더 그 은유적 이미지를 강하게 한다. 이 결과를 사랑의 종결 어미로 하는 치찰음을 넣어 강조한다. 그 이미지를 “마소=*maso*”와 “마르시소=*marsiso*”로 하여 분명한 의사표현을 한다. 특히 존경어를 사용하여 사랑의 현재를 알리는 중장의 “마르시소=*marsiso*”는 초장의 “마소=*maso*”보다 훨씬 더 강한 “시소=*siso*”이다. 동시에 우리말의 일상어 속삭인다는 “소곤소곤”이 들리는 듯한 속삭인다는 “*soksogin*”도 오히려 “속삭이는=*soksagin*”의 속삭이는 달콤한 언어의미를 중첩시킨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놀이이다. 무명작가의 시적 감각이다. 소곤소곤 속삭임이 들리는 이 노래소리착각은 일상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알콩달콩하는 이미지가 강하여 진다. 사랑하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 (2). 리머릭의 해학문학성

에이레 지방 속요 리머릭에는 말놀이의 해학문학성이 있다.

A tutor who tought on the *flute*  
Tried to teach two young two ters to *toot*

Said the to the tutor  
"Is it hard or to toot, or  
To tutor two tooters to *toot*

- Anomous

반복의 아름다운 리듬으로 수 놓여진 작가 미명의 리머릭이다. 작가미명이란 다른 말로 널리 불리워지거나 알려진 공동의 노랫말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같은 언어나 미묘한 발음의 차이로 아주 뚜렷하게 달라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짧은 작품 속에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사랑에 빠져든 리처드 러트의 리머릭 시이다.

There was a young followed named *Lee*  
Who used to do crosswordswith *glee*  
Till the day his Seoul burned  
When he suddenly learned  
That female ruff is a *rhee*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1. 12. 11

사랑놀이 들떠서 즐기더니  
마음이 타버린걸 이제야 알아낸 건  
그녀의 마음속으로 빠져들어 버린 거

- 이영지 역

#### 4. 시조와 리머릭의 형태 변형

##### 1). 형태 변형

(1). 형태 변형

시조의 작품은 원래는 한 줄로 이어지는 긴 문장으로 한 편의 작품이 형성되어 있다. 청구영언에서 이 한 줄 시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어 3행시조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다. 그러나 현재는 6행시조도 병행하여 쓰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하다.

① 한 줄 시조

벽계수<sup>碧溪水</sup>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sup>一到</sup> 창해<sup>蒼海</sup> 흐면 도  
라오기 어려오니 명월<sup>明月</sup>이 만공산<sup>滿空山</sup> 흐니 수여간들 엇더리

- 황진이<sup>黃眞伊</sup> 청구영언 286

동지<sup>冬至</sup> 사달 지나긴 밤을 한허리를 버혀내여 춘풍<sup>春風</sup>짓 니불아래 서  
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날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sup>黃眞伊</sup>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287

② 3행 시조

난초1

한 손에 책(冊)을 들고 조오다 선뜻 깨니  
드는 별 비껴가고 서늘바람 일어오고  
난초는 두어 봉오리 바야흐로 벌어라.

난초2

새로 난 난초잎을 바람이 휘젓는다.  
깊이 잠이나 들어 모르면 모르려니와  
눈뜨고 꺾이는 양을 차마 어찌 보리아.

산듯한 아침 별이 발틈에 비쳐들고  
난초 향기는 물밑 듯 밀어오다  
잠신들 이 곁에 두고 차마 어찌 뜨리아.

난초3



오늘은 온종일 두고 비는 줄줄 나린다.  
꽃이 지던 난초 다시 한 대 피어나며  
고적(孤寂)한 나의 마음을 적어 위로하여라.

나도 저를 못 잊거니 저도 나를 따르는지  
외로 돌아앉아 책을 앞에 놓아두고  
장장(張張)이 넘길 때마다 향을 또한 일어라.

#### 난초4

빼어난 가는 잎새 굵은 듯 보드랍고  
자춧빛 굵은 대공 하얀 꽃이 벌고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본디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하여  
정(淨)한 모래틈에 뿌리를 서려 두고  
미진(微塵)도 가까이 얹고 우로(雨露) 받아 사느니라.

- 이병기 [문장] 3호(1939)

무릉에 이르르니 물은 한결 조요하고  
만경 꽃구름이 서운인양 부시는데  
그윽한 풍유소리가 냇을 절로 앗아라

무지개 구름다리 층층이 건너가니  
영험한 산호루는 호심에 잠겨 있고  
선인이 역사를 띄워 손짓하여 부른다

꿈속에 그리던 입을 황망히 우러르니  
서릿빛 긴 나룻에 춘풍이 감도는 듯  
봉의 눈 어린 미소는 나를 잊게 하여라

백포 황건으로 나타나는 선풍도골  
취기 도도하여 호방한 신선들은

백옥경 감로를 떠서 내게 잔을 권하나

- 이영도 「무릉」

### 6행 시조

부우웅 떠올라라  
첫사랑 떠올라라  
달 보며 별을 보며  
부부웅 떠 올라라  
첫사랑 가슴 부풀어  
꽃구름이 올라라

- 이영지 「첫사랑」 시사랑 백과사전에서

### ④ 다양한 형태

하얀 피  
쏟아놓는 골목에 들어서면 목련이 치마 자락 붙들고 첫째골목 송이  
에 새하얀 기도 쏟아 부어  
하얀피

피어난 흰 허리를 감아 둔 예쁘고도 요염한 얼굴로 와 묻으면 둘째  
골목 하늘의 하얀 기도가 송이송이  
하얀 피.

날개가 가는 허리 둘레로 하얀 새를 뽑아내 하늘에의 길 속에  
셋째골목 오르는 하얀 기도가 하얀 새로  
하얀피.  
시간을 붙들고도 하얀 꿈 쏟아 부어 하얗다 피어나다 내 허리 감아  
도는 요염한 아미로 와서 허리 묻는  
하얀피.

하늘의 하얀 기도 피어라 날개야아 둘레는 하얀 새를 뽑아내 하얀

숨결 오르는 하얀 기도의 하얀 새야 하얀 피

- 이영지 「일곱송이의 목련」 시사랑 백과사전에서

하나가 가지는 기본형 3 · 4 · 3 · 4 · 3 · 4 · 3 · 4 · 3 · 5 · 4 한국시조마방진수는 변형이 없지만 그 놓임의 위치에 따라 변형된다. 이러한 한국시조마방진수는 3으로 시작 3 · 4 · 3 · 4 · 3 · 4 · 3 · 4 · 3 · 5 · 4 · 3의 끝 3 숫자로 끝난다. 시작 3 · 4로 시작 그 끝이 4 · 3으로 끝난다. 이 4 · 3 리듬은 이음조건 줄친 부분이 보여주는 3 → 4 → 3 → 4 → 3 → 4 → 3 → 4 → 3 → 5 → 4 → 3의 이음 조건을 가진다.

바로 시조한편이 보여주는 총 43자의 은유의미가 한 사람의 생애 은유가 시조작품에 녹아 있다. 시조작품 진가는 한 작품 안에 한 사람의 생애 리듬 43으로 한다는 아름다운 의미유추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마방진 리듬이다.

시조작품 12음절은 시인의 생애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 한 사람의 생애가 가진 경험 기록 시조 작품으로 절대자가 허락한 이 세상에서의 삶은 12마디 12음절 의미이다. 그런데 이 묘미는 사실상 시조작품의 12음절 중 끝 음절 3자가 숨기면서 창하기 않거나 하여 11마디만 창하거나 하는데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시적 은유 몸 시학 두 발로 일어서! 천부경의 숨은 메시지 1의 11반복리듬이 전하는 메시지 일어나라! 두 발로 굳게 직립하라!

## (2). 리머릭의 형태변형

코리아 타임지를 통하여 드러나는 리머릭의 변형형태가 있다.

A skittish typhoon name the *Billie*  
 Be havd in a manner quiee *silly*  
 She sat on Som Roks

Spreading wind waves and shocked  
And the R. O. K took the shock *willie*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0. 9. 12

태풍 빌리 몰려와 어리석게  
한국을 놀라게 해 물결로 밀려와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어쩔 수가 없었네

- 이영지 역

5 그대로 있되 3행 4행이 앞 행과 같은 자리에 놓이었다.  
그리고 전통 리머릭 형태 5행이 7행<sup>1)</sup>으로 바뀌어 있다.

Despite Dotty parker's great fame  
The years have reputed her claim  
That men don't make pusses  
At girls who were glasses  
Through some of the yokels  
Avoid the hifocals  
It must of the frame is to blame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4. 11. 23

리머릭의 5행 형이 7행이 되어 있다. 그 위치도 앞의 행과 나란한 형태이다.

## 2). 운율문제

### (1). 시조작품의 운율문제

보통 운율 문제의 보편화는 강약강약 이거나 혹은 강약약이다. 그런데 시조나 리머릭은 약약강 형태이다. 그러나 시조작품

---

1) *Stylus Shavings* -Ⅷ, *The Korea Time*, 1973. 2. 24.

운율문제는 약약강약 형태이다.

우리말의 흐름 그대로다. 약 → 약<sup>弱</sup> → 강<sup>強</sup> → 약<sup>弱</sup>이다. 우리말의 흐름이 셋째 리듬에서 강<sup>強</sup>을 이룬다. 속담이 있다. ‘셋째 딸은 묻지도 보지도 않고 신부로 데려 간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 문화와 긴밀하다. 우리말의 자생성이 지니는 약<sup>弱</sup> → 약<sup>弱</sup> → 강<sup>強</sup> → 약<sup>弱</sup> 리듬이다. 우리말 말버릇이다. 시조리듬흐름 약<sup>弱</sup> → 약<sup>弱</sup> → 강<sup>強</sup> → 약<sup>弱</sup>이다. 우리말 응결성의 푸른 요인이다. 우리 노래 가락 흐름 약<sup>弱</sup> → 약<sup>弱</sup> → 강<sup>強</sup> → 약<sup>弱</sup> 흐름이다. 셋째 번의 어휘에 강박이 있고 이어 약으로 끝나는 리듬이다. 시조작품의 푸른 요인 판정기준이다. 자생성 시조 텍스트다움 리듬이다.

사람의 일생도 아주 어린 아기가 아주 약하지만 차츰 자라면서 청년의 강한 몸만들기와 마찬가지로이다. 하늘나라를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음도 하나하나 기쁜 마음을 모아 내 마음의 기쁜 마음의 일상을 보내기로 일생이 행복해 질 수 있다. 평생 배우기를 계속하면 훌륭한 지적 보유자가 되는 것이다. 좋은 행동을 하기 시작 할 때는 약한 질량이 되지만 모아 좋은 사람이 된다.

별 의미 없던 우연한 만남이나 매일 만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나의 첫사랑으로 그리고 첫 은인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좋은 작품 쓰기도 마찬가지로이다. 수수하기에 이를 데 없는 하찮은 물건이나 일에서 자신의 좋은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이 불갓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쇼칠 아히는 여태아니 니러느냐  
 재너며 스래깃밭출 언제 갈려 흐느냐

- 남구만 청구영언<sup>靑丘永言</sup> 203

쏟는물 데은물이 고기도곤 마시이세  
 초옥<sup>草屋</sup> 조븐줄이 기더옥 내 分이라

- 님그린타스로 시름계워 흐노라  
 - 청구영언 59
- 내마음 버혀내어 더들 밍글고저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에 번드시 걸려이서  
 고온님 계신고딧 가 비최여나 보리라  
 - 청구영언靑丘永言 69
- 반중 조홍감이 교와도 보이느다  
 유자 아니라도 품업즉 흐다마는  
 품어가 반기리어슬식 글로 설워 흐노이다  
 - 박인로 청구영언靑丘永言 96
- 장검長劍을 싸혀들고 백두산白頭山에 올라보니  
 대명大明 천지天地에 초옥草屋이 좁겨세라  
 언제나 남북풍진南北風塵을 헤쳐불고 흐노라  
 - 남이南怡 청구영언 106
-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엇는다  
 홍안紅顏을 어디두고 백골白骨만 누엇논이  
 잔讖자바 권勸흐리업스니 그를 슬허흐노라  
 - 백호白湖 청구영언 107

    좋은 작품은 두고두고 후대에 전해진다.

## (2). 리머릭의 운율문제

리처드 러트는 그가 한국에 와 머무는 동안 보아왔던 신기한 한국인의 정서와 역사를 그의 조국과 관련한 영국 에이레 지방의 속요와 유사한 점을 발견 에이레 지방 속요 리머으로 실었다. 그의 시안은 리머릭이 지닌 특징이 시조작품과의 유사성으로 인식되어서이다. 리머릭과 시조의 특징을 같은 점으로 인식

리처드러트는 1행과 2행과 5행에서 공동인식을 운율 형태로 드러내 시조의 초 중 종장 형태로 하였다. 중간의 3행과 4행은 사설시조 형식의 뜻을 다시 되풀이 하는 리듬으로 인식되어 작품화하였다.

리머릭의 출발시점이 있다. 합창단원의 “*Will you come up to Limerick*”으로 시작되었다. 시조작품도 또한 마찬가지로여서 일반 사람들의 흥얼거림으로 시작하고 그것이 지속 불리어지면서 노래가사가 되었다. 시조창으로서도 불리어지며 지속되었다. 시조작품 또한 이들을 정제하면서 작품으로 남게 된다. 리머릭이나 시조작품은 그 형식에 있어서도 해학과 유희가 넘치는 점이 같다. 또한 대화체 특징 역시 공통점이다. 더구나 작품 내에 우리시조작품이 지니는 종장에서 끝마무리 “하더라”류 표현을 리머릭에서는 said로 하여 그 말 처음과 끝 양쪽에 따옴표 “”로 한다. 마음의 독백 또한 시 문장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Sonata abends are *unbending*  
 And even can seen quite *unending*  
 It sure is a Lotta  
 Beethoven sonata  
 To hear if you'er not been *intending*

There once was a man who said "*God*  
 Must think it exceedingly *odd*  
 If finds that this tree  
 Still continues to be  
 When there's no one about in the *quad*

- Ronald. knoy

Musicologist Alan. c. *Heyman*

Bobbed up in a kut with a *Shaman*

When the uproar subside

Alan frankly confided

“I'll stay, man, just as a *layman*”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2. 2. 29

음악학자 무당과 춤추었네

주위가 조용하자 가만히 말하기를

“머물러 이곳에 남아 이곳에서 살고파”

— 이영지 역

A bicycle rider called said *Ming*

Had a fit when his bell wouldn,t *ring*

“If I don't have a bell

Then my job,s have a bell

Bell no ring, Ming can, carry a *thang*”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0. 9. 12

밍씨 탄 자전거의 벨 고장 안달이야

“이렇게 안 울리면 정말로 끝장이야

따르르 울리지 않아 끝장이야” 하더라

— 이영지 역

There was a young followed named Lee

Who used to do srosswordswith glee

Till the day his Seoul burned

When he suddenly learned

That female ruff is a rhee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1. 12. 11

기쁨의 사랑놀이 들떠서 즐기더니

마음이 타버린걸 이제야 알아낸 건

그녀의 마음속으로 빠져들어 버린 거

— 이영지 역

There was a young lady of *Seoul*

With humor delightfully *droll*

She went a *ball*



In nothing at *all*  
And backed in as a parker house *roll*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1. 11. 27

아가씨는 하나도 안가진채  
무도회 잘도 들며 즐겁게 굴러굴러  
짖곳은 익살꾸러기 야구장의 공처럼

– 이영지 역

There was a young fellow named *Lee*  
Who used to do crosswords with *glee*  
Till the day his Seoul burned  
When he suddenly learned  
That a female ruff is a *Rhee*

– Richard Rutt *The Korea Time* 1971. 12. 11

기쁨의 사랑놀이 들떠서 즐긴 이군  
마음이 다 타버림 알았네 어느 날에  
그녀의 마음속으로 빨려들어 타버린

– 이영지 역

압운을 사용하되 문장 내에서 각 구의 끝 자를 같은  
영문자로 같이하여 3회 반복리듬을 압운으로 하기도 하고 3행과  
4 행을 다른 리듬으로 하기도 한다.

The Korea Review 1902

The Korea Repository 1896

The Korea Times 1970~1974

The Korea Review 1902

CYril Birch, *Anthology of Chinese Literature*: from early times to the fourteenth century. Compiled and edited Donald Keene copyright © 1965 by Grove Press Inc all Right Reserved

Donald Keene *Anthology of Jaepaneses Literature*: frpm earlist era to the mid nineteenth century, commission for Unesco Seoul.

진본청구영언 유창식 정규동 교주 신생문화사 1967

The Korea Times 1970~1974

Prentice Hall, *Literature Popular Culture and the Society* Inc Englewood cliffs. N. J. Printed in the Unite State of America. 1961

Richard Rutt, *The Bamboo Grove* University of(Alifornia Press Berkely) Losangeles London.

<저자 상세 프로필>



문화예술인 · 문학박사 · 철학박사  
시인 · 시조시인

대표저서

- 『시조문예 미학』 2001 『한국시조문학론』 1986  
『한국시조시학 연구』 2017 『이상 시 연구』 1989, 1997  
『이상시학 연구』 2017 『시조 창작 리듬론』 1997, 1998  
『한국 시조 창작 리듬 연구』 2017  
『물에 대한 신학과 문학의 비교연구』 2008  
『물의 신학과 문학』 2013 『물의 신학과 물의 시학』 2017  
『홍문표 에텐시학연구』 2019 『한국시조 문예미학 연구』 2020

시조집

- 『하오의 벨소리』 1989 『행복의 순위』 1997  
『행복행 내남네』 1998 『일곱 금촛대 위에 행복』 1999

행복보리』 2000 『두 천년을 사는 행복』 2001  
『키스하지 않은 결혼의 행복』 2002 『하나님의 행복한 연출』 2007  
『행복의 물을 먹으며, 사랑으로』 2008 『사랑이랑 행복 이랑』 2015  
『사랑비비행복』 2015 『알았아와요 이브』 2016  
『장미와 앵두』 2017

『행복함에든 사랑받으세요』 2013  
『행복코를맞대고 사랑우산을쓰면』 2011  
『행복잔찰랑사랑찰랑』 2013 『드림행복』 2013  
『햇살보쌈』 2013 『사랑너』 2014 『사랑비비』 2014 『첫사랑이』 2016 『알았아와요이브』 2016  
『사랑사과』 2016  
『사랑일기 포오란 사랑두께』 2016 『행복들이』 2021 『행복 쿵』 2021 『행복 몸이 숨쉬는』  
2021 『행복만나』 2021 『꽃길전화』 2021

## 전자저서

『물은생명이다의 문학과신학의 비교』 2012  
『한국인이 복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2012  
『이상시 오감도의 구조와 상징』 2013  
『개정판 이상시학 연구』 2020  
『한국시조작품창작리듬연구』 2020  
『시조문학의 미방진 미학』 2022

## 전자 책 발간 후 종이책

『알았아와요 이브』 2017 『복숭아 꽃덩이』 2021

**수필집:**

행복에 대하여』<sup>2016</sup> 『추석선물』<sup>2016</sup>

**학위 논문**

**문학박사:** 「오감도의 구조와 상징에 관한 연구」<sup>1986</sup>

**철학박사:** 「물의 초월성과 현실성과 회복성에 관한 연구」

—사랑의 U리듬을 중심으로」<sup>2007</sup>

# 우리 시조문학의 마방진 미학

2022 07월 01일 발행

지은이 / 이영지

발행인 / 안재동

발행처 / 한국문학방송

(08227)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93-7,

(고척동) 일이삼타운 2동 2층 252호

Tel 010-5151-1482

dsb@hanmail.net

/ 제25100-2008-000065호

정가 5,000원

ISBN [ ]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 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지은이 및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